

MISSION
미션 파일럿

The David Gates Story

MISSION
미션 파일럿

High Adventure in Dangerous and Heavenly Places

MISSION PILOT

The David Gates Story

by **EILEEN E. LANTRY**

Copyright © 2006 by
Everlasting Gospel Publishing Association

Published by
Everlasting Gospel Publishing Association

High Adventure in Dangerous and Heavenly Places

MISSION PILOT **The David Gates Story**

초판 발행 : 2006년 12월 23일
원저자 : EILEEN E. LANTRY

번역인 : 조 온 유
발행인 : 조 명 준
편집인 : 조 성 휘

발행처 : 에버라스팅 가스펠 출판사
등록일자 : 1990년 6월 20일(19-20호)
주소 : 경기도 여주, 산북, 상품, 112-18
전화 : 031-884-7473, 7921, 6183(F)
info@egpa.net www.egpa.net

정가 10,000원

본 출판물은 원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출판되었음

ISBN 89-89268-62-1

Printed in Korea

추천의 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또 그분의 창조물들을 목격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실 때 놀라는가?

본서에서는 데이비드 게이츠 부부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업적들과 직접적이고 놀랄만한 섭리들을 세상에 외친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갓 태어난 데이비드의 내장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과 8세 된 데이비드에게 성장한 후에 한 특별한 소녀에게 청혼할 마음이 들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등학생 데이비드를 비행기 사고에서 건지신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 비행기가 공중 납치 되어 군인들이 그의 등 뒤에 총을 갖다 대는 장면에서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부부가 그들의 다섯 자녀들과 함께 아무런 재정지원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정글 마을로 가도록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하셨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동안 데이비드를 경탄해온 이들에게 이 책은 그들의 그러한 인식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멋진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말이 될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데이비드와 그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은 남미의 정글에서 봉사하고 있다. 거의 매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표적들과 개입하심으로 그의 선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망을 열어 보여주신다. 독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위험지역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즐거이 선택한 한 부부에 대한 경탄을 증대시킬 많은 이야기들은 계속될 것이다.

물질문명이 도태하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의지할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게이츠 가족의 헌신적인 봉사는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풍성함을 가져올 것이다. 자, 이제 마음과 정신으로 그들의 단순한 정글 생활을 들여다보자. 광대한 열대 우림 위로 날아가 보자. 강도들이 그들을 급습했을 때 나타난 천사들의 보호를 경험해 보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 그리고 남미의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이 누리는 축복들을 세어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록 부르신 이 일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만족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2001년 9월

이스라엘 레이토(Israel Leito)
중앙 아메리카 지회장
마이애미, 플로리다

CONTENTS

공중납치를 당하다! / 7
어린 시절의 추억 / 20
수감생활 / 28
베 키 / 37
감옥에서의 도전들 / 48
구름이 걷히기 시작함 / 61
길었던 밤 / 67
집으로 돌아오다! / 78
동행하는 천사들 / 84
과도한 스트레스 / 94
새로운 경영 방법 / 100
가이아나 재림교회 의료 항공 서비스(GAMAS) / 110
마이애미에서 카이칸으로 / 118
데이비스 인디언 산업 대학 / 125
밤에 일어난 일 / 137
정글 마을에서의 날들 / 141
요단강이 갈라지다 / 150
뜻밖의 일들과 질병 / 163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심 / 170
희생의 필요성 / 175
텔레비전 기적 / 183
한계는 없다 / 191
우는 사자 / 199
하나님께 너무 힘든 것은 없다 / 203
하나님의 재역사하심 / 213
부록: David Gates와의 대화 / 227



공중납치를 당하다!



“교수님,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지에 안개가 자욱해요.”

미국인 선교 비행 조종사인 데이비드 게이츠는 세스나 185 기종의 조종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지평선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남부 멕시코의 시에라마드레 지역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퍼부었나 봅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병원 근처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나이트 멕시코인에게 또렷하고 정확한 볼리비아 악센트의 스페인어로 말했다.

“문제가 뭐가, 데이비드?”

“활주로는 저지대에 있고, 짧은 잔디에 물이 차면 표면은 얼음처럼 미끄러워 집니다. 착륙속도를 느리게 한다해도 브레이크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무를 들이받을 거예요.” 10년이 넘는 조종 경력의 데이비드는 그들이 직면한 위험이 어떤지 알았다. 그는 잔뜩 긴장하고 경직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첸테 교수가 물었다.

“저공을 하며 이 지역을 몇 번 돌아야겠어요. 좀 더 높은 지면에 평평한 곳이 있나 찾아 봐야죠.” 비행기는 고도를 낮추고 구름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저기 있네요.” 그가 왼쪽을 가리켰다. 지고 있는 해가 선교 병원, 고등학교, 간호학교의 부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주위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밖의 직원들의 사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활주로 옆에 있는 저 작은 집 보이시죠? 그게 바로 제 집입니다. 아마 지금 제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를 보러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제 무전기 수리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전화를 할 수가 없네요.” 그는 더 낮게 주변을 한 번 더 돌았다.

“짧은 잔디를 덮고 있는 물위에 착륙할 수도 없지만 무방비 장소에 비행기를 두는 것도 위험하죠. 유일하게 안전할 만한 장소는 격납고 안이에요.”

“자네 말이 맞네.” 재림교회 학교 장학사인 첸테 교수가 맞장구쳤다. “지난 몇 달간 개인소유의 비행기들이 납치된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들었네.”

“연로계기는 최저치를 가리키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빛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머리를 스치는 성경구절이 있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주님 감사

합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병원과 나란히 뺨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고지대라 물기가 없고 저녁 이 시간에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아요.” 그는 누군가 손 흔드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학교 위를 빙빙 돌았다. 그리고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나가는 차는 없군.’ 비행기의 고도를 낮추고 무사히 착륙한 다음, 길 옆 넓은 곳에 착륙시켰다. 잠시 후 교사 한 명과 경비원이 픽업트럭을 타고 왔다.

“활주로에 착륙 안하길 잘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경비원이 말했다. “제가 오늘밤 비행기 안에 있을게요. 저를 안에 두고 잠그세요.”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문고리만 돌려요.”

두려움이 뱀 목소리로 경비원이 외쳤다. “아닙니다. 아무도 이 비행기가 마음대로 열리고 닫힌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곳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내일 아침에 일찍 올게요.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거예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캠퍼스를 따라 난 녹음 길은 자갈길을 걸으며, 그는 멀리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집에 다다르자 그의 어린 두 딸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한 살인 카를로스는 아장아장 걸어와 두 손을 뻗어 아빠를 환영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금발의 어머니도 사랑하는 남편을 맞으러 달려 나왔다.

“어떤 왕도 이보다 나은 환영을 받지 못할 거야.” 데이비드는 모두

의 볼에 입 맞추고 껴안으며 즐거운 듯 말했다. 베키는 모두를 저녁 식사가 준비된 식탁으로 안내했다. 데이비드가 기도를 마치자 베키는 아이들이 먹는 것을 도와 준 후, 데이비드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탄 비행기 소리는 항상 날 두근거리게 하고 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난 당신 옆에 앉아 당신이 만들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하늘에 와 있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지. 오늘 밖에서 겪은 모든 문제들 후에 누리는 이것은 바로 평화라오.”

저녁식사가 끝난 후 베키가 제안했다. “엄마가 설거지를 끝내면 거실로 가서 오늘 아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자꾸나.” 세 아이는 아빠 무릎에 걸터앉아 기대에 찬 얼굴로 바라보았다. “아빠가 오늘날 여자아이의 충치를 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치아 뿌리들이 휘어져 자라 아래부분에서 서로 엉켜 있었어. 어찌면 턱뼈를 잘라야 할지도 몰라.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최대한 빨리 치과의를사를 모셔간다고 약속을 해주었더니 얼굴에 고마워하는 표정이 번지더구나. 그 모습에 오늘 하루 다른 곳에서의 일들도 한결 쉽고 보람이 있었다.”

동정심 많은 리나가 끼어들었다. “그 여자 아이가 아파서 정말 안됐어요. 빨리 낮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게요.” “고맙다, 우리 딸.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 아빠 마음이 기쁘다.”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다. “교수님과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학교들을 방문했어. 내일도 몇 군데 더 방문할 계획이야. 비행기 연료를 채워야 하니까 내일은 일찍 나서야 해.”

“아이들도 피곤해 보이네요.” 베키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오늘 아빠를 너무 보지 못해서 오늘은 자지 않고 당신을 기다려도 된다고 허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데이비드의 집 문을 두드렸다.

“게이츠 씨, 비행기 주위에 군인들이 있어요. 당신의 서류들을 보고 싶습니다.”

“문제없어. 곧 가겠다고 전해주게.”

데이비드는 베키를 향해 돌아섰다. “서류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을 거야.” 그는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했다. “멕시코 대통령이 보낸 아드라(ADRA) 사업에 대한 감사편지, 아드라 신임장, 그리고 민간항공국장 이민국, 또 세관으로부터 받은 허가서가 있지. 이곳에서 비행기를 운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데이비드는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섰다가 멈추고는 베키에게 다시 갔다. 그는 농담조로 “키스하는 것을 깜빡할 뻔 했어. 당신을 다시 못볼 경우를 대비해서 키스를 해주고 싶어.” 그는 농담을 하는 것이었지만 잠시 동안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베키는 웃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곧 나가서 교수를 만났다. 학생들과 학교 픽업트럭을 타고 비행기를 놓아두었던 곳으로 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데이비드는 비행기 옆에 서있는 군인들에게 인사했다. “당신들이 내 서류를 보기 원한다고 들었소. 모든 것이 있으니 보시오.” 지휘관인 듯 보이는 대위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데이비드의 말이 옳음을 인정했다. 데이비드는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을 주목해 보았다. ‘곤잘레스’가 대위의 이름이었다.

“당신이 2년 전에 이 비행기를 조종한 사람이요?” 곤잘레스 대위가

물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조정하는지는 1년 반 되었습니다. 전임 조종사는 2년 전쯤 떠났죠. 나는 데이비드 게이츠라고 합니다.” 대위는 데이비드의 대답을 듣고 혼동되는 듯 보였다. 대위가 무전기로 이야기 하는 동안 군인들은 트럭으로 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곤 데이비드와 교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있으시오.” 대위가 말했다.

“여러분, 전 오늘 여러 마을에 긴급한 방문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전보를 받았는데 한 남자분이 죽어가고 있어서 즉시 후송시켜야 합니다. 또 충치 있는 소녀를 치료해야 하구요.”

“장군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갈 수 없소.”

데이비드는 일이 지체되자 조급해짐을 느꼈다. 그는 군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비행기 주위를 안절부절못하며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가 대위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들 여기 밤새도록 있었습니까?”

“그렇소.”

“저녁이나 아침식사는 했나요?”

“둘 다 못했소.” 대위가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군인들의 수를 센 후, 학생 한 명을 불러서 말했다. “병원으로 가서 이 군인들에게 드릴 음식을 좀 가져와라. 배고픈 것 같다.” 학생들은 트럭을 타고 병원으로 갔다.

잠시 후 그들은 군인들에게 줄 음식을 갖고 돌아왔다. 데이비드는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음료수를 사서 군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군

인들이 요기를 한 후 곤잘레스 대위는 데이비드에게 웃어 보이며, “잘 먹었소. 고맙소.”라고 말했다.

마침내 무전기로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고, 대위가 장군의 기별을 듣고 돌아와서 “장군께서 당신이 특별 활주로로 오기를 바라시오.”라고 전했다. 데이비드는 그 장소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 활주로는 쓰지 않는 곳인데요.”

“장군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날 거요.”

데이비드는 걱정에 휩싸였다. 식은땀이 흘렀다. 사방에 군인들로 가득한 버려진 활주로에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한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다.

“대위님, 저는 거기보다는 5마일 정도 떨어진 민간 활주로에 착륙시켰으면 하는데요. 제가 거기로 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그거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금방 돌아오게 될 거요. 그저 장군께서 당신의 서류들을 확인하시도록 잠깐이면 됩니다.” 데이비드는 대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점점 더 불쾌해짐을 느끼며 그는 계속해서 거부했다.

마침내 한 군인이 데이비드의 등 뒤에 총을 겨누며 명령했다. “비행기에 올라타.”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항의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었다. 대위와 또 다른 한명의 군인이 비행기 뒷좌석에 올라탔고 교수와 데이비드가 앞에 앉았다.

“제게는 조종석에 앉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

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모두 모자를 벗고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뒷좌석에 앉은 두 군인을 뒤돌아보며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들이 응했고 데이비드는 기도했다. “하늘 아버지, 이 안에 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이비드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이륙했다. 무전기를 수리에 맡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목적지에 대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려줄 방법이 없었다. 그는 베키와 통화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비행을 하면서 그는 무선기로 통신하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이크를 입에 대고 그는 합회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행동했다. “즉시 멕시코시티에 우리가 지금 버려진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보내주십시오.” 데이비드 뒤에 앉아 있던 곤잘레스 대위는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다. 그러나 그가 작동하지 않는 무전기에 대고 떠들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 데이비드는 “몇 분 후 착륙예정입니다, 오버. 즉시 법률 전문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며 말을 마쳤다.

버려진 활주로에 착륙하기가 꺼림칙했던 데이비드는 다시 대위에 게 말했다. “나는 비행기를 민간 활주로에 착륙시킬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없소. 당신은 장군이 명령한 곳에 착륙시켜야 하오.”

“하지만 당신이 몇 분 안으로 제가 다시 집으로 가게 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연료충전이 필요해요.”

“안됩니다.” 대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군께서 말한 곳에 착륙하라는 것이 명령이요.”

“그렇다면 날 쏘시오. 난 어쨌든 그곳에 착륙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자 곤잘레스 대위가 극도로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민간 공항에서 데이비드는 비행기에 연료를 채웠다. 그는 무전기 상으로 장군이 대위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왜 거기 착륙하도록 허락했나?” 장군은 성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조종사가 연료가 필요하다고 복종하길 거부했습니다.” 대위가 설명했다.

데이비드는 조용하게 공항의 항공택시기사에게 말했다. “잘 들으세요. 전 지금 납치당했어요. 제 아내나 병원관계자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주시오. 내가 공군기지에 억류될 것 같다고 전해 주시오.” 그는 누군가 그를 찾을 것이고 적당한 사람들과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행기에 4명의 남자들을 태우고 데이비드는 버려진 활주로를 향해 날아갔다. 착륙하자마자 데이비드는 어쩔한 느낌을 받았다. 군인 하나가 공손하게 명령했다. “죄송하지만 비행기에서 떨어져 이쪽으로 서시오. 제가 수갑을 채울 수 있게 손을 뒤로 하시오. 눈을 가릴 동안 벽에 기대어 서시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명령했다. “그들의 등 뒤에 총을 겨냥. 움직이면 그대로 쏘.”

“이게 생시인가?” 데이비드가 생각했다. 그가 꼼짝 않고 서있을 때 군인들이 비행기를 요란스럽게 살살이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그들은 데이비드와 교수를 픽업트럭 뒤에 태웠다. 그 지역의 길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공군기지로 가는 길의 모퉁이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성경에 “저가 증거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요 1:7)고 가리키는 침례요한을 생각했다. 그는 ‘오, 하나님, 무엇이 절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제 곁에 계셔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트럭이 멈추자 군인들이 여전히 눈을 가린 채 낮은 문을 지나 길고 좁은 복도를 거쳐 그들을 데려갔다. 머리를 부딪힐까봐 데이비드는 머리를 최대한 낮게 숙였다. 마침내 그들은 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앉으시오.” 심문자가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몇 분 후 간수들이 교수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즉시 심문이 시작되었다. 한 시간 동안 심문을 하고 난 후, 그들은 데이비드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고 교수를 심문했다.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군.’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들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대답을 하였다.

“당신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불법을 할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포하는 것은 뭐가?”

외국인들이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 멕시코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데이비드는 직접 그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난 간호사이고 의료행위를 할 뿐입니다.”

“저 자가 성경을 배포했다고 기록해.”

“그렇게 적으면 난 서류에 싸인 하지 않을 것이요.”

“삭제해.”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하루 종일 심문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곤잘레스 대위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친절했다. “이 보게, 이 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네. 이분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점심식사를 하게 하는 것일 거야. 교수를 데려와. 눈 가린 것을 치우고 수갑도 앞으로 채워. 치킨 샌드위치를 드릴까요?”

“고맙소.” 교수가 대답했다.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제가 까다로워 보이길 원치 않지만 제겐 달걀 샌드위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이봐, 교수에게는 치킨 샌드위치를 갖다 주고 조종사는 달걀 샌드위치로 가져다주도록 하게.”

샌드위치를 몇 입 먹고 냐을 때 데이비드는 주머니에 지인들과 교회지도자들의 연락처가 적혀있는 종이가 있음을 기억했다. 작은 종이쪽지 안에는 많은 이름들,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들이 적혀 있었다. 이 정보가 자칫하면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는 교회 지도부 중 아무도 무고하게 체포되길 원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는 수갑 찬 양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작은 종잇조각을 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달걀 샌드위치 속에 넣고 삼켰다. 그 딱딱한 샌드위치를 씹어 넘긴 후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자 다시 눈을 가리고 뒤로 수갑이 채워졌다. 교수가 심문실로 끌려 들어갔다. 한 시간 심문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다. 오

후 늦게 처음으로 데이비드는 교수가 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실수로 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이었다.

“저는 게이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소. 그러니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오.”

데이비드는 의아해졌다. 그와 교수는 그가 선교조종사로써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밀접하게 함께 일해 왔다.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군. 걱정이 필요해.’ 데이비드가 생각했다.

데이비드가 다시 심문 받으러 들어갔을 때 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님,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굽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교수님께서 허위를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수님은 스스로를 다치게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군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수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죄인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워 마십시오.”

교수는 심문자들을 향해 얼굴을 들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데이비드 게이츠와 일하고 그를 매우 잘 압니다. 거의 2년 동안 우리는 함께 일해 왔소. 나의 진술을 바로잡아 주시오. 내가 아까는 겁이 났소.” 곤잘레스 대위가 그가 한 말을 모두 지웠다.

그러자 눈가리개가 벗겨졌다. 데이비드는 서기가 오래된 타자기로 친 것이 20여장이나 뒀을 보았다. 군인들이 말한 것들은 데이비드에게 왜 체포되었는지 실마리를 주지 못했다.

“읽고 서명하십시오.” 대위가 말했다.

데이비드와 교수는 명령대로 했다. 그러자 다시 눈이 가려졌고 군

인들은 그들을 픽업트럭으로 데려갔다. 데이비드는 그들이 감옥까지 산을 넘어 오랜 시간 달리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은 그들이 읍내를 통과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불과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의 소중한 아내와 딸들, 그리고 얼마 전 입양한 아들 카를로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는 언덕을 지나쳐 갈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분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낫선 장소로 보내어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인가?

혼동되고 고독해진 데이비드는 그의 가족과 함께하기를 애타게 바랐다. 그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린 시절의 추억



비가 세차게 데이비드와 교수를 내리쳤다. 그들은 운전실 가까이 몸을 기댔다. 구불구불한 길과 저속기어로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산을 통과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데이비드는 아침에 코트 없이 반팔 셔츠만 입고 나왔다. 찬바람이 뺏속까지 밀려 들어왔고, 그는 떨기 시작했다. “추위 보이는군요.” 호송병이 말했다.

“네, 조금 춥네요.”

군인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데이비드의 몸을 덮어주며 친절하게 말했다. “입으세요. 가져도 됩니다.”

“고맙소.” 데이비드가 크게 말했다.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점심을 먹여주고 외투를 벗어주는 이런 친절한 행동들이 당신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이 여행에서 만나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날 밤 눈이 가려진 채 덜컹덜컹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가며 데이비드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그의 생각은 사랑하는 아내 베키에게로 향했고, 지나간 세월의 소중한 추억들을 더듬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그가 아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고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해주신 것을 기억했다. 장폐쇄증과 악순환증(장이 간헐적으로 닫혀있고 맹장이 왼쪽에 있는)을 갖고 태어난 그는 연동운동-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신경기능-이 없었다. 담당의사가 당시 메릴랜드 주에 있는 워싱턴 선교 대학의 간호학 강사였던 어머니 메릴딘에게 와서(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근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음) 말했다.

“게이츠 부인, 당신의 첫아들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데이비드가 태어난 후 첫 3주 동안 의사는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다. 그는 그의 장들을 고쳐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중에는 창자를 많이 제거하기까지 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의사는 데이비드의 위장 일부분을 개조하여 특별한 연결을 해서 중력에 의해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 아무 것도 아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첫 3주간 아이는 장으로 음식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헤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침통한 목소리로 의사가 말했다. “아기는 죽을 거예요.”

믿음으로 데이비드의 부모는 레슬리 하딩 박사에게 아기의 봉헌을 부탁했다. 봉헌 기도 이후 24시간 내에 간호사가 처음으로 내장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는 아기의 복부를 엑스레이 촬영했고 흥

분에 차서 말했다. “창자가 이제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아기가 연동신경계 없이 태어났는데도 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자 의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아기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아기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이 분명해요.”라고 말했다.

데이비드가 겨우 첫돌이 지났을 때 선교사 부모는 그를 볼리비아의 정글로 데려갔고, 그는 그곳에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성장했다. 그가 세 살 되었을 때 목사이자 선교 조종사인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저지대 정글에서 ‘라 파즈’ 시로 데려갔다. 4,200m의 해발은 이 어린 소년에게 통증을 가져왔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 만난 한 예쁜 금발머리 소녀와의 첫 만남을 여전히 기억한다. 소녀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데이비드, 이 아이는 여섯 살 된 우리 딸이야. 이름은 ‘베키 수’ 란다.”

베키가 게임과 퍼즐을 가지고 나왔다. 놀기 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클어진 머리를 내가 빗겨줄까?” 베키가 엄마처럼 잘 돌보아 주자 그는 곧 통증이 괜찮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얼마 후 베키가 제안했다. “우리 핑거 페인팅 하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산을 그리자.” 그녀는 여러 가지 놀이로 그가 두통과 울렁거리는 느낌을 잊도록 해주었다.

볼리비아 연합회의 재무 부장이던 베키의 아버지 먼로 데일 듀커슨은 종종 데이비드가 살던 저지대의 정글을 방문했다. 때때로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 데이비드는 재미있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안했고 베키는 그를 따라다. 그들은 맨발로 정글을 돌아다니며 꽃을 꺾고 화려한 나비들과 희귀 딱정벌레들을 잡았다. 가끔씩 그들은 함께 그림놀이를 하기도 했다.

하루는 데이비드가 물었다. “우리 아이스크림이랑 껌을 사려면 돈

이 필요한데 떠오르는 생각 없어?”

“내 애완 원숭이 ‘조조’ 를 그리자.” 베키가 제안했다. 조조가 조용히 앉아 있지를 않아서 그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그림을 완성하자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림이 정말 근사하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캔 뚜껑을 찾아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줄을 매서 액자를 만들자. 우리가 그린 원숭이 그림이랑 숫자 그림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들을 뚜껑으로 만든 액자에 붙여서 팔자.” 많은 사람들이 두 어린 사업가들의 상품을 구입해 주었다.

“우리 나무 위에 집을 짓자.” 데이비드가 어느 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베키가 반대했다.

“나무를 베서 가지에 집을 지으면 되지. 내가 도끼와 마세티(중남미 원주민이 벌채에 쓰는 칼) 사용법을 알거든. 정글은 나무들로 꽉 찼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자르는 건 이 어린 건축가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들은 3일 동안 나무가 넘어 갈 때까지 찍었다. 맨발의 두 아이는 이제 수평으로 누워 있는 나무줄기를 올라가 가지 속에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뭇잎들이 말라버리자 나무 집은 더 이상 흥미가 없어졌고 둘은 이내 다른 모험을 찾아 나섰다.

연합회는 저지대에 토지를 매입했고, 데이비드와 베키의 가족은 목장사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1년 동안 일하여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베키의 집은 작았다. 그래서 데이비드의 가족이 방문하면 아이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자야 했다.

“신난다.” 베키가 킥킥 웃었다. “이야기도 실컷 하고 자기 전에 신나게 놀 수 있겠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베키 위의 그물 침대에서 잤는데, 베키는 데이비드의 그물을 발로 밀어서 그가 잠들 때까지 흔들었다. 갑자기 그는 속이 메스꺼움을 느꼈고 토해버렸다. 데이비드를 토하게 만들었다고 혼날까봐 베키는 잠든 척했다.

데이비드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베키에게 선언했다. “이 다음에 크면 난 누나랑 결혼할 거야.”

“뭐라구? 그래.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너랑 결혼할게.” 11살 베키가 대답했다.

베키에게 약혼 선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데이비드는 그 동안 저축한 돈을 ‘산타 아나’ 읍내의 작은 가게로 갔다. “향수 한 병 주세요.”

“향수? 너 벌써 여자 친구가 있니?” 가게 직원이 물었다.

“그런 셈이에요.” 그는 사실대로 말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산 선물에 만족해하며 그것을 베키에게 주었다. 며칠 후 베키의 오빠 지미가 데이비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베키가 네가 준 향수로 될 하는 줄 알아? 조조를 목욕시킨 후에 그 향수를 뿌려준다.”

‘약혼 선물을 원숭이에게 쓰다니.’ 데이비드는 상심했다. 그는 여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원숭이가 베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다. 7년 동안 베키는 가는 곳마다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며 옷을 입히고 아껴주었다. 금요일에는 목욕을 하고 나서 조조를 목욕시키곤 했는데 자신의 몸에 향수를 뿌리면 꼭 조조에게도 뿌려주었다.

베키가 13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로마린다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고등학교 시절 베키는 루이지애나, 아칸소, 켄터키, 테네시 주 등 여러 학교로 전학을 다녔고, 데이비드와 베키는 여러 해 동안 서로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 동안 데이비드는 베키가 그의 사랑의 증표인 향수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는 그녀가 그렇게 한 동기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동물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의 가족도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남미를 떠나 앤드류스 대학교로 이사했다. 후에 그들은 테네시의 칼리디에일에서 10년간 살았다. 데이비드는 다시 베키를 만났을 때 떨렸던 느낌을 기억했다. 그러나 세월과 환경은 그들을 바꾸어 놓았고, 그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썬든 선교 대학의 학생인 그녀가 고등학생인 그와 상종하겠는가?

베키는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데이비드를 향한 좋은 감정이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매년 그의 생일마다 그와 오래 전에 서로에게 한 약속을 생각했다. 그들이 다시 함께 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어느 안식일 썬든 대학 근처에 살던 데이비드의 가족은 베키와 그녀의 방원 조이를 점심식사에 초대했다. 식사가 끝나고 데이비드가 제안했다. “소젓을 짜야 하는데 같이 갈래?”

외양간으로 가면서 데이비드가 조이에게 ‘긴 금발 머리가 참 아름답다.’ 고 말했다. 베키는 질투를 느끼며 생각했다. ‘조이에게만 관심을 주고 난 안중에도 없네.’

바로 그날로 그녀는 머리를 기르기로 마음먹었다.

둘 중 누구도 어린 시절의 약속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이와 교육수준의 차이는 너무나 커 보였고, 둘 다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음 아프지만 데이비드는 더 이상 베키와 결혼할 확률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어쩌다 만나게 되면 친구로서 잠깐 동안만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것 뿐이었다. 이야기를 나눌 때도 베키는 ‘그는 그저 애일뿐이고 내게 더 이상 관심도 없어.’라고 생각하고, 데이비드는 자신이 그녀에게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 꿈은 끝난 듯 보였다.

트럭이 속력을 낮추더니 멈춰 서며 갑자기 데이비드의 기분 좋은 공상은 끝나고 말았다. 그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감옥에도 착했음을 깨달았다. 곤잘레스 대위가 눈가리개를 풀어준 후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데이비드가 시계를 봤을 때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들어가는 동안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비병이 그들이 들어가자 경례했다.

“두 명의 죄수를 데려왔다.” 대위가 말했다. “이들을 A 감방에 넣고 문은 잠그지 말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자들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감방 문을 잠그지 말라니요?”

“이 자들은 도망가지 않아. 문도 열어두게. 이건 명령이네. 알아들었는가?”

“네, 알겠습니다!”

대위가 떠나며 잘 자라고 인사했다.

교도관이 데이비드와 교수에게로 다가왔다.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일해 왔지만 감방 문을 잠그지 않은 죄수는 단 한 명도 없었소. 이건 참 이상한 일이야. 한 가지만 말해두겠소. 문밖으로 한발자국이라도 내밀면 총살이요.”

간이침대에 누워 데이비드는 교수를 보고 말했다. “방금 일은 우리가 체포된 후로 세 번째 받은 친절한 대우입니다. 대위가 한 말이 우리가 지금 억류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죄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이 확실해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신실하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에 일을 이루실 거예요.”

수감생활

데이비드와 교수는 감방에서 이틀을 보냈다. 그들은 성경의 약속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침례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 힘을 주시려고 일시적 휴식기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침례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요 1:8)’ 하도록 감옥의 경험을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란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건 흥미로운 일일 거예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삼일 째 되는 날 교도관이 따라오라고 명했다.

그들은 픽업트럭에 타고 근처 읍내에 있는 지방 검사 사무실로 갔다. 심문실에서는 여러 명의 서기들이 타자를 치고 있었다. 한 검사가 일어나서 데이비드와 교수의 죄목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들은 왜 자신들이 납치를 당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당신들은 여러 번 비행기 사용 관련 위반을 했소.” 데이비드는 긴 불법 행위에 대한 목록-마치 그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듯 했다-을 들었다. “당신 죄수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고발당했소.” 검사가 읊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전혀 불법으로 비행기를 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검사는 그들에게 전혀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이 정부 관리들이 우리에게 소총탄, 산탄, 따발총을 한꺼번에 쏘려고 작정을 했군.(고소할 증거들을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겠군)’

“이 고소가 사실임을 입증할 증인이 있소.” 데이비드는 죄수인 한 남자의 이름을 들었다. “이 사람이 증언을 할 것이오.”

“그들을 교도소로 데리고 가시오.” 검사가 외쳤다.

데이비드는 증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옥에 돌아가면 그를 만나서 왜 사실도 아닌 것에 대해 증언하기로 했는지 따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픽업트럭에 오르자 데이비드는 그들이 연방교도소로 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도소에 들어서서 그는 다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그 남자를 꼭 찾으리라고 결심했다. 교도관이 문을 닫은 후 그들의 지문을 채취했다. 그리고, 그 시간 후로 데이비드는 마음속으로 자기의 고발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잊게 된다.

교도관은 데이비드와 교수를 감옥 안쪽으로 데려갔다. 순식간에 죄수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외쳤다. “당신들이 그 흉악범들이군.”

“무슨 말이오?” 데이비드가 물었다.

그들은 최근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일면 헤드라인에는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 병원이 의사, 간호사, 비행기 등을 불법행위에 이용. 학생 간호사들을 범죄자로 훈련. 주도자 체포’라는 기사가 나 있었다.

데이비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불명예스럽게 하려는 정치적 책략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죄수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은 신문 일면에 나왔다고 이 기사를 다 믿으십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아. 모든 범죄자들이 그런 것처럼 웃도 번지르르하게 잘 입고 말아야.”

“그렇지 않아요. 우린 돈이 없소.”

“아니긴. 당신들에게 돈이 많은 것이 틀림없어.”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틀렸소. 우리는 절대 죄도 짓지 않았고 돈도 없소.”

“이것 봐. 한 가지 말해 주겠소.” 죄수들의 대변인이 말했다. “이 감옥에서는 우리 죄수들 세상이야. 돈을 내봐.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두 번 변소 청소를 시키겠어.”

“그래서요?”

“변소 청소하기 싫을 걸? 당신들 같은 교양인들은 절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야.”

“난 간호사요. 나는 재림교회 선교사요. 난 변소 청소를 하면 안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이봐, 게이츠. 당신은 변소 청소하고 싶지 않을 거야. 오물이 똥똥 떠다니고 바깥에 수도관도 엉망이라구. 우기에는 물이 들어와서 화장실에 배설물들이 가득하다니까. 매일 그 쓰레기를 전부 떠내야 하는데 그 냄새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요.”

“날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 방금 전 말했듯이 난 간호사고, 사람들 배설물 치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예전에 난 양로원에서 일했소. 그리고 난 당신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소.”

이때 교수가 끼어들었다. “난 동의 못해. 돈을 줍시다.”

데이비드는 그를 바라보았다. “원하신다면 돈을 주세요. 교수님은 교수님 스스로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전 더러운 일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아기 엄마들은 거리낌 없이 기저귀를 갈잖아요. 처음엔 더러운 기저귀가 좋진 않지만 두 번 세 번 지나면 익숙해 저요. 별 것 아니에요.”

그날 밤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다섯줄로 세웠다. 데이비드와 교수는 각각 다른 줄에 서도록 명령받았다. 각 줄을 쉰 다음, 교도관들은 죄수들을 70 명씩 해당 감방으로 들어가게 했고 문을 잠갔다.

감방에서 데이비드는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의 시멘트 침대들이 3 피트 간격으로 쭉 놓인 것을 보았다. 감방장이 새로 들어온 죄수들에게 알렸다.

“침대에서 자려면 3달러를 내고, 못 내면 바닥에서 자.”

급할 생각이 없는 데이비드는 모든 것에 돈을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계속 요구할 것이 분명했다. 어차피 시멘트 침대도 바닥만큼이나 딱딱할 게 뻔했다.

“난 바닥에서 자겠소.” 그는 감방장에게 말했다.

“너는 신입이니까 내 침대 옆에서 자야 해.” 그가 명령했다.

감방장이 깊이 잠들자 데이비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훔칠 거야. 감방 안이 후덥지근하니까 지갑, 열쇠, 머리 빗, 펜을 신발 속에 넣고 셔츠로 신발을 감아서 베개로 쓰면 되겠다.’ 이것을 해결하고 그는 바닥에 누웠다. 울퉁불퉁한 임시방편의 베개에 머리를 댄 순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잊었음을 기억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음담패설을 퍼부를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이신 주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왜 저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싫습니다. 울적하고 좌절감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비행기 방문을 의지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까? 제게 하도록 맡기신 일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비행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왜 저를 이런 끔찍한 곳에 있게 하십니까? 저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주옵소서.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부디 제가 이것을 잘 참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신뢰하게 하시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당신을 증거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베키와 아이들과도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소서. 지금은 괴로운 상황에 있으나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데이비드가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때 누군가 소리쳤다. “이봐, 당신 뭐 종교적인 인간인가?”

“그렇소. 난 선교사요. 재림교회를 위해 일하죠.”

“하나님을 믿나?”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나?”

“그렇소. 그분은 살아 계시오.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럼 내 질문에 답해 보시오.” 데이비드는 조용히 지혜를 구했다. 그들이 얘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다. 곧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고 두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 성령께서 데이비드의 머리에 적절한 성경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죄수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보려고 알고자 고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다. 모두가 넋을 잃고 들었다. 데이비드는 성령께서 이 회중을 준비하셨음을 알았다.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는 일어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잠깐만요.” 젊은 죄수가 그를 부르며 달려왔다. “저도 당신과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요. 함께 기도하니 좋소.” 두 사람은 함께 기도를 했다.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 미소 짓고 계실 것을 알았다. 그 다음날 데이비드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동참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게 됐다. 숫자는 점점 늘어나 열

한 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갈급함을 아셨다. 그분은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이해하셨다. 이 참담한 장소에 용기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데이비드를 그들과 있게 하신 것이었을까?

많은 죄수들이 개인적으로 데이비드에게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 남자는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난 결백해요. 누군가 저를 모함했어요. 지금 난 십 년형을 받았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한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족을 돌 볼 사람도 없이 15년을 여기서 보내야 해요.”

슬픔의 파도가 데이비드에게 몰려왔다. 그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몇 년형을 받게 될까? 베키는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

데이비드가 체포되고 나서 3일 동안 베키는 그가 어디 있는지, 또 다시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과테말라 접경지역에 살았는데 이전에 론 커밍즈라는 선교사가 납치됐었던 것을 기억했다. ‘데이비드도 납치당한 것일까? 게릴라가 데이비드를 정글의 은신처로 데려간 걸까? 데이비드를 고문하지는 않을까? 현상금을 걸거나 그를 죽일까?’ 등의 끔찍한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하나님께 탄원했다. “하나님, 그를 제게 돌려주세요.”

그 시간 동안 베키는 위가 매듭지어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먹을 수 없었다. 목욕탕 저울에 몸무게를 재니 45킬로그램이 채 안됐다. 그것은 3일 동안 약 3킬로그램이 빠졌음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억지로 먹으려고 노력해 보았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꾀꾀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합니다. 저는 언제라도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이 혼란한 시점에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27절에 주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약속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베키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지독한 근심이 되돌아와서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요청을 반복했다. “하나님, 제발요. 당신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지금 잃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밤마다 그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약속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친구들이 방문해서 물었다. “베키, 어떻게 그리 강할 수 있어?”

“난 강하지 못해. 예수님께 간절히 기대는 것뿐이야. 그분의 약속이 없었다면 난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데이비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힘을 주신다는 거야.”

하루는 세 살짜리 카트리나가 엄마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엄마, 천사가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당황해서 베키가 물었다. “어떤 문을?”

“베드로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베키는 몇 주 전 아이들에게 사도 베드로의 탈출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우리 공주님이 엄마보다 믿음이 더 크네. 생각나게 해줘서 고마워.”

매 순간 베키는 베드로가 그의 첫 편지에 언급한(벧전 4:12,13) ‘불 시험’을 경험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고 계심을 이해했다. 그러나 고난 받는 동안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다. 오직 믿음으로 그녀는 언젠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기뻐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베 키

둘째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며 데이비드는 많은 눈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두 명의 죄수들이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자리에 눕자 감방 안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비행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체포되고 수감된 이유인 막 잃어버린 그것에게로 생각이 향했다. 또 예전에 조종했던 다른 비행기들도 생각에 맴돌았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비행기로 그를 축복하셨는지를 기억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자주 비행을 했던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조종법이 배우고 싶었다. 레슨비를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대학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는 곧 비행기를 소유한 두 친구와 पार्ट너가 되었다. 열심히 일한 덕택에 그는 그들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18세 되던 해 고

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작은 비행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데이비드가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전 어느 날, 노련한 오지 조종사인 그의 아버지가 그의 비행기를 몰아보기 위해 그를 조지아에 위치한 조지아-킴벌랜드 고등학교의 작은 활주로로 데려갔다. 게이트 목사는 착륙하는 것을 두 번 시험했는데 활주로 옆의 들에서 콤파인이 옥수수를 베고 있었다.

데이비드도 착륙을 해보고 싶었다. “네가 착륙하기에 활주로는 너무 좁다.” 그의 아버지가 경고했다. “저 콤파인이 활주로 가까이에 서 일하는 한 네가 착륙하는 건 위험해. 아빠도 콤파인을 피하려고 비행기를 옆으로 돌려야 했어. 네가 조종을 시작하기 전에 착륙시켜서 저 사람에게 콤파인을 좀 떨어진 곳으로 가져가서 일하라고 말할 거야.”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다. 그러나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왼쪽 기어가 접히고 왼쪽 바퀴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갔다. 왼쪽 날개가 급강하했고, 그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돌진했다. 발을 돌며 수확을 하던 콤파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비행기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서 게이트 목사는 기수를 내리고 콤파인과 시속 70마일로 정면충돌했다. 재빠른 조치로 비행기는 가까스로 콤파인을 몰고 있던 남자를 피할 수 있었다.

주위가 쥐 죽은 듯 정적이 흘렀다. 데이비드와 그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가 머리와 배인 팔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깨 안전장치가 그들의 목숨을 건졌다. 비행기와 콤파인 모두 심하게 망가졌다.

근처 응급실의 의사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 “부상은 심하지 않지만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가 말해주었다.

회복기간 동안 데이비드는 한 학기를 휴학하고 집에 들어가 있던 베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비행기가 망가졌다니 안됐다. 나는 늘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고 싶었어. 언젠가 너의 비행기로 배우길 바랐는데. 어쨌든 너나 아버지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비행기를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곧 다른 비행기를 살 수 있었다. 희미한 희망이 데이비드의 맘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를 통해 베키가 긍정적인 연락을 하게 하시고 둘이 다시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일까? 여자 친구가 그에게 결별을 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거리낌 없이 베키에게 답장할 수 있었다. 곧 편지왕래는 잦아졌다.

얼마 후 베키와 그녀의 부모님이 회복 중에 있는 두 ‘조종사’들을 문병 왔다. 그들이 떠나고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말했다. “네게 전해줄 뉴스가 있다. 베키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말해주었는데 베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구나. 남자친구는 그녀의 일생목표인 선교 사업에 별 관심이 없었다나 봐. 베키가 여전히 너에게 한 어릴 적 약속에 대해 이야기한다는구나.”

“정말이에요? 그 동안 베키와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의기소침했었는데. 잘 됐어요.”

데이비드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약속을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베키와 제가 당신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 주소서.”

실천에 옮기는데 빠른 데이비드는 우울한 상태에서 산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는 베키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다. 그런데 나흘 후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왔다. 흥분한 나머지 우표를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우정은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베키는 데이비드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서 왔다. 그녀는 그가 입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졸업식이 끝난 후 둘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바깥에 서서 떨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졸업가운을 벗어서 베키의 어깨에 살짝 덮어주었다. 그녀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곧 그들은 그들의 공통 관심사인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베키는 학교에서 의료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대학 교정을 거닐다가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도전을 던졌다.

“우리 둘 다 선교사가 되길 원하면 간호학 공부를 해야 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마다 간호기술이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데이비드, 나는 한 번도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부모님 두 분 모두 간호사인데 한 가정에 의료전문인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간호사를 내 직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거라면 아마 환자를 간호하는 지식이 우리의 선교 사업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알았어. 한 번 해볼게. 간호학과에 가서 등록을 하자.”

간호학과장이 머리를 흔들었다. “미안해요. 이미 정원이 다 찼어

요. 대기명단에 올려줄 수는 있어요. 지원자 명단에서 두 분은 7번과 79번이에요. 우선 자격확인을 위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세요.”

며칠 뒤 그들은 시험결과를 확인하러 간호학과에 다시 갔다.

“둘 다 잘 했습니다.” 학과장이 말했다. “대기번호가 7번과 8번으로 건너뛰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올해 시작하기엔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3주 후 대학 등록기간 첫날에 데이비드가 베키에게 제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길 원하신다고 확신해. 오늘 등록을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둘째 날 그들은 다시 문의했다.

“미안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여전히 열의에 찬 둘은 하루 종일 기다리며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성경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드렸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거야. 아니면 더 나은 계획을 보여주실 거야.” 베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4시가 등록 마감 시간이야.” 데이비드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앞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야.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들은 학과장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두 자리가 아직 비어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학과장이 말했다.

“등록기간이 이틀이나 계속되었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학장님과 말씀을 나누어야 겠어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그녀가 대답하면서 등록실 반대편에 있는 학장의 책상을 가리켰다. 데이비드는 선교 사업에 더 잘 준비되기 위해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학장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우리는 올해 시작하지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간호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원래의 계획대로 각자의 예전 진로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따라 오세요. 간호학과장에게 가서 이야기합시다.”

간호학과장 책상으로 가서 학장이 물었다. “명단에 있는 두 학생이 아직까지 등록도 안하고 연락도 없다는 게 정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등록기간이 끝나 가는 지금, 이 두 명의 학생들을 대신 넣어 주는 게 공정할 듯 싶습니다.”

등록기간 마감 직후 데이비드와 베키는 등록을 할 수 있었고, 2년 과정의 간호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실을 나서며 베키가 데이비드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제 우리 같이 간호학 공부를 하게 된 거야. 4학년이 되어서 전공을 바꾸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

그들은 곧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키는 그들이 간호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결혼을 미뤄야 한다고 느꼈다.

데이비드의 생각은 반대였다. “베키, 너는 모든 것을 질질 끌어. 그

저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 어찌면 내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반대편 끝에서 계속 줄을 잡아당겨. 너는 쟁기고, 나는 트랙터인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걸까? 나는 ‘주를 기다리라.’ 이고, 너는 사도 바울처럼 늘 경주를 하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데이비드는 반박할 수 없었다.

학기가 시작된 지 몇 달 후 그들은 한 친구의 결혼에 들러리를 서게 되었다. 피로연 중에 한 친구가 물었다. “너희 둘 결혼 계획 있어?” 베키의 부모님이 우연히 듣고는 대답했다. “언제라도 결혼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언제라도’ 라니요?” 데이비드가 끼어들었다. “베키는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는데요? 그녀의 계획이 1, 2년 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가 가능하겠어요?”

데이비드가 그 해 크리스마스로 집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러 세웠다.

“너희들 약혼했니?”

“아뇨.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약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의 의견을 먼저 여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키와 결혼할 생각이니?”

“그럼요.”

“‘바로 이 사람이다.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을 만났다고 확신해?”

“물론이죠.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베키는 제 이상형 이에요. 우리 둘 다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약혼한 거야. 아직 정식으로 청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야.”

“글쎄요. 정신적으로는 약혼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그녀는 제게 속해 있어요.”

“네 어머니와 내가 대화를 하면서 너희 둘이 이상적인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 둘 다 볼리비아에서 성장하는 동안 준비시키셨어. 너희 둘은 줄곧 친구사이였고. 그런데 염려되는 게 있다. 너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너희 결혼을 망가트리거나 적어도 상처를 남길만한 과오를 범할 수 있어. 아니면, 관계를 보존하려고 몇 년 기다리는 동안 서로에게서 떨어져 지낼 수도 있겠지. 둘 다 썩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러니 결혼하기 원하면 아버지는 흔쾌히 찬성하고 허락한다.”

깜짝 놀란 데이비드는 양가 부모님 모두 그들의 결혼을 지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체하지 않고 데이비드는 베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빠? 날이 너무 좋은데 베키 수(데이비드의 비행기 이름) 타고 한 바퀴 돌아.”

“재밌겠는 걸?” 그녀가 대답했다. “거기서 만나.” 그녀는 그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장난기 가득한 갈색 눈, 긴 속눈썹,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녀가 그를 “키 크고, 까무잡잡한 미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를 “키 작은 금발의 미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신나서 그의

작은 비행기에 붙여준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갔던 날을 기억했다. 비행기 앞부분에는 ‘베키 수’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잠시 후 비행장에 도착한 베키는 비행준비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를 발견했다. “조금만 기다려.” 그는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재빨리 준비를 마친 그가 그녀 곁으로 걸어와서 살며시 손을 잡더니 그녀의 푸른 눈을 그윽이 바라보며 말했다. “전에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베키 수’ 옆에서 다시 묻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베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녀가 속삭였다. 데이비드는 심장이 행복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자세한 건 비행기에 올라서 얘기하자.” 그가 제안했다. 그는 그날 어디를 비행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확실한 건 그의 옆에 앉은 이 사랑스런 여인이 영원히 그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였다.

그들이 돌아올 때 선명한 붉은 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어스름한 하늘이 지는 해 주위로 펼쳐져 있었다. 앞에 펼쳐진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데 베키가 외쳤다. “저것 좀 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세상을 장식해 주고 계셔.” 착륙 직전 데이비드가 몸을 뺀 베키의 볼에 키스를 했다. 첫 키스였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전혀.”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데이비드, 다음 키스는 발렌타인 데이까지 기다리라고 제안하는 바야.”

“소용없는 제안인 걸?”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들은 약혼을 공식화하기 전에 데이비드가 베키의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새도록 운전을 해 1979년 1월 1일 새벽, 그녀의 부모님이 일하는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날 야간근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료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다.

데이비드가 베키의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다.

“꼭두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도 왔다 갔잖아.” 데이비드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베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데일 듀커슨은 미소를 지었다. “생각 좀 해보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사실대로 말하면 이미 생각했어. 너희 둘의 결혼을 기쁘게 생각한다.”

행복에 찬 들은 베키의 어머니 팻이 일하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 병원에서 적용되지 않는 보험약관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환자 때문에 정신이 없던 그녀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팻이 재치있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희도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손님의 보험이 치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다른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갑자기 팻이 고개를 들더니 들을 발견하고 “베키, 데이비드!”라고 이름을 외치고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 환자는 자신이 허공에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다.

팻은 바로 알아차렸다. “너희들 약혼했니?” 그녀는 흥분에 찬 목소리로 물으며 들을 꼭 안아 주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대답을 대신했다.

베키의 언니 벤티와 역시 볼리비아에서 성장한 약혼자 테드 버그도프가 곧 결혼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들 네 명은 테네시 주 칼리지데일 근처에 있는 게이트 가 농장의 정자가 있는 화원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만개한 장미꽃이 결혼식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베키의 아버지 데일은 양팔에 두 딸을 데리고 입장했다.

감방의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누워 데이비드는 그의 아름다운 신부를 마음에 그려보았다. 주례를 섰던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말이 들리는 듯 했다. 신부의 선서하는 달콤한 목소리를 회상하자 그의 심장박동수가 더욱 빨라졌다. 1979년 6월 17일 베키는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더 이상 나이 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는 갓 스무 살이 되었고, 그녀는 스물 셋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

시끄럽게 코고는 소리가 데이비드의 공상을 방해했다. 처절한 현실이 그를 다시 뒤덮었다. 그는 베키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감옥 벽안에서 얼마나 오래 감금되어야 하는 것일까?



감옥에서의 도전들

안식일 아침 데이비드는 교수와 이야기를 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안식일 준수를 해야겠죠. 여기서 안식일 학교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수가 물었다.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가서 예배 허가를 받을 수 없단 걸 알잖아. 허락하지 않을 걸세.”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교도소장에게 갔다. “우리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도소장이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말이요?”

“저는 간호사이고 이 교수님은 남부 멕시코 지역의 모든 재림교회 학교들을 지도하십니다. 수감자들에게 건강과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물론이고말고. 여기 마이크가 있소.”하면서 교도소장이 데이비드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광고를 하시오.”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 건강에 관해 배우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9시 30분에 특별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고맙소.” 데이비드가 마이크를 돌려주자 교도소장이 말했다.

후에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감자들 사이에는 철저한 서열이 있고 수감 5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런데 교도소장은 그날 아침 “집회 광고를 하시오”란 말로 데이비드를 5년이나 앞당겨 승진시켜 주었던 것이다.

교도소에는 4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중 35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간수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특정 집회에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방의 뒤쪽과 옆쪽에 서서 경계했다.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며 데이비드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비행기가 납치당하고 수감된 것을 허락하신 데 대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안식일 학교에 참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또 다른 기적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예배시간에 저희를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생동감 넘치는 찬미 몇 개를 불렀다. 교수는 기도한 후, 남부 멕시코에서 기독교 교육이 주는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데이비드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 당시 완전했던 건강과 식생활, 그리고 죄와 악의 출현으로 인한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인류를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 여덟 가지 건강 법칙의 유익함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아담과 하와가 원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낙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를 죄짓도록 만들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었지요.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죄를 짓거나 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죄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이기심과 증오로 인해 부당하게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이비드는 갈보리의 의미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 설명한 후 참석자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사망에서 손이 올라갔다. 마침내 오후 1시가 되자 그는 멈추었다. “여러분,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오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다시 왔고, 프로그램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집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데이비드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요 며칠 여기가 너무 아파요.” 한 남자가 말했다.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호소했다. “몇 주째 두통이 심해요.”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을 못 넘기겠어요.”

“내 눈에 뭔가 자라는데 계속 아파요.”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였다.

마침내 데이비드가 말했다. “교도소장님께 잡시다. 여기서는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실 것 같소.”

교도소장이 말했다. “작은 의무실이 있소. 의사가 와서 환자들을 보곤 했지만 벌써 오래 전 일이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오. 따라오시오. 내가 보여주겠소. 지금은 비어있어요.”

“전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만 있다면 즐거이 하겠습니다.” 방으로 걸어가며 데이비드가 설명했다. 그는 방을 돌아보고 빈약한 물품 몇 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의학서적은 없었다. “광고를 해주시면 내일 아침식사 후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데이비드는 하루에 최소 50명의 환자를 돌봤다. 그는 곧 몇 수감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다. 교도소장은 데이비드에게 그의 집 근처의 선교 병원 의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다시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소식을 전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녀와 직접 통화하길 열망했다.

후에 베키와 통화할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다. 전화사용을 허락받은 후 그는 병원에서 몇 마일 떨어진 친구의 집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한편 베키는 병원에는 전화가 없었으므로 쇼핑을 마친 후 친구인 제인을 보기 위해 그 집에 들렀다. 그녀의 방문목적은 데이비드로부터 소식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베키가 그 집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분 후에 전화벨이 울렸다. 감옥에서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의 먹구름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여기에 14년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면회일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말했다.

“14년간 봉급이 나올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법률 담당자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대.”

“데이비드,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줄게요. 어젯밤에 아이들에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카트리나가 ‘엄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아빠를 위해서 감옥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아이가 ‘예수님께 아빠에게 같은 일을 해주시라고 기도 드려요.’ 하기에 ‘그래, 그러자꾸나.’ 라고 대답했어요.”

“그 애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실 까요?’ 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여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용할 수 없는 평화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용기를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됐어요.”

통화는 겨우 몇 분 안에 끝났지만 그들은 세상을 얻은 것 같았다.

선교 병원에서는 의사가 감옥에서 할 수술을 위한 준비를 했다. 다음날 그 의사는 의료 장비를 싣고 산을 넘는 긴 여행을 했다. 그는 아

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셔요, 마리시오 박사님.” 데이비드가 인사했다. “박사님을 뵙다니 꿈만 같아요.”

“데이비드, 자네가 감옥에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네. 달라 보여.”

“전과 다르지요.”

간수가 즉시 의료 장비가 든 가방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가 첫 번째 것을 열자 데이비드가 소리쳤다. “무균 팩을 열면 안 됩니다. 전염되면 무균 상태가 망쳐집니다.”

“교도소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건을 검사하는 것은 상부 명령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빨리 소장님을 불러요.”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비드가 교도소장에게 설명했다. “소장님, 이 팩들을 열 수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목적으로 병원에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무균 상태가 보존되어야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습니다.”

“열지 마.” 교도소장이 명령했다. “게이즈 씨가 가지고 들어오는 건 절대 열지 말도록. 알겠나?”

“알겠습니다.”

모든 장비와 짐이 의무실로 직행했다. 데이비드의 보조로 의사는 그날 15건의 작은 수술을 집도했고, 다음날에도 수술이 계속 됐다. 몇 사람이 대수술을 필요로 했으므로 의사는 지역의 의사와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의사의 방문 후 재림교회 지역 봉사회는 교도소로 옷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선교 조종사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근처 교회의 여신도들이 밥, 야채, 과일 등의 음식을 준비해 가져왔다. 교수와 둘이서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 데이비드는 교도소장에게 부탁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음식을 받기 위해 왔다. 한 남자는 데이비드에게 속삭였다. “저는 당신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음식을 줘 줄래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금요일에는 생선만 먹소?”

“네.”

“토요일에는 돼지고기만 먹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 소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음식을 드리겠소. 거짓말은 하지 마시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수감자들은 감방에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낮 동안 주어지는 ‘자유’를 만끽했다. 오전에는 아내와 가족들이 교도소 내 뜰에서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음식을 가져와 요리하여 다른 수감자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데이비드는 감옥 내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면들을 찾고 발견하여 교도소장에게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교도소장님

저는 소장님이 이 교도소를 운영하시는 방법에 감동 받았습니
다. 가장 존경받는 수감자들을 교도소 위원회에 포함시켜 교도소
내 기강을 세우는데 참여 시키십니다. 또 수감자들의 가족들을 감
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이 낮 동안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합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 대사관에서 제가 유죄판결이 나면 미국
에서 형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나 미
국에서나 형을 살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
이고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저는 아내와 아이들
을 매일 볼 수 있는 멕시코에 남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고참 수
감자들의 부인들이 남편과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수감자들의 부인들이 낮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배구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배구는 좋은 운동도 되고
감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몇 시간이나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저의 키와 능력을 인정하
여 자신들의 팀이 이길 수 있게 감옥에 있으라고 애원을 합니다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견딜만 하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게이트 드림

몇몇 수감자들은 화요일에는 여자 친구가, 그리고 목요일에는 부
인이 들어오도록 간수들에게 뇌물을 건네곤 했다. 어느 날 오후 구금
시간 바로 전, 데이비드는 큰 웃음소리, 박수 소리와 함께 떠들고 소

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도 무슨 일인가 하여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벌거벗은 남자가 뜰을 뛰어 다니고 그 뒤를 한 여자가 구두 굽으로 남자의 머리를 때리며 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경꾼들은 즐거워하며 “세계 때려요, 세계!” 하며 외쳤다.

간수가 실수를 해서 죄수의 애인을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해놓고 남자의 부인이 들어왔을 때 애인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했던 것이다. 부인은 애인과 함께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신발을 벗어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아내가 소리 지르며 사정없이 때리자 도망을 다녔고 그것이 다른 죄수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교도소 생활의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었다. 하루가 천 년처럼 느껴졌다. 그의 활동적인 본성은 정체되었다. 그러나 의료봉사는 계속 되었다. 데이비드는 이 일이 수감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자신의 두통도 해소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화나고 상처를 받아도, 사랑은 행동(감정이 아닌)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어쨌든 교도소 위원회에서 변호 청소를 시킨 적은 없다’며 자신을 위로했다.

수감되고 처음 며칠 동안 그는 한 백발의 노인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는 미국인처럼 보였으나 완벽한 스페인어를 구사했다. 하루는 그 남자가 데이비드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시오. 나는 ‘도노반’ 이라고 하오. 법률 위반으로 여기 들어왔다고 들었소.” 남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죄는 아니죠. 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렇소? 어느 교단 소속이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입니다.”

“스페인어는 어디서 배웠소? 원어민처럼 하는데.”

“볼리비아에서 자랐습니다.”

“잉카 연합회에서 성장했군.” 남자는 안다는 것 같은 미소로 말했다.

“잠깐. 잉카 연합회를 어떻게 알죠?”

“나는 선교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재림교인으로 자라고 교육 받았어요. 아버지와 나는 콜롬비아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했지요. 다리에 총알 자국 보이죠?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 천주교 신부가 선동한 폭도들이 우리를 덮쳤어요. 그들은 교회로 쳐들어와서 문밖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칼로 베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등에 마세티로 맞았지만 우리 둘 다 탈출했어요. 우리와 함께 있던 다른 선교사는 탈출에 실패했는데 폭도들은 그를 토막 내 감자 자루에 넣어서 ‘이것이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해줄 대접이다.’ 란 글과 함께 교회 계단에 던져 놓았지요.

“나는 격동의 시기를 보냈어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끔찍한 박해를 당했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 사업에 삶을 바치기로 선택했고 PUC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후에 교육학 석사, 박사 과정도 마쳤지요. 쿠바에서 안틸리안 대학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학장으로 임명되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남미지회의 총무부장을 지내기도 하셨죠.”

“당신의 형님을 압니다.” 데이비드가 끼어들었다. “부모님과 제가 볼리비아에 있었을 때 당신의 형님이 지회 사무실에서 매달 급료 수표를 보내주곤 했죠.”

“그래요. 형님이 거기서 부재무로 일했소.”

연민으로 가득 찬 데이비드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오게 됐죠?”

“음, 난 내 자신을 교회에 대해 실망하도록 허락하고 말았소. 나는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나왔소. 몇 년 동안 나는 관광업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마약 밀매에 손을 대게 됐어요. 10년간 나는 비행기에 마약을 싣고 콜롬비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감독했소. 그러다가 멕시코에서 체포되어서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9년을 채웠죠.”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알 것 같아요.” 데이비드가 외쳤다. “당신을 위해 보내신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선택했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늦었소.”

“도노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뒤를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비슷한 남미 선교사 자녀인 저를 여기 데려오셨어요. 당신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은 가족, 아내, 아이들, 집,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가정을 꾸리셨나요?”

“그렇소. 코스타리카 출신의 아내와 두 아이들이 매일 면회를 와요. 난 아이들이 나처럼 되길 원하지 않고 내가 겪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길 바라고 있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나요?”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도와주겠소?”

“당연하지요. 제가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군요.”

다음날 데이비드는 면회 온 도노반의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교우들과 합회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데이비드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곧 그들은 안식일에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종종 만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 반복해서 도노반은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관심이 있으실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했다.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희망과 확신으로 그를 격려했다. 하나님은 그의 말 안 듣는 아들을 다시 취하셔서 그의 모든 죄 위에 ‘용서’ 라고 쓰셨다.

한편 데이비드의 내적 고투는 증가되었다. 감옥에서의 매일은 그를 숨막히게 하는 음산한 먹구름을 더욱 짙게 했다. 남부 멕시코 연합회는 신속히 움직여서 법률 담당자인 하야사카 목사를 보내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 힘쓰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큰 희망을 안겨주지 못했다.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한 여러 시간의 효과 없는 시도 끝에 그는 감옥으로 가서 면회를 신청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미안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듯합니다.” 하야사카 목사가 말했다. “군 당국은 비행기를 내주지 않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을 감옥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공판 날 그들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조작할 것입니다. 증인들을 세워 위증을 하도록 해서 두분이 유죄임을 증명받게 난 후에는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법원에 두 분에 관한 기

록들을 보게 해달라고 해도 거절하기만 합니다. 신교도를 변호해 줄 가톨릭 변호사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이곳에서는 당신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한 가지 희망이 있긴 해요. 이 도시에 신교도를 변호할 만한 나사렛 교도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사무실을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 날을 걸어 다니면서 알아 봤는데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 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과 기도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만 이 절박한 상황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데이비드가 읊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함

기도모임은 하야사카 목사를 용기와 믿음으로 채웠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사렛 교도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걷고 찾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정보를 주려 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에 잠시 멈추었다. “귀하신 주님, 저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나이다. 게이츠와 교수님을 변호할 나사렛 교도 변호사를 찾는 것이 뜻이라면 저를 그에게로 데려가 주옵소서. 주의 인도를 제게 주옵소서.”

그가 눈을 떠서 고개를 들었을 때 ‘공중’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보였다. 그는 남미에서 그런 간판이 변호사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도시의 나사렛 교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주십시오.”

“왜 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죠?” 사무원이 물었다.

“여러 시간 찾아 해마다 쉬려고 멈추었는데 간관이 보였어요.” 그가 간관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어요. 알려 주시겠소?”

“그렇게 하죠. 이곳이 그분의 사무실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지요. 지금 위층에 계십니다.”

감사기도를 드리며 하야사카 목사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신을 소개한 후 목사는 이 사건의 상세한 부분을 설명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분들을 돕겠습니다. 법원으로 가서 기록을 살펴봅시다.”

법원에서 변호사는 잠시 기록을 살폈다. “유죄가 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옳은 말로 질문에 대답했어요. 내가 그들 옆에 앉아 있었다 해도 다른 대답을 하도록 도울 수 없었을 거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심문시간 동안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정부가 증거를 조작해 내면 일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들의 증거가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비행기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증거물을 조작해 내고 그것들이 비행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이 있으면,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 두 사람의 무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머리를 흔들더니 제안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데이비드는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며 교도소 내 의료 봉사를 계속했다. 겉으로 그는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돌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인정 많은 그리스도인 간호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부정적 생각과 우울함, 그리고 좌절과 싸워야 했다. “당신 아픈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란 생각이 그의 맘

속에 차올랐다.

환자들은 호소했다. “여기가 아파요.”

“계속 설사를 해요.”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잘 수가 없어요.”

절망의 구름으로 뒤덮인 그의 감정이 속에서부터 끓어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이봐, 내가 당신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안보여?”

그는 이런 마음을 떨쳐 버리고자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사랑이 언제나 감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스도인 사랑은 행동이다.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었다. 또 그들의 필요를 돌봐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자신이 사랑의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는 동정을 표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지 않는 동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의지할 수 있었다.

마음 속 가득히 그는 자유를 갈망했다. 그는 죄수들의 육체적 필요를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다. 필사적으로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제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길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의 정신과 사랑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마친 후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지 못할 것같이 느낄 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매일 그는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전에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자신의 영리한 머리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이제 그는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여겼다. 그

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완전 복종하기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 “주님, 제가 여기에 14년을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오,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놔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고소당한 것에 대해 무죄하다는 것을 아시니 석방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제게 자유를 허락지 않으신다 해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선교사로써의 삶을 시작했지만, 다음 14년간의 저의 선교지가 이곳이라면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래의 임무를 위해 모세에게 훈련기간을 주신 것처럼 제가 인내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 미래를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드립니다. 제 손이 당신 손 안에 있는 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이비드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넣어 주셨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 7:12). 그리고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 11:1). 비행기가 납치됐던 날 군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이 그에게 친절한 대우로 돌아왔다. 죄수들의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치료하는 것의 결과로서 변화된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성령께서 속삭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준 축복이 다시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줄수록 더 받게 된단다.”

후에 데이비드는 한 경로를 통해 교도소장이 그가 동료 죄수들에게 의료 도움을 주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주목했다는 것을 들었다. 지역 교회에서 가져온 옷가지와 음식, 그리고 재림 교회에서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 수술을 집도하게 하고 지역 의사와 상의하여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놀란 교도소

장은 뭔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지방 검사를 방문하여 그가 목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은 이 재림교인들이 범죄자라고 합니다.” 교도소장이 검사에게 말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교도소에 이런 이들이 있는 건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의사가 산을 넘어 교도소까지 와서 수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옷이며 음식을 보내 주고 죄수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이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재림교인들과 그들이 교도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훌륭한 일들에 대해 기사를 쓸 것이요.”

‘흠, 그런 기사가 나가게 할 순 없지.’ 검사가 생각했다.

갑자기 검사가 전에는 만나기를 피했던 재림교회 법률 책임자를 불러들였다. 검사가 책상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며 뜻밖의 말을 했다.

“당신네 사람들에게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줄 의사가 있소.”

“사실입니까?”

“그렇소. 중범죄 대신 경범죄로 고소를 바꾸겠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변호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근거도 없으니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많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는 법률 절차에 현금의 요구가 따른다. 법률 책임자는 물었다. “얼마를 내야 하는 겁니까?”

“보석금 500달러, 그리고 ‘그 외’ 비용 500달러를 내시오.”

그는 즉시 돈을 가지러 합회로 갔다. 그가 돈을 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교수가 석방되었다.

교수의 석방 이유를 모르는 데이비드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자 가슴이 무너졌다. 좌절에 휩싸여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자기네 국민은 풀어주고 미국인은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우리 둘 다 무죄한데 말입니다. 이건 공평치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여기에서 굴복하는 것과 당신을 의지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까? 제게 완전한 평안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 안에 쉬게 하옵소서.”

길었던 밤

데이비드는 감방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그는 다시 반복해서 기도했다. “주님, 왜입니까? 이것이 저를 위한 계획입니까?”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시 56:11)라는 말을 다시 듣는 듯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알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생각이 다시 베키와 그들의 신혼시절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과 베키가 간호학 공부를 마치고 정식 간호사가 되어 형성한 동지애를 떠올렸다. 그녀의 격려로 그는 전문 조종사 훈련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자신들을 부르는 선교지가 없었기에 그들은 당시 페루의 푸갈파에 있던 데이비드의 부모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무급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반 년 간 그들은 정글의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

데이비드는 어느 날 그들이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내고는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를 부양하고 당신의 선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보여 주옵소서.”

다음날 데이비드는 마을의 한 남자가 ‘우리는 금을 믿는다’란 문구가 박힌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주변에 금을 캐 맨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금을 얻을 수 있도오.” 데이비드는 베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 주고 싶었다.

“재미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음식도 살 수 있고 환자들을 위한 약품도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이비드는 푸칼라에서 항공기 관리를 담당하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팀과 함께 2주간의 휴가기간을 이용해 이 모험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 정도면 광부로써의 삶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키와 팀의 아내인 제니는 푸칼라의 항공 기지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 두 명의 자칭 광부들은 ‘푸에르토 잉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강둑에서 지내며 매일 땅을 팠다. 하루 종일 그들은 선광 냄비로 토사를 씻어내며 금이 있는지 살폈다.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약품과 음식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금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편들이 그리워진 두 아내는 그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다음 비행 때 저희를 데이비드와 팀이 있는 곳에 내려 주실 수 있으세요?” 베키가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목요일에 그쪽으로 갈 거야.”

데이비드는 비행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았을 때의 기쁨을 기억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래 위에 흠이불을 깔았다. 숙박 설비라고는 침낭 위로 친 플라스틱 방수천 뿐이었다. 지난 3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사이 날씨가 바뀌었고 비가 그들의 달콤한 잠을 깨웠다. 순식간에 약하게 떨어지던 비가 열대성 폭우로 바뀌었다.

베키는 담요 하나를 둘둘 말아 여러 시간을 끌어안고 있었다. 적어도 그 담요는 젖지 않았다. 남자들은 방수천 위로 고이는 물을 계속 퍼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흠뻑 젖고 말았다.

마침내 비가 멈쳤고, 냇은 젖지 않은 침낭 밑에 몸을 웅크렸다. 얼마나 비참한 밤이었는지! 다음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여자들은 비에 젖고 모래로 뒤범벅된 이불과 담요를 강에서 빨아 마르도록 펼쳐 놔다.

에머슨이라는 농부와 그의 일꾼들이 긴 통나무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멈춰서 이야기를 나눴다. “강 물 수위가 높아질까요?” 데이비드가 물었다.

“아니오. 걱정할 필요 없소. 더 이상 불어나지 않을 거요.” 그가 대답했다.

팀과 데이비드는 그날 밤 어디서 잘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래가 아닌 풀밭에 비를 피할 만한 작은 대피소를 짓자. 그렇게 하

면 잘 자고 안식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정글에는 발사 나무(balsa wood: 열대 아메리카산의 가볍고 단단한 나무)가 많아. 플라스틱 방수천으로 비스듬하게 지붕도 엮을 수 있을 거야.”

완성된 임시거처는 모두를 흐뭇하게 했다. “비가 내려도 이젠 문제 없어.” 데이비드가 외쳤다. “숲 끝에 있는 이 아늑한 은신처에서 젖지 않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게 됐어.”

전 날 밤에 잠을 설쳐 극도로 피곤했던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청명한 하늘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주는 듯했다. 그러나 새벽 2시쯤 그들은 뚝뚝 떠 있는 느낌에 잠에서 깬다. 데이비드가 손을 내밀어 보니 물이 몇 인치 고여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그가 외쳤다. “강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산 쪽의 강 상류에 비가 많이 내렸나봐.” 어둠 속에서 그들은 부랴부랴 짐을 챙겨 발부리가 걸리고 넘어지면서 언덕 쪽으로 온 힘을 다해 뛰었다. 그러나 강물이 그들 뒤로 계속 따라왔다. 그날 밤 강물은 7.5미터나 수위가 높아졌다. 그들은 걸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무에 걸어놓고 구하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말 음식과 발전기,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가지러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했다. 또 비참한 밤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 날, 젖지 않은 적은 양의 음식으로 빈약한 아침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숲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기로 했다. 잠시 후 전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에머슨이 남자들을 배에 가득 태우고 와서 물위에 떠있는 작은 집을 보았다. 사람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 안 돼!’ 그는 생각했다. ‘미국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강물이 불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내 말대로 되지 않았어.’

배를 물으로 밀어 올리고 남자들은 실종된 선교사들을 찾기 시작했다.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따라가 그들을 찾을 수 있었다.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가 제안했다. “우리 짐으로 갑시다. 옷, 이불, 음식 모두 젖었잖소.”

“우리는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날은 쉬는 날이 거든요. 그런 일을 안식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소. 당신들은 안식일교도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지.”

일꾼들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가 명령했다. “이분들 짐을 들어서 배에 실어.”

즉시 11명의 남자들이 그들의 짐과 장비를 들어 배에 실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베키에게 말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하인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네.”

에머슨은 강 상류 쪽 언덕에 지어진 그의 아늑한 집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의 친절한 아내 리나가 그들을 환영해 주었고 서둘러 맛있는 식사와 편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두 부부는 이 멋진 가톨릭 농부의 환대를 기쁘게 누렸다. 이 우정은 후에 데이비드와 베키에게 큰 축복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푸에르토 잉카의 고립된 지역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보람됨을 발견했다. 의료봉사는 사람들을 이내 영적 관심사로 이끌었다.

의료 장비와 음식이 자주 바닥났기 때문에 데이비드와 베키는 여러 작은 마을들의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데 비행기가 필요함을 느꼈다.

하루는 데이비드가 의견을 내놓아 베키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여보, 미국으로 돌아가서 테네시에 있는 매디슨 병원에서 비행기를 살만큼의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간호사로 일합시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 동안 내가 본 다른 간호사들처럼 돈을 벌 목적으로 안식일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에 환자를 돌봐야 한다면 기꺼이 할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에 번 돈은 하나님 것이에요. 가능하면 우리 스케줄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넣어달라고 해야겠어요.”

마음속에 이런 각오를 하고 데이비드와 베키는 테네시로 돌아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전적으로 축복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결심으로 인한 값을 치러야 했다. 슈퍼마켓에서는 거의 매주 그들을 각기 다른 층에서 일하도록 계획표를 짰다.

“우리는 가족이 같은 층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슈퍼마켓이 말했다. “과거에 보니 가족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 하더군요.”

하루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데이비드 부부를 같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베키가 호흡을 잘 맞춰 일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날 후로 베키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데이비드가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과 미소들을 맞보는 스틸을 경험했다.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로맨스를 직장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 6개월을 병원에서 일한 그들은 세스나 150 기종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다. 그들은 선교지까지 가는 장거리 여행을 위해 비

행기를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데이비드는 한 친구와 함께 페루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베키를 데리러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한 말을 기억했다. “신혼여행을 다시 한 번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워요.”

데이비드와 베키가 그들의 비행기를 가지고 페루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던 그 친절한 가톨릭 농부인 에머슨은 그들에게 작은 집을 내주어 살게 했다. 이 친밀한 접촉은 이 가족과의 소중한 우정을 가져왔다. 베키와 데이비드는 후에 에머슨의 부인의 이름을 따 첫째 딸의 이름을 ‘리나’라고 지었다. 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농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처럼 살도록 감화를 주었다. 그 농부와 그의 네 아들들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원칙을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줌으로써 실천했다.

더 많은 의료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에머슨은 최상의 땅 한 마지기를 데이비드와 베키에게 팔았다. 나중에 데이비드는 그 땅을 베키의 부모님에게 팔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료 기술로 진료소를 지어 번창시켰다. 7년간 그곳에서 일하며 그들은 무려 28,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 모든 것이 마음 따뜻한 한 농부의 친절함 때문에 가능했다.

어둠 속 시멘트 바닥에 누워 데이비드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수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 조종사였고 그 동안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형의 약한 동력의 2인승 비행기를 타고 페루의 정글 구석구석을 누비고 미비한 활주로에 착륙하며 천사들을 바쁘게 했어. 외로운 선교사들에게 음식과 약품을 가져다주고 환자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송하며 우리가 느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야. 사람들은 돈 없이 과감히 전진하는 것을 겁내지.’

하루는 데이비드가 페루의 정글 위를 날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공정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셨다. “여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비행기가 고장 나면 수리를 할 줄 알아야 해. 정글에서는 숨쉴 좋은 정비사를 찾을 수 없잖아.”

곧 부부는 데이비드가 2년 과정의 항공정비를 공부할 수 있도록 켄터키 주로 이사했다. 베키는 임신 중이었고, 둘 중 아무도 시간제 간호사 일을 구하지 못했다. 그들은 교육받는 과정 동안 때때로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배웠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들은 주립 공원 안에 작은 캠핑카를 놓고 거기서 지냈다. 다음 해에는 둘 다 맨체스터의 제립교회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의 두 딸들인 리나와 카트리나가 태어났다.

교육과정을 마치기 직전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 한 명이 비행기를 수리하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끝이 뽀족한 펜치를 들고 있었는데 친구가 “힘껏 잡아당겨.”라고 말했다. 그는 펜치로 철사를 힘껏 잡아당겼는데, 그만 철사가 미끄러져 눈 깜짝할 사이 펜치가 그의 왼쪽 눈을 찌르고 말았다. 그는 빨간 것이 번쩍 하는 것을 보았고 무릎을 꿇었다. 순간 더 이상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뺨으로 액체가 흘러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뺨은 찢지 않고 마른 상태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는 다친 눈으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손가락이 쑥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며 손가락을 눈에 갖다 댔다. 압력이 느껴졌다. “오, 주님, 믿을 수 없습니다. 눈이 그대로 제자리에 있네요.”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눈꺼풀에 큰 구멍이 있는 게 보여. 펜치가 눈에서 튕겨져 눈꺼풀 안으로 들어갔다가 안구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왔어.”

데이비드는 그가 드린 헌신의 기도를 떠올렸다. “주님,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지금은 나이트 저의 시력을 구해주셨습니다. 제게 있는 것 하나도 제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비행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해외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의 온 생애를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처리하실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여러 번 생명을 돌려 주셨습니다. 진작 잃었어야 할 것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주께 속하나이다.”

전문 조종사로, 항공정비사로, 간호사로써 선교사 준비를 마친 데이비드는 세계적으로 교회의 항공 프로그램들이 닫히고 있는 것을 보며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여보, 페루의 경제, 정치적 상황이 교회의 항공 프로그램을 닫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컴퓨터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숙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전문가가 크게 필요되고 있어. 내가 선교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 훈련을 마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데이비드는 베키와 함께 스스로를 부양하면서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그는 컴퓨터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고,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6년간의 교실 수업과, 통신 수업, 그리고 장거리 교육을 병행한 끝에 마침내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 졸업식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제 더 많은 자격을 갖추게 된 데이비드에게 대총회로부터 브라질, 페루, 그리고 멕시코 등 세 나라에서 그의 봉사를 요청해 왔다고 연락이 왔다. 어느 나라가 데이비드와 베키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될 것인가? 어느 나라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기도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친구들은 브라질과 페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고려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부 멕시코의 22

개 병상의 병원과 간호학교에서 로마린다로부터 자원봉사를 나오는 의대생과 치대생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가를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젊은 봉사자들에게 조언자가 되어주고 또 물품수송을 할 수 있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직책을 감당하기에 적합할까요?”

“한 가지 요청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베키가 덧붙였다. “남부 멕시코 연합회는 해외 주둔 예치금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미국에서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현지 봉급 300달러로 살아야 됩니다. 그 돈으로 두 딸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부 멕시코에서 인도하고 이끄실 것을 믿으며 더 유리한 조건들을 거절하였다.

감방 바닥에 누워 데이비드는 지난 1년 반의 기간 동안 이 궁핍한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도전과 기쁨의 경험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입양한 멕시코 사내아기인 카를로스에게 큰 기쁨을 가져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왜 비행기가 납치되도록 허락하시고 데이비드를 자칫 14년간이나 감옥에 있도록 내버려두신 것일까?

이런 괴로운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자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약속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눅 1:37).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손에 맡길 수 있음을 압니다. 당신의 사랑과 능력에 모든 것을 굴복할 때 오는 평화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는 곧 근심을 떨쳐 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오다!



자포자기해서 데이비드는 다음날이 가져올 특별한 의미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깜짝 놀래주시려고 이 미국인을 감옥에 하루 더 있도록 하셨다.

그날, 합회 법률 담당자는 데이비드의 석방을 위해 지방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 검사는 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런 다음 책상으로 가서 서류에 서명하고 그것을 법률 담당자에게 주며 말했다. “고소를 취하했으니 보석금을 내고 게이트 씨를 데려가시오.”

그제야 데이비드는 그가 얼마나 적은 값-평생의 자유를 위한 열흘간의 의료봉사-을 치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우울해지도록 허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음에 기뻐했다. 석방될 때까지 그는 감옥 문을 여는 열쇠를 그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무지 속에 그가 한 의료 봉사가 그를 위해 감옥 문을 열어줄 것을 모른 채 다른 이들에게 봉사했다. 간수들이

데이비드를 밖으로 안내하였고 서명하게 했다. 그는 문을 통과하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던 날 똑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갑자기 그는 감옥에 들어갈 때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 대해 거짓 증언한 남자를 찾기로 결심했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열흘 동안 그는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한 그 죄수를 찾기로 한 결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냈다. 데이비드는 그의 결심을 쉽게 실행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왜 그 남자를 생각 못했을까? 그 자의 이름을 분명히 알았는데 말이다.

법률 담당자의 차에 탄 데이비드는 고소한 자를 찾지 못해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찾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세요.” 법률 담당자가 말했다. “정부는 그를 매수해서 당신을 고소하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 당시 당신과 접촉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는 당신이 그에게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들은 스파이를 보내 당신을 내내 따라 다니며 움직임을 주시하게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당신이 그 남자와 얘기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 사람 옆을 지나쳤어요.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과 만나며 그를 지나쳤지만 한 번도 그를 바라봤다거나 그 자가 당신을 쳐다보거나 하지 않았죠. 만약 그 사람을 찾아 왜 거짓말을 했냐고 다그쳤다면 오늘 석방되지 못했을 겁니다.”

데이비드의 실망감은 즉시 기쁨으로 바뀌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외쳤다. “그분은 우리 머릿속에 약속과 성경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문이 나를 감옥에 가둔 그 순간부터 감옥 문을 나올 때까지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이 없었어요. 나올 때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비로소 그 남자를 생각했어요. 그분께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놀랍습니다.”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그의 기분을 주체할 수 없었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 그는 마음속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계속 되뇌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기쁨의 순간을 생각했다. 감옥에서의 열흘이 십 년 같았다. 매일 아침 깬 때마다 그를 괴롭혔던 ‘감옥에서 14년을 보내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을 지워버렸다. 이제 그는 잠시 후면 집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보며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이 특별한 날임을 기억했다. 8년 전 이날 그와 베키는 영원히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서약했었다. 그의 심장이 쿵쿵쿵 쿵 빠르게 뛰었다. 하나님의 사려 깊고 친절하심이 결혼기념일에 그를 집으로 오게 하신 것이다.

한편 베키는 데이비드가 석방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며 부엌 창문 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공무 인장이 붙은 그 차가 후진을 하더니 자신의 집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즉각적으로 그녀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려고 오는 것일까?’ 그녀는 의아해졌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녀는 손을 닦고 문으로 가면서 기도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떤 한 낫선 남자가 트럭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와! 굉장히 말랐다.’ 그 남자가 천천히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베키는 생각했다. 그는 좁은 보폭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듯했다.

갑자기 그녀는 남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급히 뛰어나가며 소리 질렀다.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팔을 벌렸고, 베키는 그의 팔에 안겼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마침내 데이비드가 속삭였다. “여보,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요.”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아이들이 그에게로 뛰어오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데이비드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소중한 가족의 사랑에 휩싸이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

“애들아, 이리 와서 둘러 앉아 무릎 꿇고 감옥 문을 열어 아빠가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자.” 베키가 그들을 팔에 안았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빠가 집에 오셨어! 집에 돌아오셨어!” 카트리나와 리나는 반복해서 외쳤다. 그리고는 데이비드가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자 머리를 숙이고 아기 카를로스가 손을 모으도록 도와주었다.

베키와 데이비드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오랫동안 이야기기를 나눴다.

“여보, 내가 감옥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나는 바뀌었어. 마침내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소유는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감방에서 나는 집도, 함께 즐거워할 가족도, 차도, 비행기도 없었어. 입을 책도, 컴퓨터도 없었어. 하나님 외에는 가진 게 없었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자 내게 평화를 주셨어. 그분의 동정 어린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주시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 나는 나의 생명, 건강, 호흡 등 모든 것을 그분께 빚졌어.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계셔.”

베키도 찬양을 덧붙였다.

“우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도 그분을 새롭게 신뢰하는 것을 배웠어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지난 열흘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서 기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남부 멕시코의 상황은 긴장감이 돌았다. 재림교회 행정본부인 남부 멕시코 연합회의 지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비행기를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군 당국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비행기를 돌려주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그들이 이 쓸만한 비행기를 빼앗길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명령에 응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그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무죄한 데이비드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기로 작정했다.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은 데이비드가 착륙한 적이 없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을 매수해 그가 비행기를 불법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서명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교회 행정가 한 명이 지역 경찰본부에 법률서류를 찾으러 들렀는데 사무 경관이 그에게 말했다. “게이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우리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빨리 그분이 이곳을 떠나게 하세요. 우리는 그를 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분을 보게 되는 날엔 체포해야 합니다. 군 당국이 이번에는 그를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즉시 합회 관계자들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데이비드,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짐을 꾸려 집에서 기다리세요. 당신의 계획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요. 떠날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에게 연

락을 주면 즉시 당신과 가족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출국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밤에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 나머지 짐을 부쳐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슬픔이 교차된 기분으로 게이츠 가족은 그들이 그 동안 사랑하게 된 나라를 떠났다. 그들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란 성경의 약속을 믿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남부 멕시코에서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이들의 손에 맡겼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음 임지를 기다렸다.

동행하는 천사들

미국의 부모님 댁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데이비드와 베키는 잉카 연합회로부터 페루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연합회 전체의 컴퓨터 관련 일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리마로 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 직책은 데이비드에게 거의 계속 여행을 하게 될 것을 의미했다. 그의 컴퓨터 전문 지식을 요하는 다급한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한 달은 출장, 한 달은 사무실, 그리고 또 출장,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서 일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이 큰 노력을 요하는 과잉 봉사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빼앗아 갔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공과를 더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귀하게 여겼는가?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배웠는가?

하루는 그가 리마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다. 변두리 길에서 막히는

도로로 들어섰는데 5개 차선 모두 주차장이 된 것처럼 차로 꽉 차 꼼짝을 하지 않았다. 그가 왼쪽을 보니 총구가 그의 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불과 30센티미터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총신이 그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자 숨이 막혔다. 그는 곧 총성이 울리고 자신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따라오는 차들도 뒤따라 섰다. 총을 든 남자의 차는 계속 움직였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도망치는 은행 강도 무리와 마주쳤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막히는 도로를 빠져나가면서 그중 한 남자가 다른 운전자들을 총으로 겨냥했던 것이다. 모든 차가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었고 강도들은 떨어져 마침내 복잡한 교통체증 속으로 사라졌다.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를 지키는 천사를 인해 감사드렸다.

또 어느 오후에는 데이비드가 리마 도심에 있는데 연락이 왔다. “칼라오 항구에 컴퓨터가 와 있는데 찾아오십시오.”

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지만 그는 그 고물 차를 몰아 칼라오로 갔다. 리마에서는 자동차 부속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를 개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시동 장치를 정비해 줄 정비소를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개조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고 다른 차량이 없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차를 밀게 해 엔진을 작동시킨 후, 시동 장치 없이 운전을 해야 했다. 대학까지의 거리보다 칼라오 항구가 가까운 것을 아는 그는 모험을 하기로 했다. 컴퓨터를 실은 후에 누군가 틀림없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도와줄 것이었다.

그는 항구까지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다. 최대한 빨리 그는 서류에 기입하고 세관을 통과한 다음 7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들을 차에 실었다. 이 요긴한 기계들은 합회를 비롯한 대학, 학교, 병원 등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들을 위해

자금을 희생했을지 궁금했다.

컴퓨터를 차에 싣는 동안 그는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심지어 어른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지저분하고 음란한 언어를 내뱉고 있었다. 걱정이 그의 머리를 뒤덮었다. ‘아이들이 저런데 어른들의 도덕성은 대체 어떻게? 갈라오는 우범지역이야. 게다가 대학 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가다보면 상황이 더 나쁠 거야.’

세 남자가 짐으로 가득 찬 그의 차를 시동 걸도록 도와주었다. 도로에 진입하며 그는 하나님께 알려드렸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로 안위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는 큰소리로 덧붙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 빈민가를 지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후 계기반에 엔진이 과열됐음을 알리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그 후 엔진이 푹푹 소리를 내더니 멈추었다. 그는 차를 길가 자갈길에 댔다. 주위를 돌아보니 차를 세운 곳은 언덕이었고, 옆에는 바퀴가 다 빠진 버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마도 그 버스는 그곳에 지난 20년간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의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일 것이었다. 시계를 보니 6시 10분전, 일몰 직전이었다.

그는 재빨리 벡타이와 양복을 벗고 큰소리로 말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느니 차라리 세상의 다른 장소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저와 함께 계셔 주세요.” 그리고는 근처 가게로 뛰어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그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아마도 어둑해지는 시간에 길거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듯 했다.

“차에 부을 물을 좀 주십시오.” 데이비드가 급하게 말했다.

남자가 양동이 하나를 찾아서 물로 채웠다. 데이비드는 냉각 장치

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 한 양동이를 더 부었다. 그러나 냉각 장치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가 차 밑을 보니 물이 고정 마개에 난 구멍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심각한 처지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차에 물을 넣을 방법도, 시동 장치도 없었다. 게다가 리마의 모든 상점들은 정확히 6시면 문을 닫았다.

그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상점 주인이 밤이 되어 덜커덕 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거리를 유심히 살폈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보았다. 그가 있던 블록 저쪽 편에서 한 남자가 코너를 돌아 사라지는 게 보였다. 그는 홀로 남았다.

그에게는 단 한 가지 해결방법 밖에 없었다. “하나님, 제가 큰 위험에 놓여있는 것을 아십니까. 차 시동을 걸 수도 없고 차안에는 당신의 사업에 사용될 7만 달러어치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주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두 남자가 버스에서 내렸다. 데이비드는 그들이 끝이 뾰족한 돌을 줍는 것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차의 한쪽에 그리고 다른 남자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데이비드는 리마에서 강도행위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남자들이 파이프와 쇠사슬 그리고 총을 들고 그들을 접근했었다. 한 남자가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는 다행히 재빨리 피했고, 돌은 그의 머리 뒤로 ‘썹’ 하고 날아갔다.

차 옆에 선 채, 그는 뾰족한 돌로 이마를 맞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남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 사람들은 데이비드가 혹 무기를 꺼내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오자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친구를 위해 주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기증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 기계들이 저희 가족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저의 생명을 희생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가야 할까요? 저는 당신의 자산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제 생명을 이것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구를 보호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한 발자국 뒷걸음 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다.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지?’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바로 전까지 그는 돌을 들고 위협하는 불량배 외에 주변에 사람 그림자라곤 하나도 보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남자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놓는 것을 느꼈다. 재빨리 그는 뒤돌아섰다. 남자의 얼굴은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그때까지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을 낮을 잃고 쳐다보며 강도들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떠나세요.”

“알고 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데이비드가 소리쳤다. “하지만 난 갈 수가 없어요. 엔진이 서버렸고, 시동장치도 없는데다가 차를 밀어줄 사람도 없거든요.”

“내가 밀어 주겠습니다. 차에 타세요.”

“밀 수 없을 거예요. 차가 장비로 가득 차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부두에서 차 시동을 걸 때도 세 사람이 밀었는걸요. 게다가 차는 지금 자갈밭에 주차되어 있고, 그것도 평평한 바닥이 아닌 언덕에 있어요. 할 수 없을 거예요. 저 불량배들이 당신에게 돌을 던질까 겁나네요.”

데이비드는 미동도 않고 얼어붙은 듯 서있는 두 남자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상하다’ 그는 생각했다. ‘왜 가만히 있지? 저 사람들 룯의 아내랑 친척이라도 되나?’

남자가 다시 말했다. “차에 타요. 내가 밀게요. 난 저 사람들을 알

아요. 매우 위험한 자들이죠. 저 고물 버스에 저들 일당 4명이 살아요. 저자들은 막 버스에 탄 사람들을 습격하고 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여기 서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가진 장비를 뺏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차를 밀어주러 왔어요.”

그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어리둥절해진 데이비드는 동의했다. “그래요.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남자의 생명이 걱정된 데이비드는 그가 차 뒤쪽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두 남자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손에 돌을 들고 서 있었다. 데이비드는 리마에서 소매치기와 도둑들을 만날 때 지켜야 할 요령 연습을 기억했다. 누군가 강도 현장에 개입해서 “조심해요. 누군가 당신의 물건을 훔쳐갑니다.”라고 외치면 뒤에서 손가락 사이에 끈으로 면도날을 맨 사람이 나타나서 도우려는 사람의 얼굴을 베어 피부가 너덜너덜 때 달리게 만들기도 했다. 이 끔찍한 생각이 데이비드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저 자들이 이분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얼굴을 베면 어찌지?’

그 남자가 밀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어쨌든 그는 키를 돌렸다. 차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기어를 2단으로 올렸다. 여전히 의심하고 비관적으로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차가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엔진이 멈추어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는 클러치를 밟았다. 모터가 마치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부르르 소리를 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남자가 소리쳤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세요. 서둘러요. 빨리!”

데이비드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리마에서는 도움에 보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사례금을 드리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난 사례금은 필요 없어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가시오. 떠나시오.”

고집을 부리며 데이비드가 우겼다. “아니오, 사례금을 드려야겠습니다.”

남자가 졌다. 데이비드는 그에게 조금의 돈을 건넸다. 남자가 간청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세요. 지금 가요!”

이번에는 데이비드가 순종을 했고, 그는 도로에 차를 올려놓은 다음 언덕을 내려갔다. 두 블록을 가자 엔진에서 소리가 나더니 다시 꺼졌다. 그는 간신히 차를 주유소까지 몰고 가서 차를 밝은 곳에 세우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상을 종합해 보았다. ‘완벽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데이비드의 곤란한 처지를 이해했고, 그 두 명의 불량배들과 끔찍한 행적들, 그리고 그들이 하기로 마음먹은 계획들을 알고 있었다.’ 무엇이 그 두 불량배들을 얼어붙게 했을까? 오직 초인간적인 힘만이 자갈길에서 언덕 위를 향해 차를 밀 수 있었음을 데이비드는 깨달았다. 모든 세부 사항들이 아름다운 퍼즐처럼 들어맞았다.

시편 139편 5절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그를 세계 흔들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자는 바로 천사였던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의 아둔함에 부끄러워하며 데이비드는 도움을 청하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듯한 당신의 자녀를 돌보도록 강한 천사를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가!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며 데이비드는 자성을 했다. ‘왜 내 삶은 천사들에게 문제를 안겨줄까? 나를 보호하는 천사들은 설 틈이 없어. 다른 천사들이 잘 때 나의 천사들은 거의 잠을 못 잘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늘 위험이 도사리는 사업의 최전선에 두셨기 때문일까? 사랑으

로 그분은 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 나는 까다롭게 굴려고 하지 않는데 좀처럼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가 받을 가치가 없지만 아주 특별한 도움을 보내셨어.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제안하시는 것들을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게 결여된 것이 있다면 보여 주옵소서.’

2주 후 데이비드는 북페루 연합회 출장에서 돌아와 리마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그는 합회 컴퓨터에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달려와 터미널에 도착한 시각은 정오쯤이었다.

리마의 버스 터미널은 도시 중심의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택시 타는 곳까지 가려면 이 불길한 지역을 통과해 서너 블록을 걸어야 했다. 서류가방을 들고 그는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걷기 시작했다. 장거리 버스 여행으로 인해 그는 여러 시간 소변을 배출할 기회가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길가를 두리번거리다가 그는 뒷골목에서 작은 공중 화장실을 발견했다. 그는 위험천만인 무방비 지역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생각했다. ‘빨리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도 날 보지 못할 거야.’ 한편 그는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은 ‘상어가 우글거리는 곳에 피 흘리는 사람 격’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는 뒷골목으로 재빨리 뛰어가서 관리인에게 10센트의 이용료를 지불했다. 그는 ‘15초 안에 다 보고 나갈 거야.’라고 생각하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주시해 보고 있었다. 그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폭동소리를 들었다. 무기력한 자세로 서 있을 때 빨간 대형 손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손에는 손수 만든 짐을 든 한 남자가 그의 뒤를 따라 달려왔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남자가 그의 가방과 시계 그리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강도가 칼을 빼들고 다가오다가 흠칫 멈춰 섰다. 강도는 데이비드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했었다. 데이비드도 자신이 혼자 들어왔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는 강도가 자신보다 키가 큰 무엇인가를 올려다보고 있음을 감지했다. 강도의 얼굴이 백짓장처럼 하얗게 변하고 입이 벌어졌다. 그는 칼을 내리더니 슬며시 뒤로 감추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쳐 안전하게 길모퉁이를 향해 서서 어리둥절한 것처럼 행동했다.

불일을 마치자마자 데이비드는 서류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안내원은 놀라서 입을 벌리고 멍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데이비드가 살아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서둘러 큰 거리로 가면서 데이비드는 다시 한 번 수호천사가 함께 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강도는 봤다. “아버지, 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늘의 사자를 보내시는 분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내 주위로 진치고 안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가 걸으면서 기도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멸시킬 만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선교 일에 너무 바빠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바치는데 소홀하지는 않는가? 영적 사물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가는 잡지, 신문, 책, 혹은 TV 시청이나 비디오 보는 일에 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친구들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영적으로 죽이려는 사단의 노력을 경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맑

게 해주는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를 늘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감싸는 그 소중한 관계를 즐겁게 여기는가?’ 그는 소리 내어 기도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당신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과도한 스트레스

1990년도에 페루의 잉카 연합회 행정부는 데이비드를 인디애나폴리스 대총회에 대표로 파견했다. 그들은 능숙하게 영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다. 데이비드의 언어능력은 포르투갈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대화가 가능했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또 문자 그대로의 통역에 능한 것은 스페인어였다. 단상 위 스페인어권의 대표자들은 설교와 회의들을 헤드폰으로 통역해주는 그의 봉사에 고마워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데이비드는 통역으로 바빴다. 그는 8주간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며 미국에 머물렀다.

리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떨쳐버릴 수 없는 나약함을 경험했다. 신경이 날카롭고, 부정적인 정신자세, 대처능력의 결핍 등은 예전의 원래의 낙천적인 데이비드의 모습과는 반대였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비관적인 모습은 베키와 아이들을 혼란케 했다. 그들은 3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집에 있는 것을 싫어했다. 일하는 것도 싫어했다. 그는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

베키는 과로가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가 신경 쇠약 직전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폐된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들을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다. 가까운 친구이자 선교사였던 한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데이비드는 매우 신경을 쓰고 베키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는 페루인 학생들이 미국인 부인들을 쉬운 사냥감으로 여기는 것을 염려했다. 어느 날 그는 한 학생이 베키를 ‘사모님’이 아닌 ‘베키’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학생이 직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가까운 친구 관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데이비드의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런 마음은 이 젊은 학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학생이 베키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베키는 그간 이 신학생의 기말 조사 보고서를 타자치는 일을 도와줘 왔다. 어느 날 저녁 그 학생이 들렀고 데이비드는 다시 그 학생이 자신의 아내에게 ‘베키’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노하게 했다. ‘어떻게 일개 학생이 이런 식으로 직원을 불러서 관습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그에게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학생이 내 아내를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는 매 상황에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렸다. 해결 방법을 구하는 대신 그는 베키를 힘들게 했다. “그 자를 집밖으로 내 쫓아. 다시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해.”라며 다그쳤다.

베키는 남편인 데이비드가 그 학생에게 직접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느낌들을 데이비드에게 설명하자 그는 화가 난 채로 대답했다. “다시는 그 학생이 당신

이름을 부르게 허락하지 마!”

전에는 데이비드가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스트레스 심한 상태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게 만들고 있음을 이해했다. 점점 더 그는 그녀에게 조금하듯 대했다. 그들의 이상적인 결혼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신경쇠약에 근접했다고 느낀 그녀는 하나님께 남편이 자신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데이비드, 우리가 오랫동안 휴가를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어디론가 떠나야 해요. 우리 둘만이 가서 쉴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알아봐 주세요?”

그녀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브라질 국경에 인접한 작은 병원의 회계 마감을 하러 출장을 가야 해. 일이 끝나면 아마존 강변에 있는 통나무 오두막에서 머무릅시다. 아마 카누도 빌릴 수 있을 거야. 그 때가 우리 결혼 10주년 되는 날인데, 어때?”

“그렇게 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아마존강 한가운데 라도요.”

그들은 믿을 만한 여청년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절실히 필요한 두 번째 신혼여행을 떠났다.

“데이비드, 나의 키 크고 검게 탄 멋진 남자와 이 거대한 강에 함께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아요. 폭이 3~4마일은 족히 되는 것 같아요. 건조한 갈색 천지 리마에서 이곳에 오니 초록의 정글과 화려한 새들이 하늘을 생각나게 해요.” 카누의 노를 젓고 있던 베키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놀라워. 정말 당신은 보통의 세련되거나 로맨틱한 여자들과는 다른 것 같아. 정글의 강에서 카누를 타고 노젓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로맨틱하다고 할 여자는 얼마 없어.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연결 안 된 곳에 맨발로 다니면서 사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났던 곳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우정을 더욱 단단히 묶어 주었죠. 소중한 추억들이죠! 하지만 나도 문명의 혜택을 고맙게 여기기도 해요. 당신이 향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장미나 다른 꽃들을 계속 주는 것이 날 기쁘게 해요. 당신은 사려 깊고 내 생일이나 기념일들을 특별한 작은 이벤트로 챙겨주잖아요.”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지. 멕시코에서 페루로 이사 오던 해였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그날을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은 무척 미안해 했어요. 한 이틀 후에 당신이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계속 창문 밖을 내다보고 길을 바라보며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보고.”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이 물었지. ‘무슨 일이에요?’ 나는 ‘어, 아무 것도 아냐.’ 라고 하고.”

“그랬어요. 몇 분 후에 큰 트럭이 집 앞에 서더니 사람들이 피아노를 내렸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당신은 내 생일 잊은 것을 과분하게 만회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어.” 데이비드가 회상했다. “결혼하기 바로 전 안식일 날 그물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과 언약했잖아.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습니다. 우리를 당신께 진실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늘 함께 손을 맞잡고

구름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마다 그분께서는 우리 집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실 것을 믿어요.”

아마존에서 보낸 짧은 휴가 동안 데이비드는 본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심한 감정적 피로를 경험했음을 깨달았다. 베키에게 팔을 두르고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부디 저의 취약점에 경계하게 하옵소서. 과로하도록 제 자신을 허락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가까이 지켜 주옵소서.”

5년간의 쉴 새 없는 출장여행 생활 끝에 베키와 데이비드는 더 이상 오랫동안 집을 멀리 떠나야 하는 일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가정도 늘어났다. 그 동안 두 아이를 입양해서 그들의 첫 딸 리나 보다 5살 많은 사랑스런 페루 소녀 케יתי와 카를로스 보다 4살 어린, 역시 페루 소년인 크리스토퍼가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1992년도에 데이비드는 잉카 연합회 교회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제 체계는 자녀가 다섯 명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는 집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막내 둘은 남자아이들입니다. 제 일 때문에 아이들의 영성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회에 배정된 90개의 해외 봉급을 22개로 줄여야 합니다. 다른 봉급 예산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해요. 컴퓨터 전문가들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데이비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많은 기도 끝에 비록 제가 지난 5년간 지금의 일을 즐겁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긴장의 연속인 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데이비드와 베키의 걱정은 덜어지고 동시에 또 다른 도전이 놓여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확신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을 난 알아. 우리가 할 부분은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연연하지 않는 거야. 오로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마음이 있어?”

베키가 데이비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문제들 대신에 무한한 가능성들을 엿보게 할 봉사의 비전을 주실 것이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 주시고 장애물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는 건 신나는 일일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빨리 보고 싶어요.”

새로운 경영방법



1993년 데이비드가 소프트웨어 공학 석사과정을 끝마쳐 갈 무렵, 트리니다드 섬의 수도인 포트오브스페인에 위치한 카리브 해 대학 학장인 실반 래실리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컴퓨터 업무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장이 말했다. “해외 예산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다.

“당신이 받은 교육과 전문성을 모두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AVS(재림교회 자원봉사 서비스) 일원으로 가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7인 가족을 위한 집과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당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초청을 즐겨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일하지 않

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셨다. 일을 시작한지 석달 후에 갑작스럽게 해외 예산이 마련되었고 대학은 그것을 데이비드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데이비드는 트리니다드 섬의 카리브 해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한 카리브 해 연합회 관할 지역의 컴퓨터 업무 책임자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회 소속 국가들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를 돕게 했다.

때때로 그는 업무상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에 가야 했다. 그는 가이아나 합회 행정부와 정글 내륙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원주민들 특히 로레이마 산 주변에 거주하는 아카와요 족과 아레큐나 부족들의 삶이 매우 궁핍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가이아나 남서쪽의 지방은 수많은 정글들과 믿을 수 없는 강들, 가파른 산들, 그리고 여러 개의 폭포들로 둘러 싸여 있어 어느 곳에서 가도 가깝지 않은 먼 지방이었다. 이곳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가이아나 등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데이비드는 ‘데이비스 인디언’ 들을 발견했다. 꿈에서 천사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오크와 추장의 후예들인 이들은 다른 인디언들보다 더 고상하게 보였다. 천사의 가르침으로 추장은 여러 성경 진리들을 가르쳤고, 여전히 데이비스 인디언들은 그 가르침을 따랐다. 1911년도에 용기 있는 선교사 O. E. 데이비스가 천사가 추장에게 했던 ‘백인 남자가 검은 책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늘에 대해 더 가르쳐 줄 것’ 이란 약속을 성취시켰다. 비록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나, 그들은 데이비스를 사랑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받아들였다.

데이비드가 함께 일한 다른 인디언 부족들과 다르게 그들은 구걸하

지 않고 나눠주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관대하게 나누어 주었다.

데이비드는 '카이칸' 이란 동네에 한 번도 선교사가 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에 들어가서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의료 및 영적 도움 없이 죽어가고 있을까? 이 가까이 가기 어려운 마을들에 들어갈 비행기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오, 여보,” 베키가 외쳤다. “그곳에 가고 싶네요. 그 사람들을 크게 도와 줄 수 있을 거예요.”

카리브 해 대학에서 봉사를 시작한지 몇 년 후에 데이비드는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발견했다:

“안락한 삶을 구하지 말고 강하게 되길 기도하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필적하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그대를 그대로 만드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될 것이다.”

“여보, 이것 좀 읽어봐. 그리고 이야기 좀 합시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어.” 베키는 데이비드가 열정에 찬 태도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뭔가 공개할 특별한 것이 있음을 감지했다.

“우리가 해외에서 일 한지 어느새 16년이 다 됐어. 자원봉사자로 시작해서 거의 4년간은 현지 봉급을 받으며 일했고, 이제는 안정적인 해외 봉급과 특혜를 누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필요로 할 다섯 자녀도 주셨고, 우리의 첫번째 책임은 바로 이 아이들이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 데이비드가 다음 말을 계속하길 기다리는 베키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이아나 정글 마을인 카이칸의 데이비스 인디언들 사이에 선교사가 되라는 부담을 주셨어. 가이아나 합회는 그 지역을 위한 재정이 없어. 성령께서 다시 우리가 무급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다섯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가 문제야.”

“우리 부모님께서 페루에서, 후에 아프리카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런 생계 대책 없이 내륙의 정글 마을로 아이들을 데려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내 언니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부모님의 본보기를 따랐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잖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1년 더 연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실험해 보는 게 어떨까? 이번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기회라고 생각해. 아이들과도 상의해 봅시다. 정글 속으로 200마일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어. 이 모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마음이 있어? 우리의 필요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요. 그것을 경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보. 우주를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곱 식구를 돌보실 것은 분명해요. 아이들도 집을 떠나 대학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실재하심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베키가 덧붙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처럼 섬기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거예요.”

데이비드는 그의 상관인 연합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먼저 1년간 무급으로 가이아나에 가서 카이칸 마을의 데이비스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뿌리 내리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1년 더 있지 그러십니까? 당신만큼 유능한 컴퓨터 교사를 구할 방법이 없소.” 연합회장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가이아나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못해 연합회장이 승낙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입니다. 보내드리겠소.” 그날 저녁 식사시간에 데이비드는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 “진짜 모험이 될 것 같은데요, 아빠.” 카트리나는 늘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

여자아이들 중 하나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전기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 아이의 말에 개의치 않고 다른 아이들이 동시에 물었다. “아빠, 짐은 언제 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조지타운을 가로질러 비행할 수 있도록 수속을 마칠 거야. 카이칸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내륙으로 가는 오지 비행사의 비행기를 타야해.”

데이비드는 이메일로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그의 꿈을 알렸다. “데이비스 인디언들 사이에 의료 선교소를 세울 거예요.” 캘리포니아 차우칠라에 사는 베키의 언니 벤티와 그의 남편인 테드 버그도프도 단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마지막 월급을 받던 날 데이비드는 돌연한 불안감에 빠졌다.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억측인가 믿음인가? 더 이상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확신과 평화, 그리고 믿음을 주소서.” 곧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는 그들이 가이아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 미국행 비행기 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이것은 당신께 드리는 시험입니다.” 데이비드가 큰소리로 말했다. “만약 우리를 먹이지 못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비행기 표를 훗날 방문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 믿겠습니다.”

카이칸 주민들은 선교사 가족이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가정은 조지타운에 도착해서 단과 무전기로 마을과 교신했다. “우리는 갑니다. 세 딸이 있는 또 다른 가정도 올 거예요.”

카이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큰 환대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활주와 교회 사이에 있는 작은 나무기둥들을 정글 꽃들로 장식했다. 교회 문 위에는 “카이칸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라고 쓰인 커다란 표지도 있었다. 150명 인구의 마을 전체가 그들을 맞으러 활주로까지 나왔다. 데이비드의 가족이 교회로 들어서자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법궤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다윗 왕이 된 느낌이야.” 데이비드가 베키에게 속삭였다. “대통령도 이보다 나은 환대를 받지 못할 거야.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선교사를 원해. 우리는 축복 받았어. 봉사하기 위해 간 곳의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은 선교사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정말 이진 레드 카펫을 밟는 경험이야.” 베키와 데이비드는 아이들과 친척들과 함께 특별석으로 안내 받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악이 연주되었다.

행사가 끝나자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강 근처의 작은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미소 띤 얼굴로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맘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글에서는 종종 여러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것을 아는 그들은 모두 그 집으로 들어갔다. 어른들은 비좁은 그들의 '처소'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같이 바닥에 꾸그리고 앉는 것을 대단히 재미있게 여겼다. 작은 찬장에 음식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조금 배고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주민들은 그들의 선교사들이 아침에 먹을 음식이 별로 없음을 깨달았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등에 바나나, 파파야, 뿌리채소 등 그들에게 있는 온갖 종류의 음식을 짚어지고 왔다.

집으로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을 대표하는 클라우드 안셀모가 돕겠다고 나섰다. 영어를 썩 잘하는 그는 "나는 조지타운에서 경찰로 일했어요. 집안 문제로 고향인 카이칸으로 돌아왔지요. 여러분들이 정착하고 마을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클라우드는 곧 데이비드의 오른팔이 되어 그가 없이는 간과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챙겼다.

간호사인 어른들은 곧 주민들이 의료 봉사가 필요함을 발견했다. 비록 정부가 작은 보건소를 마을에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역 건강 담당자는 겨우 몇 달 훈련을 받았을 뿐이었고 약품도 부족했다. 그들은 건강 담당자를 도와서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해 주도록 계획을 세우기로 결론을 내렸다.

맑고 깨끗한 강이 그들의 작은 집 옆으로 흘렀다. 그들은 이 물로 요리를 하고, 목욕을 하고, 빨래를 했다. 소독제를 넣는 예방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근처 샘에서는 좋은 식수를 얻었다. 화장실은 재래식 옥외 변소였다. 처음에 그들은 주민들처럼 나무를 잘라 바깥에서 불을 지펴 요리를 했다. 곧 그들은 여자들이 이 원시적 방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데이비드는 프로판 가스레인

지를 구해 요리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많은 시간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태양 전지판으로 12볼트 배터리를 충전해 고주파 라디오와 밤에 전등을 켜는데 사용했다. 변환 장치기는 그들의 노트북 컴퓨터와 베키의 재봉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글과 강은 아이들의 넓은 운동장이 되었다.

카이칸에 오고 나서 몇 달 후 베키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이곳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서 온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는 것에서 기쁨이 생겨요. 아이들이 이 단순한 생활방식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산해요."

"엄마이자 선생님이 강에서 빨래를 하고 강 건너 작은 가게를 갈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배를 조종하는 이런 모든 것이 웃음과 즐거움을 줘요."

선교사들과 주민들 모두 더 큰 집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클라우드가 앞장서서 주변 마을 사람들과 카이칸 주민들이 나무를 베고 전기톱으로 재목을 준비하며 건축을 도왔다. 이층집의 아래 칸은 큰 부엌과 식당,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클리닉으로 사용될 방한 칸으로 꾸며졌다. 위층은 유리 없는 커다란 모퉁이 창문이 있는 넓은 거실과 4개의 침실이 있었다. 남자들은 특별히 베키를 위해 옥외 샤워장을 급히 만들었다.

데이비드의 동서인 테드는 침대, 찬장, 옷장, 의자,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는 또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통을 설치해 부엌 싱크로 관을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데이비드와 테드의 아이들도 이 사업에 한 몫을 담당했다. 그들은 안식일 학교를 돕고 교회 활동에 필요 되는 곳마다 앞장섰다. 큰 여자아이들은 음악적 재능을 이용해 청소년 합창단을 구성했다. 마을 아이들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

첫해에 카이칸 초등학교의 교사 중 한 명이 학기가 마치기 전에 떠나야 했다. 주민들은 데이비드의 큰딸인 리나와 이종사촌인 하이디에게 왔다. 그들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했다.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들이 요청했고, 두 아이는 도전해 보기로 했다. 매일 그들은 소중한 학생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셨다. 학기가 끝나자 교장이 베키에게 말했다.

“카이칸 초등학교가 시험에서 1위를 했어요. 모두 리나와 하이디가 훌륭하게 가르쳐 준 덕분이예요.” 후에 둘째딸인 카트리나와 사촌인 크리스틴, 그리고 친구인 사라 에이리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을 돌보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베키가 언니 벳시에게 제안했다.

“그래. 그들은 건강 법칙이나 질병 예방에 대한 지식이 없어. 6개월 과정의 강습을 계획해서 가르치자. 테드도 간호사니까 우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강습은 성공적이었다. 인근의 여러 주변 마을에서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응급처치 과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 주 동안 일요일마다 배우기 위해 먼 길을 걸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벳시는 음악을 가르쳤고, 개척대도 시작했다. 아드라에서 폐달 재봉틀을 마련해 주어서 베키가 여자들에게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사용했다. 자신들 옷뿐만 아니라 개척대 복을 만드는 법도 배웠다.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기쁨을 보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느 날 베키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몇 달 후에 데이비드의 부모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즉시 땅을 일구어 텃밭을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의 오래된 의료경험은 클리닉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안식일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설교하고 난 후 클라우드 안셀모가 그에게 다가왔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으면, 아마도 제가 설교단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을 거예요.” 게이츠 가족은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해 왔다. 그리고 며칠 후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강에서 클라우드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했다. 그 날 이후로 클라우드는 마을에서 강력한 선한 감화를 끼쳤다. 그는 또한 군과 정부의 높은 존경을 받았다. 게이츠 가족이 카이칸을 떠나 있을 때마다 그는 그들의 집을 돌보고 마을의 여러 작은 일들을 처리했다.

선교사가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서 요청했다. “우리 마을에도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 사십니까?”하고 데이비드가 물으면, 그들은 “별로 멀지 않아요. 저쪽으로 나홀만 걸어가면 되요.”하며 정글로 짙은 산 너머를 가리켰다. 데이비드는 나홀 동안 걷고, 오르고, 강을 건너 하루를 머무르고 다시 나홀을 걸어 돌아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것은 8일을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데이비드와 베키가 가이아나로 오기 전부터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도로나 항해할 만한 강도 없는 이곳에서 항공 프로그램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동안 비행기를 꿈꾸고 기도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더 큰 비전을 갖도록 그들을 조금씩 움직이셨다.

가이아나 재림교회 의료 항공 서비스 (GAMAS)



“한 가지 해결방법 외에는 없어. 비행기가 있어야겠어.” 조종사 남편 데이비드는 확신을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약품과 음식 살 돈도 제대로 없지.”

베키와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데이비드가 결론지었다. “먼저 정부와 접촉해서 항공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겠어.”

시작부터 정부관계자들은 그의 청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안 된다’란 답변을 개의치 않고 물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죠?”

“이것이요.”라고 대답하고 그들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재빨리 그는 그것을 작성했다.

“제가 처야 하는 시험은 뭔가요?” 그는 시험을 치고 의무사항을 다한 다음 가이아나 민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비록 그렇게 하기까지 근 일 년이 걸리고 아무도 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여보, 이제 기초 작업은 다 한 것 같아. 항공 프로그램을 시작할 돈만 있으면 돼. 여전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 내 귀를 울려.”

“전에도 그 약속을 여러번 의지했죠. 약속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쓴다고 닳지는 않아요.” 베키가 데이비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가이아나에 정착하기 전에 미국으로 가서 비행기 한 대를 구입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 통장에 5천 달러가 예금돼 있어요. 이사비용으로 대총회에서 준 돈 말예요. 비상시를 대비해 은행에 예치해 두기로 한 돈이긴 하지만 짐은 몇 가지만 부치고 나머지는 비행기 구입에 사용해요.”

“당신 말이 옳아. 정글 마을에서 아프긴 하지만 병원으로 후송할 방법이 없어 죽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겠어. 비행기 사는데 5천 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몇 배로 늘려 주실 거야. 그래, 미국으로 가겠어.”

베키는 남편을 꼭 안아 주었다. “당신과 하나님은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즐거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전진하여 데이비드는 미국으로 향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여 그는 팔려고 내놓은 수천 대의 비행기 목록이 있는 ‘Trade-a-Plane’이라는 잡지를 한 부 샀다. 그는 정글에 적합한

꿈의 비행기를 찾기 위해 모든 광고를 꼼꼼하게 살폈다.

“데이비드, 뭘 찾는 게냐?” 그의 아버지가 물었다.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보는 중이에요.”

“겨우 5천 달러 가지고 말이나? 그 돈으로는 비행기를 살 수 없다는 걸 알잖니.”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먼저 저는 비행기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나면 돈을 마련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죠. 제가 원하는 걸 찾았어요. 비행기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데이비드는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남자가 대답했다. “와서 보고 당신 생각에 비행기가 선교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몇 천 달러 싸게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이 비행기를 봐야겠어요.”

“무슨 돈으로 살 작정이니?”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적당한 비행기를 찾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의 필요를 공급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눈치가 보였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것이 사업을 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침은 비행

기를 구입하기 전에 돈을 내놔야 하죠. 게다가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주요 임무죠. 다른 책임은 지지 않죠.”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경영할 계획이나?” 아버지가 궁금해 했다.

“우리는 완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전적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아신다는 것을 믿기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안정된 운영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급선교사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나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재정에 대해 잘 아신다고 판단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지휘하실 수 있으세요. 또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이미 그분께서는 큰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지 윌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 읽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분의 약속에 기초를 둡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지역을 열어 주실지 보고 싶어요.”

“알겠다. 네 어머니와 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데이비드의 매부인 빌 노튼이 옆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그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이 비행기를 보러 가지 않겠나? 캘리포니아에서 북 캐롤라이나까지 가려면 장거리이긴 한데 말이야. 자네가 동무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죠.”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북 캐롤라이나로 떠나는 날 데이비드의 동서인 테드의 부모님이 그에게 말했다. “은행에 예금이 좀 있는데 비행기 사는데 이

자 없이 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갚게나.”

그리하여 데이비드는 주머니에 돈을 확보하고 길을 떠났고 비행기를 샀다. 비행기에 수리할 데가 많았다. “거의 모든 것을 다시 갈아야 하긴 하지만 가격은 적당해. 비행기에 가능성이 많이 보여. 켄터키로 가져가서 엔진을 다시 개조해야겠어. 분해 수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페인트칠과 판금을 하고 무선 장치를 장착하고.” 켄터키에서 비행기가 준비되는 동안 데이비드는 그의 가족과 처형 가족을 카이칸으로 데려다 주고 비행기 정비를 돕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데이비드는 개조된 엔진을 비행기에 장착하고 있었다. 12월의 매서운 바람이 엔진 장착 작업을 끝내고 있던 난방이 되지 않는 격납고를 춥게 만들었다. 집에서 몇 달간 떨어져 지낸 탓에 몹시 외롭고 추위로 기분이 언짢아진 데이비드는 우울함이 그를 뒤덮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저녁 내내 어렵게 피복 전선을 연결하고 나사를 조이며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생각했다. ‘몸을 태아처럼 웅크리고 이불 속에 숨어버리고 싶네(정신적 고뇌를 잊고 피해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역자주)’ 그러나 그는 곧 그의 위대한 피난처를 기억하고 자신의 상태를 주님께 가져갔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가 속으로 신음했다. ‘이 어두움이 원수로부터 온 것이면 가져가 주십시오.’ 60초 후 그는 휘파람을 불며 본래의 의욕에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울함의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낙천적 태도와 기쁨은 주께로부터 오는 매일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 날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차서 데이비드는 갑작스럽게 한 생각을 했다. ‘가족을 깜짝 놀래주고 카이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어떨까?’ 물론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가족은 돈보다 소중했다. 몇 군데 전화를 건 후 집에 갈 준비가 마쳐졌다. 그는 카이칸으로 가는 주 1회 노선의 마지막 좌석을 예약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가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베키는 데이비드에게 보낼 우편물을 갖고 마을의 활주로로 뛰어갔다. 결혼 2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떨어져서 보내게 된 건 두 번째였고, 그가 무척 보고 싶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여 지상에서 이동하는데 원주민 여자 한 명이 그녀에게 물었다. “저기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게이츠 씨 아니에요?” 베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그녀는 빨리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수리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 있거든요.” 베키는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비행기 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

그녀의 ‘키 크고 까무잡잡한 미남’이 비행기 밖으로 내려오자 그녀는 달려가서 그의 품에 안겼다. 둘은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나누어주러 집까지 손을 꼭 잡고 갔다.

한 달 후 데이비드는 켄터키에서 비행기를 찾아 미시간 주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앤드류스 대학교로 가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앤드류스 소형 비행장의 정비 책임자인 브룩스 페인이 항공 정비 학생들과 함께 비행기 출발 전 필요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브룩스는 이 선교를 위한 노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음에 감격해했고 최상의 작업을 위해 여러 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내부 장식품과 브레이크, 새 바퀴, 계기판, 케이블을 장착하고 부식된 것을 고치며 그들은 데이비드의 헌신을 생각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항공 선교를 향한 꿈을 심어 주었다. 그들은 또한 고주파 라디오도 설치했다.

데이비드의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격납고로 찾아왔다. 데이비드는 그에게 설명했다. “고도로 개조된 이 2인승 세스나 150 기종은 정글 활주로 운행에 이상적입니다.” 비행기는 고속 이착륙 장비(STOL: Short Takeoff and Landing)를 갖추었고 날개 끝 개

조는 공수력을 높일 것이었다. 또한 대형 풍선형 타이어는 비행기가 어떤 지형에도 착륙할 수 있게 할 것이었다.

“프로젝트에 내가 도와 드릴 게 있습니까?” 남자가 수표책을 꺼내 들고 물었다. 여러 곳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비행기를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테드의 가족에게 빌린 돈을 완전히 갚을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또 해내셨어! 믿음으로 걸음을 떼니 물이 갈라졌어!” 하며 외쳤다. ‘가이아나 재림교회 의료 항공 서비스’(GAMAS)는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마침내 수리가 완료되었다. 데이비드는 검정색의 등록 번호, 초록색으로 쓰인 글자(초록은 가이아나 국기의 색이다), 그리고 노란색과 붉은색 줄무늬가 있는 하얀색 비행기를 점검하며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 새 고성능 엔진과 공수력을 높이도록 특별 개조된 날개는 의료 후송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이에요.”

“가이아나 정부와 모든 것이 매듭지어졌습니까?” 앤드류스의 수리 팀이 그에게 물었다.

“아니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항공 프로젝트를 확립하는데 큰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정부는 선교 비행기가 내륙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대답은 ‘안 돼, 안 돼, 안 돼’ 였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큰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난 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표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 무료 의료 후송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료 응급사태이든 가리지 않고 응답할 것이고 환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둘째, 건강 교육을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 원칙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공의 주요 요소가 통신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주로나 있는 마을은 모두 무전기가 있어서 환자들이 우리가 도착할 때를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착륙하는 활주로는 어떤가요?”

“길이 270~450미터의 활주로입니다. 오지 전문 조종사의 안정된 솜씨가 필요 되죠. 어떤 곳들은 젖어있을 때 위험합니다. 다른 곳들은 바람의 상태에 따라 아침에는 안전하지만 저녁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죠.”

“와, 정말 많은 도전들을 겪는군요. 이 일에 당신과 하나님이 한 팀인 게 다행입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기에는 우리가 쏟은 수고가 너무 커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지혜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비행기가 가이아나로 날아갈 때가 온 것 같군요. 앞으로 이틀간의 항공일지 기입과 연방항공부서(FAA) 서류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번 여행에 나를 도와 줄 조종사는 리프 에이앤(앤드류스 항공 정비학교의 최근 졸업생)입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하기로 계획하고 있어요. 일리노이에 들러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바로 남미로 가게 됩니다.”

마이애미에서 카이칸으로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이 게이트 가의 일리노이 농장의 잔디로 된 가설 활주로 위에 세워진 비행기 주위로 모였다. 기도를 하는 데이비드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 힘 있는 것과 달리 떨렸다. “아버지 이 선교목적의 비행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와 리프가 남미로 여행하는 시간 동안 천사를 보내 지켜 주옵소서. 가이아나에서의 당신의 사업에 이들과 비행기를 드리나이다.”

비행기를 잔디밭 활주로 끝으로 이동시킨 후 데이비드와 리프는 저녁 6시쯤 이륙했다. 10시 30분 경 테네시 주 차타누가에 연료주입을 위해 착륙했다. 날개 탱크뿐만 아니라 15갤런 크기의 예비 탱크도 채웠다. 좋은 날씨는 플로리다의 올랜도까지의 긴 야간비행을 즐겁게 했다. 그들은 새벽 5시에 착륙하여 어두컴컴한 조종사 라운지에서 5시간 눈을 붙인 뒤 마이애미의 오파 라카 국제공항을 향했다. 마이애미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월요일 오후 내내 걸렸다.

화요일 이른 아침, 그들은 비행기에 다시 연료를 채웠다. 정전 때문에 사무실이 어두웠으므로 데이비드는 아주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비행 계획을 쓰고 연료비를 내야 했다. 7시경 그들은 바하마의 작은 섬인 스텔라 마리스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수도인 내소 상공 위를 날아가는데 항공관제탑에서 무전기로 말을 전해왔다. “여권을 마이애미에 놓고 왔습니다.” 즉시 데이비드는 그의 허리 가방을 확인했다. 여권은 거기 있었다. 그는 혼돈이 됐다. 무엇이 없어진 걸까?

스텔라 마리스에서 연료주입을 할 때 서류가방을 찾으러 화물칸을 뒤지지 않아도 되도록 리프가 데이비드에게 자기 돈을 건넸다. 그날 밤 그랜드 터크 섬에 착륙한 뒤 돈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찾기 위해 짐을 내리던 데이비드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리프, 2천 달러가 든 가방을 어둡한 사무실에 놔두고 왔어! 주유 하는데 신용카드를 받을 곳이 몇 군데 없을 텐데 큰일 났네.”

데이비드는 걱정을 안고 푸에르토리코로 출발했다. 외로운 5시간 동안의 야간비행 내내 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였다. “하늘 아버지, 저의 인간적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십니다. 제가 마이애미에 현금을 두고 왔다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금이 든 가방이 발견되어 돈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선 아십니다. 제 자신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확신이 생겼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시편 107:13)

세인트 존(푸에르토리코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데이비드는 공중전화로 갔다. 그는 마이애미 항공 회사가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질문에 당직인 사람이 대답했다. “네, 지배인이 메모를 남겨 놓고 갔는데 ‘카운터 위에서 데이비드의 가방을 발견했음. 열어보니 현금이 있어 즉시 금고 안에 넣어둬. 게이트에게 돈을 가

제가도록 아침에 전화하라고 하기 바람.’ 이라고 쓰여 있네요.”

불온전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아보시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데이비드는 그날 밤 편히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는 마이애미의 지배인과 통화를 했다. 그녀는 그에게 현금을 우편환으로 전환해 보내 주겠다고 말했다. “즉시 가방을 그곳으로 보내줄게요.” 지배인은 그렇게 말하고 덧붙여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대우해 드립니다.”

가방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하루를 잃긴 했지만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기뻐하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사두는 등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의 앞에는 금요일까지 가이아나에 도착해야 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포 우편 비행기가 연착되어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데이비드와 리프는 목요일 12시 30분에야 마티니크로 출발할 수 있었다. 몬트세랫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생긴 큰 먹구름 때문에 그들은 계획을 바꾸어 5시간의 비행 끝에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포트 데 프랑스에 도착했다. 거기서 스페인 악센트의 프랑스어로 데이비드는 주유를 하고 날씨를 알아보고 비행계획을 제출했다.

다음 경유지인 성 루시아 섬에는 2개의 화산성의 산이 있었다. 산봉우리 위로 900m 상공을 날아가는데 아드레날린이 데이비드의 신경계를 자극했다. 화산에 의한 난기류로 인해 기체가 위아래로 흔들렸다. “하나님, 강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다.

잠시 후 어둠 속으로 세인트 빈센트의 연안을 따라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데이비드는 안개와 낮은 구름들 틈으로 그레나다에서 비쳐오는 불빛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지평선 너머로 트리니다드 섬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하자 흥분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곳에서 3년간 살면서 공항에서 조종법을 가르쳤어.” 데이비드가 리프에게 말했다. “아래로 보이는 데가 내가 카리브 재림 대학에서 가르친 마라카스 벨리야.” 그들이 착륙한 시각은 밤 9시 30분이었다. 세관통과와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그의 이전 상사이자 친구인 연합회 재무인 폴랜드 톰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곧 와서 비행기를 보고 주유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두 조종사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날 밤 남은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오전 6시 30분에 다시 이륙했고, 3시간 반 후에 가이아나에 도착했다. 조지타운 중심부에 있는 작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데이비드가 리프에게 설명했다. “카이칸으로 날아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 보통 허가 받는 데는 비행기가 도착한 후로 몇 주, 많게는 여러 달이 걸리지. 우리 딸 카트리나의 중학교 졸업식에 꼭 참석하길 바라고 있어. 조카 크리스티노도 졸업을 한다네. 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데이비드가 조지타운에 도착한 후 몇 명의 정비사들과 조종사들이 그가 비행기를 지상에서 이동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항 관계인이 그에게 명령했다. “비행기를 저 뒤쪽 모퉁이에 대시오. 그 비행기를 다시 이륙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관리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데이비드가 그에게 말했다. “저는 그 비행기를 곧 이륙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민간항공 국장과 이야기하는 동안 여기에 대도 괜찮겠습니까?”

“왜요?”

“저는 오늘 내륙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비웃었다.

“우린 여태까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비행기를 들여와도 최소 두세 달을 기다려야 해. 당신은 오늘 그 비행기로 어디도 가지 못해!”

민간 항공 사무실로 가는 길에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시편 108:13) 사무실 안에서 그는 부국장에게 그의 요청을 전했다.

“오늘 비행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부국장이 대답했다. “당신은 경험이 더 필요하오.”

“저는 정글 비행 경험이 10년이나 됩니다.”

“아니오. 내 말은 당신이 가이아나에서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단 말이에요.”

“전 이미 부조종사로 근거리 여객기 조종사들을 도와 카이칸 마을에서 ‘아일랜드’와 ‘세스나 206’ 두 기종으로 적어도 10회 이상 착륙한 경험이 있고 항로와 비행장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10회 이상의 비행 경험보다 얼마나 더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익숙해지기까지 적어도 20회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오.”

“제가 20회 비행을 하고 나면 당신은 40회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과 직접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운이 좋군. 국장님이 안에 계시오. 하지만 그분도 비행을 허가하지 않을 거요.”

“그래도 뵙고 싶습니다.”

데이비드는 기도하며 국장 사무실로 걸어갔다. 국장의 첫마디는 똑같았다. “미안하네만 비행을 허락할 수 없소. 경험이 더 필요해요.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요청을 허락할 수가 없소. 적어도 10회 이상의 비행 경험이 필요하오.”

조금은 기운이 빠진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간청했다. “제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 자신을 위해 제가 비행을 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 가족이 카이칸에 삽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제 딸아이와 조카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에 가 있느라 가족과 떨어져 있었는데 빨리 가족과 만나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 가족이 조지타운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카이칸에 삽니다. 그곳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활주로나가 집 근처에 있고 상태도 잘 압니다.”

“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난 당신 가족이 그곳에 사는 줄 몰랐소. 당신의 확신은 설득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소. 비행해도 좋소.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문서에 서명을 해주겠소. 오늘 떠나도 됩니다.” 데이비드는 손에 허가증을 들고 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데이비드가 “비행계획을 기입하는 동안 비행기 연료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자, 공항 관리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항공 교통 관제관에게 민간항공국장의 서명이 든 허가증을 건넸다. 아무도 그가 가이아나에 도착한 바로 그날 내륙을 향해 이륙하게 되리라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음을 알았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의 목소리가 하늘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데이비드는 중간에 있는 경계표들을 인지하며 정글 위를 2시간 정도 날아갔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이 착륙하여 지상에서 이동하는데 마을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좌석벨트를 풀고 비행기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대부분의 마을 남자들이 이미 올라와 동시에 서로 그를 안으려 했다. 주민들은 비행기 주위를 에워싸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의료 비행기가 카이칸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쏟아내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감동에 젖어 여러 번 말이 막혔다. 정글에서 이 인디언들이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베키는 이 귀한 자리에 천사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상상을 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20분 전에 비행기는 망고 나무 옆에 세워졌다.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 대학



데이비드가 비행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심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비행기의 운영은 어떤가? 가이아나에서는 연료 값이 무척 비싸다. 내륙으로 가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믿음으로 GAMAS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퇴원시키는 일을 시작했다.

데이비드가 음식과 약품 혹은 연료를 구입할 때마다 누군가 ‘필요한 것을 사는데 보태 쓰도록 이 돈을 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힌 선물을 주고 갔다.

이 주고 받는 것의 과정은 데이비드의 머리에 ‘주는 것은 실제로 받는 것이다’란 생각을 자리 잡게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정가가 되실 때 그렇다.

한번은 꽤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왔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데이비드가 베키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곳의 필요를 채우는데

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일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이곳 10대 청소년들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상의 상급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죠. 어떤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베키가 한 손으로 (주변 마을들을 가리키는 듯) 원을 그리며 말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당신 말이 옳아. 기숙 고등학교가 필요해. 하나 세웁시다.” 데이비드의 열정은 점점 커져갔다. “1963년까지 선교사들이 파루이마 근처에서 성공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곳이 문을 닫았지. 강제로 떠나게 된 톨 가족이 1964년도에 학교를 문 닫았어. 그곳을 조사해 봐야겠어. 마을에서 1마일 내에 있고 그곳 땅이 비옥해서 뭐든 키울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성격의 데이비드는 여러해 전 윌리엄 톨이 건설한 파루이마 활주로로 날아갈 준비를 했다. 그는 그곳 주민들이 카마랑 강을 건너 활주로로 자신을 맞으러 나오도록 마을 위를 여러 번 돌았다. 비행기 아래로 아름다운 시골 정경이 눈에 들어왔다. 삼면이 독을 따라 자란 나무와 뿌리들로 물의 색이 짙은 푸른 카마랑 강으로 둘러있는 반도에 마을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때 학교 교정이었던 곳을 돌았다. 황폐된 건물 몇 개와 선교사들의 집이었던 건물 몇이 눈에 들어왔다. 캠퍼스 뒤로는 웅장한 레인 마운틴이 둘러싸고 있었고 더 너머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 다우림이 펼쳐져 있었다.

착륙을 하며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은 황폐함과 폐허뿐입니다. 젊음이는 없고

정글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나이다.”

지상에 도착하여 데이비드는 파루이마 마을 의회와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모르는 지방 사투리를 썼으므로 그는 카이칸에서 통역을 해줄 ‘알베르토 안톤’이라는 사람과 같이 갔다.

“이곳에 성경 훈련학교를 세운다면 좋겠습니까?” 데이비드가 물었다.

“네. 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하죠?”

“돈이 오는 곳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일이 힘들어도 할 의향이 있는냐는 겁니다.”

그들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가 벨 나무들과 곤개 자를 판자들에게 대한 값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변인이 가격을 제시하며 말했다.

“잠깐만요.” 데이비드가 끼어들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들의 프로젝트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 돈을 가져오지 않아요. 당신들이 학교를 원하면 당신들이 지어야 합니다. 나는 휘발유와 기계 톱을 대주고 당신들이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 노동비와...”

“아니요. 우리는 지금 노동비나 돈 버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이 학교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통역자가 데이비드에게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귀띔해 주었다. 그들은 각 마을의 표준 임금에 대해 토론하며 얼마를 받아야 할지 이야기 하고 있었다. 다시 데이비드가 끼어들었다.

“여러분, 이것보세요. 학교를 짓기 원하면 상부상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노동력과 나무를 공급하고, 나는 연료와 장비를 조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분이 노동력을 공급 못하겠다고 하면 나는 다른 마을로 갈 것입니다.”

같은 시간 여자와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을 회관 밖에 서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마을 의회 의원들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데이비드가 알베르토에게 물었다. “뭐라고 하는 것인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는 학교가 없었다. 우리가 할 부분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곳에 학교를 갖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깥 사람으로부터 코치를 받은 의원들이 곧 결정을 내렸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의 부분을 이행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데이비드가 소리쳤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이것은 윈-윈 전략이 될 거예요.” 데이비드는 동의를 미소를 짓는 의원들과 악수를 했다.

“이제 계획을 세웁시다. 먼저 195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집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 건물은 여기숙사와 여교사들을 위한 숙소로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작은 집들은 임시 남기숙사와 남교사들, 그

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붕이 새고 바닥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기술로 잘 수리하면 좀 더 큰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비전과 믿음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혜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오랜 토론 끝에 데이비드는 그들이 세운 계획들을 정리했다.

“첫 건물은 2층 건물이 될 것입니다. 위층은 먼저 남기숙사로 쓰고, 아래층은 3개의 교실과 두 개의 작은 교무실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건물은 종교 센터로써 1층에는 성경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교실과 예배실로 사용하고, 2층은 도서관과 시청각 자료실, 그리고 교실 하나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준공식이 있기 한 달 전 마을 사람들은 건축현장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고 줄을 쳐놓았다. 1997년 10월 4일, 강 위쪽 언덕에 있는 재림 교회에 많은 무리가 모였다. 오후 3시에 몇몇은 파루이마에서 학교로 이어진 약 1마일 거리의 길을 걸어서, 또 어떤 이들은 카누를 타고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 건축 현장으로 향했다.

준공식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데이비드가 발표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노동과 학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통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이 계획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근방의 여러 마을들에 사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환경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한 훈련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신나는 프로젝트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공사가 즉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정글의 나무를 베고 기계톱으

로 제제목을 만들었다. 정글 밖으로 난 긴 거리로 무거운 생 판자를 끌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지만 파루이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일했다.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학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비드는 꼭 짜인 비행 스케줄을 소화해냈다. 그의 비행기 연료를 공급하는 조지타운의 회사는 비용을 월말에 계산한다는 조건 아래 필요한 만큼 연료를 채우게 해주었다.

몇 달 동안은 연료비를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들어왔다. 그런데 한 번은 이틀 후면 천 달러의 연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은행 잔고를 확인하니 겨우 이백달러가 남아 있었다. 데이비드는 잔액 모두를 찾고 아버지께 후원금이 더 들어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답변은 부정적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 문제를 그 날 밤 특별한 기도제목으로 삼으라며 용기를 주었다. 카이칸의 가족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무전을 치자 동서인 테드가 100달러를 입금해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당혹해 하며 데이비드는 기도했다. “주님, 모든 재원은 당신께 있습니다. 지금이면 우리의 필요를 이미 공급해 주시고도 남은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자금 외에는 제게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십니다. 연료대금을 치루지 못하면 비행기 운항을 못하고 파루이마의 건축도 중단됩니다. 여기까지 일을 진척시키시고 이제 와서 멈추게 하실 것입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정글 마을들에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는 소문이 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데이비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가지 방법이 있으시다.’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날 밤 푹 잤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공사를 멈추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와서 자금이 끊기게 허락 하신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열왕기상 17장을 선택하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리고 매일 공급된 기름에 대해 읽었다. 갑자기 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과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라.’ ‘하지만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데이비드가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그가 가진 것을 세어 보기라도 해야 한다는 저항할 수 없는 인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소용없는 일인데.’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내게 얼마가 있는지 이미 알아. 어제 은행에서 출금했잖아.’ 확신이 강하게 들었으므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히 돈을 세고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할 참이었다.

데이비드는 그의 서류가방을 열고 은행 봉투를 꺼냈다. 그는 전에 보지 못한 20달러짜리 지폐 여러 장과 100달러짜리 몇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안에는 1,050달러가 들어있었다. 대금을 치르고 남은 액수였다.

데이비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음이 감사로 넘쳤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돈을 여기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열어 크게 읽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시 103:2,5)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놀라운 자비로 주를 찬양하라!’ 그는 가족에게 무전을 치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이메일로 전했다. 연료대금을 받는 젊은 여직원인 그에게 말했다. “게이츠 씨, 당신은 대금을 꼬박꼬박 지불해서

일하기가 편해요.” ‘그의 자녀들이 대금을 제 시간에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6개월 후 데이비드는 주변 지역에 알렸다. “개교준비를 하십시오. 임시 건물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새 건물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곧 교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사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시작합니까?” 하고 미심쩍은 부모들이 물었다.

“나는 하나님께 교훈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지 저나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개교일을 발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봅시다.”

“오전에는 학생과 교사 모두 농장에서 일하거나 교정 정리, 또는 부엌에서 일하게 됩니다. 수확이 있기까지 학부모들이 음식을 공급할 것입니다. 수업은 오후에 있으며, 영어,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음악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개교 2주일 전 하나님께서는 두 젊은 프랑스인 부부인 고틴 부부와 마티우스 부부를 첫해에 임시 조건으로 가르치도록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교사를 확보해주신 것을 보자 파루이마는 높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각각 학교 건축 공사에 일주일에 하루를 봉사했다. 완공이 다 되어가자 그들은 4월의 한 주 전체를 2층짜리 학교 건물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데 바쳤다. 곧 학생이 될 젊은이들은 개교 4개월 전에 와서 농장에 씨를 뿌리고 청소를 하고 잔존한 건물 수리를 하고, 주방과 창고 용도의 임시 초가지붕 건물을 세우는 일을 했

다. 데이비드는 자원봉사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후원받은 쌀 100킬로그램, 말린 완두콩 50킬로그램, 밀가루 50킬로그램 등을 비행기로 날랐다. 첫 번째 건물의 현당식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내려다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다.

일주일 후 캐러비안 연합회 재무인 롤랜드 톰슨과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온 방문자들이 두 번째 건물인 종교 센터 및 도서관 기공식을 위해 왔다. 연합회 글로벌 미션을 대표하여 톰슨은 파루이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감사를 표하며 복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용하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헌금했다.

1년 반의 공사 끝에 1998년 10월 중순, 30년 만에 가이아나 최초의 개립교회 대학인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 대학이 파루이마에서 정식으로 개교했다.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신중하게 선발한 헌신된 초창기 학생들은 7개의 다른 정글 마을에서 왔다. 4명의 외국인 교수들과 3명의 현지 직원들은 젊은 선교사 지원자들에게 견실한 그리스도인 교육을 하는데 무임봉사로 자신들을 헌신했다. 모든 학생은 오전에는 노작을, 그리고 오후 4시간은 수업을 할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식사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글 마을 출신이었고, 베네수엘라 출신의 학생들은 산을 넘어 장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었다. 학부모들이 매 주 음식을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선교사들은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가 잠에서 깬 때, 전에 카마랑 마을 이장인 노마 토마스란 여자를 만났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마을을 발전시키는 원주민들의 노동에 대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비정부 단체인 ‘SIMAP’의 지역 대표자이기도 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방문했다. 그가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게이즈 씨, 지난주에 노르웨이에서 여러 종류의 식량이 100톤 이상 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양식을 나눠줄 프로젝트를 지정하느라 정신이 없죠. 우리 단체에서 당신의 학교 농장이 수확을 내기 전까지 첫째 동안 이것을 주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식량과 파루이 마까지 식량을 수송할 전세기 비용을 요청하겠습니다.”

약속된 공급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학교의 식량이 떨어졌다. 학생들과 직원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기도했다. 그 날 걱정된 부모들이 식량을 카누로 싣고 왔다. 이 헌신한 부모들이 아니었다면 학생들은 배고픔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그 다음 주에 식량 600킬로를 실은 비행기가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개교 첫째 데이비드는 거의 1,000시간을 비행했다. 이는 날씨가 나뻐던 며칠과 응급 환자 수송 및 예배를 위한 비행만을 한 안식일을 제외하고, 비행한 날들 중 하루 평균 5~8시간을 비행했다는 말이 된다. 어떤 날은 하루에 17시간을 비행하기도 했다. 밤이 되면 그는 지쳐서 잠이 들곤 했다.

그 많은 연료비용은 누가 지불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소형 비행기를 이용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을까? 많은 마을들은 재림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어느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재림교인 방문자들이 마을을 떠날 때까지 돌을 던졌다. 데이비드가 그 마을에 환자 수송을 위해 착륙했을 때도 동일한 적대감을 감지했다. 하루는 마을의 웨슬리교파 교회 목사가 비행기 근처로 다가왔다.

이륙하기 전에 데이비드는 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 말입니까?”

“네. 당신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소.” 그가 확인해 주었다.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서 게이즈 형제와 비행기, 그리고 환자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목사는 정기적으로 왔고, 데이비드는 그때마다 목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후에는 할렐루야 교회 목사가 접근해 왔다. 데이비드는 그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지속적인 접촉은 점점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데이비드는 이 적대감이 있던 마을의 마을 의회와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곳에 비디오 시리즈를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NET '95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원주민이기도 한 우리 성경 교사가 비디오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 그리고 발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강사인 마크 핀리 목사가 성경 진리들을 멋진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5주 동안 이 복음전도 설교 시리즈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을 사람들은 데이비드에게 돌을 던졌을 것이지만, 이제 마을 의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후에 웨슬리교파 교회 목사가 손을 들어 말했다.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의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매일 밤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였다. 비디오시리즈가 마치던 날, 모인 인원의 3분의 1이 침례를 받았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웨슬리교파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목사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목사가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언젠가 비디오 프로젝터를 빌려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존중, 사랑, 친절, 그리고 비행기의 의료봉사를 사용하여 문을 여셨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에 베키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기회들과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고, 정말 로마서 4장 21절에 바울이 말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란 말씀에 동감해요.”

밤에 일어난 일

몇 주 후 데이비드와 큰딸 케이티가 긴 ‘할 일’ 목록을 들고 조지타운으로 갔다. 일을 마치고 그들은 가이아나 합회 사무실로 가서 여러 시간 동안 그간 온 이메일에 답장을 했다. 해가 지고 나서 그들은 택시를 타고 그날 밤 목을 예정이었던 데이비스 메모리얼 병원으로 향했다.

“기사 양반,” 데이비드가 말했다. “병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가게에서 내려 주시오. 저녁에 먹을 것을 좀 사야합니다.”

데이비드는 음식이 든 봉투를 팔에 든 채 그의 서류 가방을 꼭 붙잡고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병원을 향해 서둘렀다. 그는 전에도 그 길을 여러 번 지난 적이 있었으나 그날은 웬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의 천사가 그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전에도 본 적이 있는 세 젊은이가 그의 앞쪽으로부터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지나는 행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걸음을 재촉하며 데이비드는 뒤를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

을 따라오고 있지 않았다.

모퉁이를 돌자 병원의 불빛이 보였고 안심한 데이비드가 케이티에게 말했다. “병원 정문까지는 불과 15m 남았어.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한 천사들을 인하여 감사드린다. 아빠는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란 약속을 좋아한단다.”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곤봉이 데이비드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누군가 케이티를 뒤에서 잡아 머리를 내리쳤고 케이티는 비명을 질렀다. 데이비드는 누군가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빼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가방을 든 손에 힘을 더 꽉 쥐었다. 가게에서 산 음식이 쏟아져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첫 번째 남자가 한손으로 케이티를 잡고 다른 손에는 나무 곤봉을 들고 있었다. 데이비드의 오른쪽 얼굴에 곤봉세례가 가해졌다. 그는 그 중 한 남자가 그들이 걸으며 봤던 자임을 알아봤다. 케이티가 계속 비명을 질렀다. 자유로운 손으로 데이비드는 딸의 발을 꽉 잡았다. 그는 케이티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음을 느끼고 병원의 경비들 중 누군가 듣기를 바라며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의 서류가방을 뺏는 것이 불가능하자 두 번째 남자가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는 어두운 밤거리를 걷기 전에 주머니를 비워 두었다. 바로 그 때 차 한 대가 지나가며 그들에게 불을 비췄다. 강도들이 즉시 사라졌다. 병원 경비 두 사람과 간호사 몇 명이 소동을 듣고 달려왔다.

“케이츠 박사님이었군요. 죄송해요.” ‘박사’란 호칭은 데이비드가 트리니다드의 캐러비안 재림 대학에서 가르칠 때 붙여졌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케이티를 안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경찰

에 신고했다. 경찰들이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데이비드가 머리에 느끼던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라라박사가 의료 서식을 기입했다.

“저희와 함께 가셔서 음식을 구입한 가게와 사건이 일어난 길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지요.”

경찰차가 정문에 다다랐을 때 한 블록 떨어진 그 길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있는 세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을 가리키며 데이비드가 속삭였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한 사람들입니다.”

재빨리 차를 멈추고 경찰은 그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다. 더 잘 보이는 곳에서 데이비드는 셋 중 둘을 가해자로 확인했다. 그들은 개입을 부인했지만 데이비드는 일어난 일에 대해 완벽하게 진술을 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풀려났고 나머지 둘은 수감되었다.

“무척 피곤하고 몸이 안 좋습니다. 벌써 새벽 1시예요. 눈 좀 붙이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조사할게 더 있으니 따님과 함께 와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데이비드와 케이티는 차 불빛에 비친 강도들을 봤던 경비와 함께 택시로 경찰서에 갔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앉아 있는 방으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들어갔다. 가이아나 법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를 만져서 그가 가해자임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이 절차는 케이티를 두렵게 했고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녀

는 울기 시작했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는 딸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드렸다.

경찰이 데이비드가 방으로 들어와 딸을 도울 수 있게 허락했다. 몇 분 뒤 케이티는 평정을 되찾고 진술을 마치고 서명하였다.

경찰서에서의 일을 마치고 그들은 주스가게에 들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파인애플과 체리주스를 마시고 나서야 원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아빠, 왜 천사들이 어젯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케이티가 물었다.

“딸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상실을 허락하신다. 너의 질문에 대한 이유를 답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거야. 우리가 곤봉으로 머리를 맞고 명이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거나 버렸다는 것은 아니란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렘 17:14).

정글 마을에서의 날들



데이비드와 베키는 열대지방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병인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에 늘 놓여 있었다. 이 끔찍한 병은 카이칸에서 거의 유행병이 되었다. 더 복잡한 사실은 정확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환자가 말라리아의 대표적인 두 종류 중 어느 것에 걸린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은 클로로퀸(말라리아 특효약의 일종)이나 프리마퀸에 반응하지만 더 심하고 종종 치명적인 말라리아 병원충의 변종 타입은 퀴닌과 다른 약품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자정쯤 그들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다.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잉그리드가 다시 구토를 해요.”

“바로 갈게요.” 베키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모녀는 바지를 입고 뱀에 물리지 않도록 신발을 신었다.

새로 이사 온 주민인 에롤과 그의 내연의 처인 잉그리드는 한 살배기 타이자와 2개월 된 니콜레타 등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들은 몇 달 전 에롤의 누나이자 세 아이의 부모인 루시타와 그녀의 남편 프리맨과 함께 살기 위해 카이칸 마을로 이사를 왔다. 그들은 모두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잉그리드는 심각한 말라리아에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 아파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조차 없었다. 곧 어린 타이자가 전염되었고 루시타의 남편인 프리맨도 말라리아에 걸렸다. 프리맨은 말라리아에 걸리기 전부터 여러 달 병을 앓고 있던 상태였다. 그가 너무 쇠약해지고 황달에 걸려 데이비드는 그를 조지타운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었다. 이제 프리맨은 재발하여 한기에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다.

여러 환자로 인해 루시타의 작은 집은 병원 같았다. 잉그리드는 계속해서 토했고 어린 타이자는 열이 펄펄 끓었다. 잉그리드가 약을 삼킬 수 없었으므로 베키와 그녀의 어머니 패티는 정맥주사를 놔다.

다음날 아침 잉그리드는 좀 나아 보였다. 그러나 프리맨은 너무 약해져 있어 활주로까지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무도 데이비드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므로 남자 둘이 긴 막대기에 그물침대를 걸어 프리맨을 활주로 근처의 보건소로 옮겼다. 데이비드가 너무 늦게 돌아와 그날 밤 프리맨을 조지타운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1지역 보건소장인 플로렌시아 피터스가 그가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었고 루시타가 그날 밤 남편을 간호했다. 에롤은 집에 남아 잉그리드와 아이들을 돌봤다.

잉그리드가 다시 토하기 시작하자 에롤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 멀지 않은 데이비드의 집으로 달려갔다. 손전등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는 길을 따라 뱀을 밟지 않고 무사히 그곳까지 갔다.

베키의 어머니가 에롤과 함께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잉그리드가 주사를 맞기 위해 돌아누우며 신음했다. “너무 아파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데이비드는 프리맨을 조지타운으로 데려갔다. 한 시간쯤 후 베키가 잉그리드를 검사했다. 그녀가 토하지 않았으므로 베키는 그녀에게 알약을 주었다. 잉그리드는 평소보다 더 졸린 듯 보였다.

카이칸에 돌고 있는 말라리아 환자들 때문에 데이비드는 보건국 직원을 데려와 모두의 혈액을 표본하게 했다. 보건국 직원이 베키와 그녀의 어머니와 그들의 집 근처 망고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루시타의 아들이 달려왔다. 얼마 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두려움이 베키의 마음을 뚫고 지나갔다. 샌들을 찾을 겨를도 없이 그는 맨발로 뛰며 기도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뒤를 따라왔다. 사람들이 문을 에워싸고 있다가 베키를 보자 들어가게 비켜주었다. 에롤은 실성한 듯 울었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여보, 제발 죽지 마. 당신이 낫기만 하면 정식으로 결혼합시다.”

“생명징후나 혈색은 괜찮아.” 베키의 어머니가 속삭였다. 언뜻 보니 잉그리드는 혼수상태에 그물침대에 누워있었다. 에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베키가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잉그리드를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즉시 동의했다. 기도하는 동안 그는 평정을 되찾았다.

베키는 집으로 되돌아가서 긴급무전을 쳤다. “여보, 프리맨을 병원에 내려주자마자 돌아와야겠어요. 여기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또 있어요.” 두시간 반 후 베키는 활주소에 데이비드의 비행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에롤과 또 다른 한 남자가 장대에 그물침대를 매달았다. 링거를 손

에 들고 그들은 비행기로 향했다. बे키는 우산으로 잉그리드의 창백한 얼굴을 가려주었다. 데이비드는 조수석을 끝까지 뒤로 밀어내고 에를을 접이식 보조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맨 후, 바닥에 침낭을 깔았다. 그들은 잉그리드의 머리를 에를의 무릎에 누이고 조수석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데이비드는 링거병을 천장 걸이에 묶었다.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비행기 주위에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치유의 능력을 구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베키는 한 친구에게 무전을 쳐 비행기를 맞이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가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딸들과 함께 오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루시타가 집에 와서 아기들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잉그리드의 두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았다.

금요일 저녁 일몰 직전 비행기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기뻐했다. 안식일 예배를 위해 모이자 베키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작은 비행기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귀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저희 또한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도우며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신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이틀 후 잉그리드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무전이 왔다. 그러나 에를은 여전히 말라리아로 인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악한 천사들은 선교사들을 겨냥하여 연속적으로 문제를 계획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데이비드와 베키는 주민들에게 추수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주민들을 따라 정글을 헤쳐 가며 데이비드가 그의 날카로운 마세티를 휘둘렀다. 갑자기 그는 칼로 그의 무릎을 찔고 청바지가 뚫어졌다. 결국 그는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같은 날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온 학생 선교사이며 데이비드를 도

와 가이아나까지 비행기를 몰고 왔던 리프가 강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날카로운 것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마가 깊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얼마 안 가 테드가 끌로 목제품을 만드는데 옹이에 걸렸다. 끌은 미끄러져서 그의 왼쪽 손가락 두 개를 베고 지나갔다. 다친 손가락 중 하나는 이미 알 수 없는 것에 물려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다. 원래보다 두 배 크기로 부어오른 손가락은 항생연고를 바르고 수치료를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3일째 되던 날 빨간 줄이 팔에 생겼다. 3주 후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피부는 여전히 푸르뎅뎅했다. 또다시 몇 주가 지나서야 손가락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현지인들은 전갈이나 지네 혹은 독거미가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일어났다. 리프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져서 걷고 있었다. 언덕을 오르는데 회색 천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것을 치워야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뱀인 것 같아. 누군가를 놀라게 할 거야.’ 그는 천을 집어 들고 길옆으로 몇 자국 걸어가 그것을 던졌다. 샌들만 신고 있던 그는 풀숲에 숨어 있던 살무사를 밟고 말았다.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졌다.

리프의 비명소리를 듣고 테드가 달려와 즉시 상처부위를 빨기 시작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집으로 가서 숯가루와 지혈기로 사용하도록 봉대를 가져왔다. 어른들이 리프를 업어 집으로 옮겼다.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것이 틀림없다. 며칠 전 테드는 친구가 보내준 인터넷 뉴스에서 뱀 물린 데를 치료하는데 전기 요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읽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그것을 말했고 그들은 꽤 오래 그것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에 읽었던 것을 생각하며 테드는 휘발유 사용 제조기의 점화장치에 전선을 연결하고 리프의 물린 부위

를 시작으로 시간이 흐르며 점점 부위를 넓혀가며 15분 간격으로 소량의 전기 충격을 가했다.

가이아나에서는 향사독소(뱀독을 다른 동물 체내에 반복 주사하여 얻어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솟치료는 그들이 유일하게 해 줄 수 있는 치료였다. 리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솟반죽을 발라주면 고통이 경감되었다. 통증이 되돌아오면 그들은 새 솟반죽을 대주었고 통증은 가라앉았다. 그날 밤 반복해서 그들은 솟습포를 붙여주었다.

리프가 독사에 물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곧 교회의 절반이 먼저 리프 주위로 모여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리프의 생명을 건지실 것을 기도드렸다. 리프를 치료하는 저녁 동안 사람들이 네 마리의 뱀을 더 잡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보다 위대하시다.

안식일 아침 리프는 물린 발에 약간의 통증만을 느끼며 걸을 수 있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살무사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고통과 붓기가 그 후로 여러 달 지속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리프의 다리는 붓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활력과 힘,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재빠른 치료를 하도록 하셨다. 천연요법은 전에 보지 못한 현저히 빠른 회복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단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교활하고 노련한 사냥꾼이 카이칸의 개들에게 몰래 다가오기 시작했다. 단기간 동안 이 킬러 재규어는 개 19마리를 죽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협받았다. 지극히 대담하게도 이 동물은 집 안 부엌까지 들어가 애완견을 발로 강타하여 무력화시켜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했다. 어느 날 학교에 일찍 도착한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뛰어 나오는 재규어를 목격했다. 그곳에서 밤을 보냈던 것이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아이들이 위협에 처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이 재규어에게 반쯤 먹힌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들은 총을 소지한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

“재규어를 잡겠습니다.” 경찰이 약속했다. “그 개를 가져가서 근처 나무 뒤에 잠복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저를 도와 줄 한 분이 필요합니다.”

둘은 하루 종일 잠복소에서 기다렸다. 저녁 6시 경 주민들은 총성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몇 초 뒤에 총성이 한 번 더 울렸다. 누군가가 달려왔다.

“재규어가 죽었어요. 와서 보세요. 정말 큰 재규어예요.”

아이들은 뱀에 물리지 않게 부츠와 긴 바지를 입고 손전등을 든 채 부모님과 함께 그 동물을 보기 위해 서둘렀다.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의 재규어는 이빨이 무디어져 큰 동물들을 사냥하기가 불가능했다. 주민들이 재규어의 가죽을 벗겨 그 시체를 죽지 않고 살아남은 개들에게 주었다. 며칠 뒤 밤에 또 다른 재규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죽은 것의 짝이나 새끼의 소리였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는 재규어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며칠 후 남자 몇 명이 성인 남자 허벅지 두께의 길이가 3m되는 왕뱀을 가져왔다. 그것은 사람이 곁에 오면 몸을 부풀리고 불길한 고음의 소리를 냈다. 그들은 ‘왕뱀’을 베키의 세탁데이블에 묶었다. 베키는 뱀을 옮길 때까지 빨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데이비드가 조지타운의 동물원에 가져가기 위해 뱀을 자루에 넣어 비행기의 수화물 칸에 집어넣었다.

베키는 걱정이 되었다. “여보, 조종하는데 뱀이 나와서 당신을 물

면 어떡해요?”

데이비드가 다가와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이 ‘조종사 남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에 기뻐요. 뱀은 두 겹의 자루에 넣었고 자루 꼭대기에 밧줄 하나를 더 묶었어요. 나의 천사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조지타운에 갈 때 데이비드는 병원 의료 책임자인 페이 휘팅-젠슨과 그녀의 남편인 스티브의 집에 머물렀다. 그 날 데이비드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뱀이 든 자루를 현관에 놔두고 한 시간 가량 불일을 보기 위해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 왔다. 스티브와 병원의 외과의사인 아르세니오 곤잘레스 박사가 막대기를 들고 소파 위에 서서 뱀을 막고 있었다.

“‘왕뱀’ 씨가 나왔군. 동물원에 가져다 주려는 참입니다.” 데이비드가 외쳤다. 그는 몸을 숙여 뱀의 머리를 잡아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런 거였군요. 우리는 어떻게 저리 큰 뱀이 계단을 올라와 현관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한 남자가 카이칸에 있는 데이비드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밤에 아라우 마을에서부터 7시간을 정글을 헤쳐 걸어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덟 살짜리 다니엘이 뱀에 물려 무척 아파하고 있어요.”

“그곳에 활주로가 완성된 게 다행입니다.” 데이비드가 비행기를 향해 뛰며 말했다. 정글로 걸어서 7시간 걸린 것이 비행기로 단 7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소년이 누워있는 집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다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보자 데이비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또한 아이의 잇몸에 출혈이 시작된 것을 발견했다. 아이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낮아 보였다.

데이비드는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다. 그는 아이가 카마랑의 국립 병원으로 후송되는 동안에도 계속 기도했다. 병원에는 약이 없었지만 비행기로 다니엘을 즉시 조지타운으로 데려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린 다니엘은 살아나 아라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붓기가 빠지지 않고 상처 부위가 아직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다시 아이를 옮겼다. 이번에는 베키의 자상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카이칸으로 데려갔다. 베키는 그의 발을 물에 담그고 항균성 크림을 두껍게 발라 붓대를 감아주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마침내 아이의 발은 정상을 되찾았다.

베키는 자주 하늘 조력자에게 감사를 드렸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치유능력은 이 정글 마을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희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 (시편 103:3)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다

2주 동안 데이비드는 가이아나 보건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임시 비행기 운항 허가증은 1997년 10월 31일부로 만료될 것이었다. 그는 지역복지국장을 방문했고 가이아나 내륙의 의료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의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내륙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3일 안에 보건부에 추천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매일 그의 비서에게 전화를 하고 보건부를 방문한 결과 의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히려 데이비드와 가이아나 연합회 교육부장이면서 조지타운에서 데이비드의 항공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그의 친구 윈스턴 제임스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추천장을 받을 때까지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할 것 같네.” 윈스턴

이 다소 실망스런 말투로 말했다.

“윈스턴, 민간항공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게. 어쩌면 그가 이해하고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게 허락할 수도 있어.” 데이비드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지난 2주간 우리가 하늘을 향해 올린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을 취하셨다고 믿네. 강력한 하늘 군대를 그분의 사업에 투입하셨으리라 확신해. 그분께서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의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와 천사들...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시편 103:20,21)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 항공 프로그램은 그분의 것이네. 나는 그분이 선택한 해결방법을 신뢰하기로 했다네.”

다음 날은 10월 31일이었다. 데이비드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윈스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윈스턴의 목소리가 흥분에 차 있었다. “민간항공국장이 우리가 쏟아 부은 노력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운항을 계속하고 이것이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라고 용기를 주셨어. 심지어 ‘보건부에서 당신들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국무총리인 자넷 재건과 직접 면담 약속을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들의 사업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네.”

“국장에게 다음 주 미국에서 7명의 방문자들이 올 것이라는 것도 말했나? 방문자들이 아드라를 통해 내륙에서 건강과 교육 사업을 전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알렸나? 데이비스 기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미시간에서 온 의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나흘 동안 내륙에서 의료 봉사를 할 것이란 것도 말했나?”

“모두 말했네. 그는 허가가 서류상으로는 오늘 만료되지만 계속 운항하라고 했네. 그는 자네가 방문자들을 내륙으로 안내하길 바라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수상이 우리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조만간 수상

과의 면담 신청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윈스턴,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을 훨씬 능가해. 수상은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할거야. 미래 가이아나를 이끌어갈 분이 우리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상상해봐.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야.”

11월 4일 새벽 3시, 7명의 방문객들이 도착했고 4시 30분에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몇 시간 후 아침식사를 마치고 데이비드는 은행에 가서 파루이마의 학교를 방문하기로 5명의 손님들을 태우고 갈 전세기 비용을 치를 수 있도록 수표를 현금화했다. 그런 다음 그는 택시를 타고 윈스턴 제임스를 만나기 위해 합회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미국에서 온 손님들의 내륙 여행 허가를 받으러 원주민 복지부 장관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윈스턴이 민간항공국장과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언뜻 들렸다. 특히 ‘비행기 운항을 못할..’ 등과 같은 말이 데이비드의 귀에 들어왔다. 보건부에서 보내주기로 했던 편지는 거의 백지화된 상태였다. 보건부의 추천장 없이 민간항공국장은 허가기항을 연장해 줄 수 없었다. 선교 비행기는 지상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내가 국장과 통화를 해보겠네.” 데이비드가 말했다. 윈스턴이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국장님께서 처한 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온 노력의 목적은 오늘을 위해 차근차근 쌓아온 것입니다. 이 손님들은 그동안 해온 사업을 조사하고 내륙에 사는 사람들에게 건강, 교육, 개선된 생활방식에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초청을 받아 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국제기구인 아드라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아드라는 우물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공업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제의

하는 사업은 아드라 본부로 보내져서 자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외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우리 비행기의 발목을 묶는 이 문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 베풀기를 반대하는 원수에 의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국장이 동의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말했다.

“손님들을 안내할 수 있게 허가증을 7일간 더 연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청을 교통위원회에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위원회를 말하다니 참 이상하군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 마침 위원회가 오늘 오후 소집됩니다.”

데이비드의 마음이 희망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국장님,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비행기 운항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위원회가 승인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국장이 답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위원회가 예외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필요할 거요.”

전화를 끊고 데이비드와 윈스턴은 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합회장 사무실에 모이도록 요청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비행기가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7일 연장보다 더 긴 기간

을 허락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손길을 펼칠 것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가 드러졌다. 평화가 모두의 마음을 채웠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데이비드가 말했다. “전세기가 여러분을 내륙으로 데려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압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 여러분과 합류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데이비드와 윈스턴은 수상 집무실로 가서 면담 신청을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원주민 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내륙의 원주민 기관장들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우호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보건부 장관과 민간항공국장에게 건강 및 교육 사업을 승인하는 편지를 쓸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여행 허가를 해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윈스턴과 데이비드는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오후 3시 45분경 그들은 민간항공국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막 위원회 회의에서 돌아온 길이였다. “행운의 여신이 당신들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주었소. 오랜 토론 끝에 우리는 허가를 10일간 연장해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경영하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그분께서 국장님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이륙시키며 데이비드와 윈스턴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

왔어.” 윈스턴이 크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소형 비행기로 방문자들이 원주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몇몇의 외딴 지역들이 도움을 받았다. 아라우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필요했는데 아드라에서 학교 건축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드라는 또한 파루이마의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 대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학교에 자원봉사 노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식량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수년간의 건강 복지와 교육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친절이 이전에는 재림교회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마을에 친밀한 우정을 발전시켰다.

10일의 운항허가기간이 만료되어갈 쯤 데이비드는 카이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이아나 육군 방위 부대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았다. 19명의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그들의 혈액 표본을 카마랑으로 가져가 각 군인에게 적절한 약품을 정할 수 있도록 현미경 분석을 하게 했다. 4번의 추가 운항으로 여러 마을의 심각한 증세의 환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피곤하지만 축복을 체험하며 데이비드는 그 달 거의 100시간을 비행했다.

건기에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 데이비드가 후송시킨 한 환자는 오염된 물 때문에 장티푸스에 걸렸다. 데이비드는 앞으로 마실 깨끗한 물을 공급할 아드라의 우물 사업으로 인해 감사했다.

그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또 다른 축복인 질병예방을 생각했다. 이 쉽지만은 않은 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현대 기술의 영사기, VCR, 소형 발전기,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사용할 것이었다. 건강 교육 비디오가 영어로 제작되어 있긴 하지만 지방 언어로 통역을 하면 마을 전체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아드라 방문자들을 다시 조지타운으로 데려다 준 후 데이비드는 베키와 함께 미지의 일들을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곰곰이 생각했다. 1년 전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아무 자금 없이 불확실한 미래로 발자국을 내딛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집, 균형 잡힌 식사, 소형 비행기 한 대, 비행기 운항 허가증과 자금, 외딴 마을에 가설된 활주로들, 기적적으로 더해지는 비용 지불 자금, 산업 대학 등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딸들이 미국의 훌륭한 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도록 신뢰를 받으실 만한가? 절대적으로 그렇다.

열흘간의 운항 허가증 만료는 너무도 빨리 다가왔다.

“여보, 우리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데이비드가 베키를 팔로 안으며 말했다. “여보, 난 며칠 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허가증이 만료되어서 비행기는 조지타운 공항에 세워두어야 하는데 그동안 비행기 정비를 맡기려고 해. 그리고 나는 가이아나 아드라 지부장 자격으로 재해대책과 관련된 일주일 기간의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요청 받았어.”

“어디서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베키가 물었다.

“엔티가(서인도 제도 동부 리워드 제도 중부의 한 섬) 섬이야. 카리브 해, 서인도 제도, 그리고 프랑스령 앤티리스 연합회 소속의 아드라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돼.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싫지만 무전으로 연락할게.”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데이비드는 베키와 매일 두 번 무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태양열 전지 충전기와 휴대용 배터리를 사용했다. 가

이아나의 깊은 정글에서 베키는 혼자서 심각한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마을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약품이 떨어져가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베키에게 연락을 하자 그녀가 말했다. “여보, 돌아오세요, 가족의 절반이 집을 떠나 있으니 외로워요. 간호사가 아닌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가이아나에 도착하자마자 데이비드는 민간항공국장에게 연락을 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장관께서 추가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비행기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베키에게 빨리 가기를 원한 데이비드는 윈스턴과 철야기도를 했다. “여기 강력한 약속이 있어. 들어보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대하 20:12, 15)

여전히 데이비드는 매일 민간 항공국에 갔지만, 매번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란 무심한 답변만 들을 뿐이었다.

베키와의 무선 교신은 그를 더 염려하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제 오후 아라우 마을 이장이 7시간을 걸어서 카이칸에 왔어요. 현지인 선교사들을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품을 얻으러 왔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적절히 치료할 약을 주지 못하는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어요. 당신이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이비드는 시대의 소망 330쪽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고난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되뇌었다.

다음 날 데이비드와 윈스턴은 비행기에 작업할 것이 있어 공항으로 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주님,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데이비드의 머릿속에 확실히 밝혀지기 시작했다.

“확장 준비야! 윈스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전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몇 년간 성경 교사들과 의료 봉사자들을 요청한 새 지역에도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데이비드, 그렇게 하려면 더 큰 비행기가 필요하고 가이어나 내륙에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걸세. 또 누가 두 번째 비행기를 조종할 건가?”

“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네. 그게 바로 이 모든 계획의 묘미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그동안 늘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면 자동적으로 필요한 자금이나 자원은 들어오게 되네. 멋지지 않은가? 믿음의 전진이 요단강 경험이 되고 그것은 이 전투가 주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란 확신을 갖게 해주네.”

주의 영으로 압도되어 데이비드는 차를 세웠다. 둘은 머리를 숙였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당신의 손에 드리나이다. 일이 잘 처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금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윈스턴이 덧붙였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마치 요단 강변에 서서 물속으로 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데이비드는 근거리 여객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의 계획을 설명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전무이사님과 직접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데이비드가 요청했다.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여객기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의 제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조종사 경력도 첨부하십시오.” 데이비드는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공항에서 그는 여객기 회사의 수석 조종사를 찾아갔다. “좋은 아이디어요.” 데이비드의 설명을 듣더니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날 데이비드는 회사로 와서 전무이사와 총지배인과 면담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데이비드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당신이 시행하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카리브 해 연안과 해외에서 쌓은 비행 경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조종사로 세스나 206 기종을 조종할 수 있도록 보험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데이비드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당신의 가

이어나 상업 조종사 자격증이 파이퍼 세네카 기종 등급이라니 더 관심이 갑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에 세네카 기종 비행기가 한 대 있지만 자격 있는 조종사가 부족해 운항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끔 국제 비행에 세네카 기종을 조종해 준다면 당신이 요청한 세스나 206호 기종을 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수석 조종사와 함께 세스나 206호기로 카이칸까지 시험 비행하는 비용은 당신이 지불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세네카 기종을 비행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의 제안을 요약하며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제가 아무 제한 없이 의료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지 비행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회사의 임시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 어디든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수석 조종사에게 비행계획을 승인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내륙으로 안내하는 것이 훨씬 쉽고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데이비드는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가 처한 현실로 되돌아왔다. 1월의 필요자금이 미국으로부터 이미 왔고 그는 그 돈을 파루이마의 학교 건축에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에게는 세스나 206호 시험비행을 위한 임대료를 낼 만큼의 돈이 없었다. ‘어떻게 하죠, 주님?’ 그가 생각했다. 그 때 시편 46장 10절의 약속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금 부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

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할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쏟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기쁘게 일요일로 시험비행일자를 잡겠습니다.’

그는 그 날 내륙에 4명의 선교 봉사 인원을 태우고 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들은 바로 그의 큰 딸인 케이티와 학생 선교사인 줄리, 그리고 파루이마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오는 프랑스인 부부였다. 앞으로 3주간 정규자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그는 그 주에 재정 적자를 피할 만큼의 새로운 자금이 필요했다.

“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주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상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온 것을 먼저 읽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젯밤 이곳 일리노이 주 마리온의 우리 교회 재무인 헬렌 피셔가 휴가를 떠나게 되어 현재 들어온 자금을 조금 이리지만 가이어나 후원계좌로 입금했다고 연락을 해왔다.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바란다.

경의에 찬 데이비드는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가 시험비행일정을 결정한지 한 시간도 채 안되어 한 달 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다시 한 번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1,2).”

데이비드가 잠시 멈춘 다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무리 요구를 많이 해도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소형 의료 비행기가 여전히 지상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 비행기 없이 정글의 계획된 복음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십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후송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그 비행기 없이 내륙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옵니다.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압니다.”



뜻밖의 일들과 질병

보건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그는 전 장관이 해주지 않은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신임 장관을 만나러 가며 데이비드와 윈스턴은 하나님께 장관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먼저 그들은 지역개발장관을 만났다. 보자마자 윈스턴은 그를 알아봤다. 그들은 어릴 때 같이 자란 사이였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용기가 되었다.

“나는 내륙 발전에 관심이 많네. 자네 프로젝트에 내가 완전히 지지하는 것을 믿어도 좋네.”

보건부 장관은 어릴 때 재림교인이었으나 여러해 전 종교에 등을 돌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기도를 드린 후 장관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았다. 그의 불친절한 목소리는 그가 성가시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제 장관회의에서 당신들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로 동의를 했지만 무엇에 관한 일인지는 모르겠소.”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륙에서 하는 일은 장관께서 담당하시는 보건부와 협력관계를 발전 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방 접종이나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불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관께서 저희를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 또 가이아나의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돕는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미소를 짓고 좀 누그러지는 듯 보였다. “당신들은 우리 무선 주파를 사용하시오?” 그가 물었다.

“아닙니다. 아직 정식 허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장관이 노트에 뭔가를 적는 것을 보았다.

“당신들 사무실과 비행기가 지역 병원과 담당부서와 직접 교신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서를 보내주겠소. 내가 이미 민간항공국장에게 나의 후원의사를 밝혔소.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내게 알리시오.”

완전히 바뀐 장관의 태도에 감격한 데이비드가 물었다. “하나님께 장관님의 지도력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장관이 허락했다.

몇 시간 후에 민간 항공국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허가증이 갱신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와서 허가증을 찾아가세요. 당신 비행기가 외국 등록증을 갖고 있으므로 3개월짜리 허가증으로 운항해야 하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쁨으로 데이비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카이칸의 집으로 날아갔다. 그는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때 얻는 축복들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이아나 현지에 등록된 4인용 비행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야 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베키가 성경을 펴며 말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엡 3:20~21)

비행기를 다시 운항한다는 소문이 마을들에 퍼졌다. 외딴 지역에서 비행기의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가 빠르게 증가했다. 브라질 국경 근처의 필리피 마을에는 과거에 재림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돌보지 않은 교회는 파손되었고 이제 마을 주민들은 적대감으로 두 개의 다른 종파에 속해 있었다. 가뭄과 강을 통한 운송력 부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나홀이 더 걸렸다. 데이비드가 비행기로 세 명의 환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을 때, 한 때 적대감으로 가득 찼던 마을 주민들과 이장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제가 비디오 장비를 가져오면 건강과 예수의 생애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의 뒤에서 여러 목소리가 외쳤다.

데이비드가 비디오를 보여줄 때 지역 목회자가 방문을 했다. 분리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5주짜리 NET '95 복음전도 시리즈를 상영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응하여 필리피 사람들은 전 것보다 크게 교회를 재건축했다.

이미 몇 명의 재림교인이 있는 파루이마와 와라마동 마을에서도 NET '95 시리즈 상영 요청을 했다. 파루이마에서 총 65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고 와라마동에서도 파루이마의 뒤를 따랐다. 필리피와 치노윙에는 재림신도가 몇 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의료 봉사를 하며 지역을 돌면서 그 마을들의 복음전도 사업을 하는 팀들에게 발전기용 연료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아라우는 마을로 승격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졸랐다. 3명의 자원봉사자인 가이아나인 비벌리 고렛과 데이비드의 큰 딸 케이티, 그리고 학생 선교사인 케이티의 친한 친구인 줄리 크리스트만에 의해 학교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나이트 주민들이 와서 간청했다. “우리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소원이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학교에 가도 될까요?”

“미안합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공간도 없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르칠 만한 교사진도 없어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못해 괴로웠던 데이비드와 베키는 좋은 방안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공부를 하고 성경교사로 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태양열로 가동하는 작은 지역 TV 방송국을 세우는 거야. 100와트 정도의 전력이면 근방 15마일이 커버되니까 마자루니 강 상류지역의 여덟 마을 중 서너곳의 마을에 방송이 가능할 거야. 마을 전체가 공동 출자해서 태양 배전판(계기판)과 충전기, 그리고 TV 한 대를 구입해서 모두 와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예요. 다른 채널 없이 우리 기독교 방송만 보게 하면 사단은 이 게임에서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를 거예요.” 베키가 웃으며 말했다. “주민들은 지방 방언과 영어로 된 자연, 건강, 그리고 종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 운영 허가는 어디서 받아요?”

“정부에게서 받지. 사무엘 힌즈 국무총리에게서. 그분을 방문해서 보좌관에게 자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어.”

보좌관이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마을 지도자들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당신의 제안은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그는 카이칸 주변 지역 8개 마을의 종교지도자 및 이장들과 회의를 했다. 그는 TV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신중하게 들었다.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시면 이 종이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성공회 신부가 먼저 일어나서 펜을 잡고 말했다. “재림교회 텔레비전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내가 1번으로 서명하고 싶소.”

그를 시작으로 다른 목사들도 서명했다. 곧 교사들과 마을 이장들도 동참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데이비드는 서명서를 들고 국무총리실을 다시 찾았다. 그는 만장일치의 승인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의료 및 교육 사업의 영향이 신뢰를 쌓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았다. 서명자들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는 이 TV 방송국이 데이비드 게이츠나 그가 인정하는 사람에 의해 운영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허락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축복들 가운데 사단도 그의 증오심을 ‘모기’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해 행동으로 나타냈다. 카이칸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 마을에서도 말라리아가 돌기 시작했다. 3주 동안 3번이나 데이비드의 가족은 고열, 오한, 두통, 그리고 매스꺼움으로 침대를 나오지 못했다. 데이비드가 말라리아 병원충 변종에서 회복하자 이번에는 베키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온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렸다. 데이비드는 즉시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걸렸다. 약을 복용하고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베키가 다시 아팠다. 마을의 모든 집이 이런 식으로 고생을 했다. 한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아팠다.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

말라리아 검역관 두 명이 카이칸에 와서 3주간 머물며 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나 감염된 가족들에 의해 다른 가족들이 재감염되는 게 반복되었다. 데이비드는 아드라에 비상 자금을 요청했다. 환자들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1회 복용으로 여러 타입의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메플로킨이라는 비싸지만 효과적인 치료제를 택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아드라가 자금을 승인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동시에 약을 복용할 수 있었다. 또 예방조치 차원에서 보건부에서 약품 처리된 그물침대용 모기장을 두 번 보내왔다.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재료를 지원하여 그물침대용 모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원주민 복지부는 데이비드에게 살충제 분무기와 살충제를 벽에 붙게 하는 식물성 기름을 주어 가옥에 뿌리게 했다. 살충제를 분사하자 바퀴벌레, 벌레들, 그리고 모기들이 죽어 떨어졌다. 매일 사람들은 바닥과 테이블 위에 벌레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망을 되찾은 사람들은 이 3중의 노력이 심각한 말라리아의 흉조를 박멸하게 될 것을 기도했다.

데이비드는 아라우 마을로 날아가 주민 대부분이 말라리아에 걸렸음을 발견했다. 이 전염은 끝이 날까? 데이비스 메모리얼 병원의 의료 책임자인 페이 파이팅-젠슨 박사가 데이비드와 아라우로 가 주민들의 치료를 직접 감독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아라우는 이후 말라리아로 보고 된 환자가 없는 유일한 마을이 되었다.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쏟은 관심은 많은 이들의 영적 성장에도 결과를 가져왔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바쁘게 만들고 있어. 얼마 후면 3개월 기한의 비행기 허가증이 만료돼. 그 때면 더 많은 자원자들이 내륙에서의 사업을 위해 도착할 거야.” 그가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당신께서 적당한 때에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쁨

을 안겨주길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6월 11일에 데이비드는 민간 항공국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행기 허가증이 3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기쁨을 베키와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언급했다.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들에게 항공 정비사와 전문 조종사로 자원하도록 이끄실 때 그들이 표준작업량으로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그분의 시간에 보내주실 거예요.” 베키가 그를 확신시켰다. 그녀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하늘 대기실에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 대학의 부채를 모두 갚았으니 난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다음 주면 종교 센터와 도서관 건물 기공을 하잖아요.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 말이 옳아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이아나를 향한 계획 내에 있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 보이실 때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지. 하나님의 다음 일정은 무엇일지 궁금해.”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심



조지타운에서 돌아온 데이비드는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비탈진 길을 뛰어 집에 도착한 그는 문턱에 올라서기도 전에 아내를 불렀다. “여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나는 일을 다시 벌이고 계셔!”

베키가 계단을 내려와 그를 포옹과 입맞춤으로 맞아주었다. “듣고 있으니깐 넘어지기 전에 앉아요.”

“카마랑 활주로 옆에 있는 민간항공 소유의 관제탑 기억나? 민간항공에서 우리에게 텔레비전 방송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게 탑의 한 공간을 임대해 준대.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마랑의 TV 방송국 인가를 내줄 것을 요청하도록 수상과 면담을 하라는 인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상이 약속시간보다 45분 늦게 왔어. 경비가 우리를 금속 스캐너로 조사하고 무기를 소지했는지 확인했어. 그리고는 마침내 윈스턴과 나를 수상 집무실로 안내해 주었지. 수상이 화난 얼굴로 책상 옆에 서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얼굴도 들지 않은 채 그는 언성을 높이며 물었어. ‘용건이 뭐가?’ 세 차례 같은 질문을 했는데 매번 언성을 높였지. 우리는 그가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

“그래서 내가 ‘수상각하를 만나게 된 특권을 인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감히 말을 건넸지. 그랬더니 그가 ‘딴 얘기는 말고 여기 온 목적을 말하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윈스턴에게 속삭였어. ‘자네가 수상과 이야기를 하게. 그 동안 나는 기도를 할게.’ 마침내 수상이 얼굴을 들고 의자를 가리키면서 앉으라고 하더군.”

“그가 갑자기 우리 둘 사이로 걸어오더니 경비에게 이민국장을 들여보내라고 외쳤어. 그 짧은 몇 초간 우리는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가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부디 개입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수상의 거친 태도를 바꾸어 주소서.’”

“굉장한 접견이었네요.” 베키가 평했다.

“이민국장이 들어와서 윈스턴을 보더니 국적이 뭐냐고 물었어.”

“가이아나인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며 ‘당신의 국적은?’ 하고 물었어.”

“그래서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국장이 ‘현재의 신분은 무엇이요?’ 하고 물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수상의 것과 같았어.”

“가이아나에 온지 2년이 되갑니다. 1년짜리 노동비자로 입국했고 현재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수상에게 말했다. ‘각하, 부인께서 아라우의 화재로 전소되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집을 수리해 주는 일을 저희와 함께 해오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니 둘 다 잠잠해지더군.”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이 그 방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쓰신게 틀림없군요.” 베키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마치 누군가 불을 끈 것 같았어. 수상이 자리에 앉아 손에 머리를 묻고는 적어도 1분간 미동하지 않고 앉아있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어.” ‘당신들이 오늘 나를 방문하러 온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이 들었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는 방금 전과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거지. 그 때부터 우리 네 사람은 가이아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륙과 내륙에서의 필요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어. 또 어떤 종류의 TV 방송국이 그 지역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말이야. 그들은 기술면에 대한 염려를 언급 했는데 내가 가이아나에서 일하면서 겪은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니 관심을 보였어. 마치 오랜 친구들 넷이 모여 얘기하는 것 같았어.”

“태도가 그렇게 바뀌다니 정말 기적이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악한 천사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수상이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베키가 물었다.

“응. 농담도 하시고 카마랑 강을 따라 와라마동과 파루이마로 이어진 카누 여행에서 생긴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배꼽을 잡았지. 나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정부 기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일해왔는지 강조했다. 그리고 의료 후송 서비스는 종파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왔다고 말했어. 모든 사람이 의료 지원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약 45분간 대화를 나누었어.”

“그분들이 TV 방송국에 지원을 하신대요?” 베키가 물었다.

“그래. 두 분 모두 허가와 지원을 해줄 것을 확인해 주셨어. 다음 날 보좌관 회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일 답을 드리겠소’ 라고 말해주었지.”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러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책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싸시며 그들의 일에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어. 고마워하더군.”

“여보, 당신의 그 경험이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말해주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빨리 가이아나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우리가 주파관리과에 연락을 했더니 직원이 ‘수상이 방금 전화하셨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TV 방송국 허가서를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브라질 국경 근처 마을인 레템에 또 다른 방송국을 설립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어. 가이아나 유일의 종교 방송국으로써 이 방송 선교를 통해 수천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거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베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보, 더 할 말이 있어.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전자 공학 엔지니어인 댄 픽이 방송국 설립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이끄셨어. 댄이 NET '98 전도회를 위해 위성 접시 두 개를 통관 수속을 밟는 동안 기술관련 설명이 필요해서 주파관리과에 들렀다가 정부에서 방송국 허가 승인 착수 사항이 전달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

“놀랍네요. 가이아나의 행정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요.”

“더 들어봐. 정부에서 ‘채널 7’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채널이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제철일 안식일을 가리키는 숫자 7의 상징성도 있고 말야.”

“10월에 시작하는 NET '98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조지타운 어디에 위성접시들을 설치할 거예요?”

“넌이 설치하기 위해 올거야. 하나는 윈스턴이 출석하는 스머나 교회에 달고 나머지 하나는 린텐의 교회에 설치할거야. 두 교회 다 NET '98 전도회의 지상현장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집집방문으로 많은 구도자들을 확보했고, 스머나 교회는 참석자들을 위해 대형 천막을 준비했어. 하나님의 영께서 NET '98 위성 전도회를 통해 이 지역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때부터 데이비드는 카이칸 주변의 8개 마을에 의료 및 개발 지원을 하며 빡빡한 비행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필리피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없는 사이 마을의 8명의 주민이 말라리아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과루이마 학교의 두 번째 건물에 필요한 목재를 자르는데 사용되는 기계톱에 필요한 연료와 기름을 비행기로 날랐다. 카마랑 TV 방송국 건물의 건축이 시작되는 대로 사용될 목재들이 열을 맞추어 가지런히 쌓여 준비되어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 그에게는 벌목꾼들에게 지불할 돈이 7월 한 달 분량뿐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8월과 9월에 지급할 임금은 어디서 올 것인가? 과거에 늘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실 것이었다. 그는 기도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희생의 필요성

데이비드가 급히 미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출발날짜가 다가왔다. 기부금이 들어왔지만 필요한 금액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다. 펜을 들고 그는 부채내역을 적어 보았다. 8, 9월 급료 1,500달러, 비행기 연료 1,000달러, 카마랑의 TV 방송국의 지붕과 건축자재 비용 1,500달러, 보조 NET '98 전도회를 위한 위성접시 및 수신기 비용 1,000달러가 필요했다.

다시 한 번 그는 하늘의 재정가에게 향했다. “하나님, 또 곤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2,000달러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000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당장 1,000달러가 들어오면 급료와 자재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나 위성 수신기 비용 지불을 할 때까지 며칠의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이 목요일 아침이고 금요일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일요일 밤에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 상황의 긴박함은 주님께는 큰 기회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방에 현금을 넣어주셔서 비상 자금을 충당했던 적이 있는 데이비드는 수종의 2,000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은행도 없고 수천달러의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백마일 정글 속에 위치한 카이칸으로 날아갔다. 그는 그가 자는 동안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추가로 필요한 2,000달러를 그의 가방에 넣어주심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

카이칸에 도착한 직후 한 광부가 그에게 다가왔다.

“저를 조지타운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내가 많이 아픈데 가봐야 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요일까지는 조지타운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내일 카마랑으로 모셔다 드리겠소. 거기서 비행기를 타세요.”

그는 그날 밤 자금을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푹 쉬고 다음날 아침 기분 좋게 개인예배 시간을 시작했다. 그날 아침에 읽은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는 다시 한 번 그를 전율케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지난 밤 하나님께서 그의 가방에 ‘넣어두셨을’ 2,000달러를 인해 그분께 찬양을 돌렸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후 이제 증거를 확인할 시간이 왔다. 지난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200달러를 1,050달러로 바꾸어 놓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는 어제 그가 갖고 있던 2,000달러가 이제 4,000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돈을 세기 시작했다. “100, 200, 300, 400, 500, 1,000, 1,500, 2,000.” 설마해서 다시 세었지만 여전히 2,000달러뿐이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게 이번 달에 필요한

최소비용의 반밖에 없음을 아시겠습니까? 2,000달러를 어떤 수로 4,000달러로 만듭니까?”

당황하고 실망한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버리셨다고 느꼈다. 마음이 불편해진 그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천 가지 길)을 준비하셨다”(시대의 소망 330)고 하신 약속을 잊었다.

일 년 전 들었던 그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네게 있는 것을 써라.’ ‘그게 문제예요. 제게 돈이 없잖습니까!’ 그는 화가 나서 생각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익숙한 그는 멈추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눈이 침대 위 노트북 컴퓨터에 머물렀다.

‘지난주에 누군가가 네 컴퓨터를 2,000달러에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음성이 주장했다.

데이비드는 파루이마 학교에 새로 온 자원봉사 교사인 팸 니켈이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 그에게 하나 구입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들은 그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그녀가 그의 것을 사용하기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새 컴퓨터를 사기로 했었다. 팸은 동의하고 그에게 2,000달러를 주었다.

“하지만 하나님” 데이비드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5년간 노트북 컴퓨터를 여러 번 사고 팔았는데 컴퓨터를 판 돈으로는 새로 살 컴퓨터를 사는데만 사용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저는 컴퓨터 없이는 ‘활동 불가능’입니다. 이메일, 보고서, 디지털 사진, 웹페이지 개발, 자금 기록 등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 없이 어떻게 일

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데이비드의 마음에 반갑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일하는데 컴퓨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설마 지금 제게 컴퓨터 살 돈으로 급료를 지급하라는 건 아니죠? 컴퓨터 없이 저는 불구자처럼 무능력하게 될 겁니다. 제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뚜렷하게 명시해 주시지 않는 한 저는 이 ‘성스런 돈’을 컴퓨터 구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시 그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은 쓰라릴 때까지 드릴 의지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자금을 보내주도록 희생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을까?

그의 정신적 궁지에 추가하여 지난 여러 해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성경의 약속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갔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8).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 하시느니라’ (고후 9:7).

잠시 동안 데이비드의 마음속에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곧 굴복의 평화가 생겨났다. 무릎을 꿇은 채 그는 자신을 복종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이 듭니다. 컴퓨터 자금으로 비용을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 돈을 합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충분합니다. 컴퓨터는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게 컴퓨터를 주시기를 원하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실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요구받았을 때의 느낌이 드는 듯 했다. 그가 굴복하자 혼란스런 기분이 들었다. 그가 내린 결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왔으나 컴퓨터 없이 일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를 우울하게 했다.

즉시 그는 조지타운에 있는 은행으로 돌아가서 컴퓨터를 팔면서 받은 수표를 현금화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광부에게 즉시 활주로로 오라고 기별을 보냈다. 뭘 듯이 기뻐하며 그는 외쳤다. “어젯밤에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든 조지타운으로 가서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다니 놀라워요.”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바꾸셨소.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도록 하신 겁니다.”

조지타운에 도착해서 그들은 공항에서 함께 기도했고 데이비드는 광부에게 로저 모너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란 책을 한 권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데이비드의 상실의 느낌을 기쁨으로 대체하셨다. 그가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응답의 일부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경험을 그분의 사업을 위해 비슷한 희생을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건축자재를 구입한 후 급히 공항으로 갔다. 두 명의 환자들이 내륙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연료를 채우고 승객들의 좌석을 챙겨주었다. 그때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음을 생각했다. 이메일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전히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팸에게는 일요일에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공항 사무실로 가서 전화선을 연결하고 이

메일 계정을 열었다. 급하긴 했지만 그는 새로 도착한 18개의 메시지 제목들을 쭉 살폈다. 그 중 그의 아버지가 보낸 '자금'이란 제목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빠르게 읽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어젯밤 네 어머니와 내게 가이나나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의 긴급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주셨다. 그곳에서의 사업에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이 요구되지만 드리기로 했다. 네 통장에서 직접 현금화할 수 있도록 4,000달러짜리 수표를 보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개입하신 것이다. 이번에는 데이비드의 서류가방에 돈을 넣어주시지 않으셨다. 대신 그는 더 큰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은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부모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희생재단'에 놓도록 역사하셨다.

데이비드는 자신처럼 이제 그의 부모님에게도 여분의 현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희생하도록 부르심으로 둘 모두를 축복하셨다. 그는 그가 자신의 컴퓨터를 드렸을 때처럼 그의 부모님이 드린 실질적 희생으로 기쁨을 맛볼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눠줌으로 받게 하고 다음에는 더 베풀도록 이끈다.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원을 배가하신다.

비행기로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큰 축복을 느낍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드리도록 요구하실 만큼 저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주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것을

당신의 시간과 방법으로 마련해 주십니다. 언젠가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일하는 것의 특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일이 전 세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소중한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위해 스스로 공급하실 수 있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마음이 더욱 뜨거워진 데이비드는 곧장 4,000달러를 학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건축현장에 필요한 인부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미국에 도착하고도 그는 컴퓨터 없이 며칠을 보냈다. 그는 금단현상을 겪는 듯, 장애인인 된 듯, 별거벗은 것처럼 느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그는 중미지회장인 이스라엘 레이토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당신을 위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당신에게 위성 핸드폰을 한 대 사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며칠 뒤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가로질렀다. ‘어쩌면 지회장이 내가 핸드폰 말고 다른 것을 사고 싶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그는 지회장이 지회본부에 있지 않고 연례회의차 브라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보냈다.

“핸드폰을 사주신다는 친절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사도 괜찮겠습니까?”

답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영감이 되는 데이비드,

돈은 당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데이비드는 기쁘게 실행에 옮겼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판 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 컴퓨터로 그의 선물을 바꾸어 주셨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전적으로 희생할 수가 없다. 그분께서는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는 생각했다.

텔레비전 기적

데이비드는 방송에 대한 그의 관심을 일으킨 계기가 된 1993년도의 사건을 확실히 기억했다. 그가 테네시의 차타누가시에 있는 씨어즈 백화점의 TV 섹션을 지나고 있는데 테네시 칼리지데일 교회의 담임목사인 고든 비츠 목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TV에서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창인 스티븐 러프가 목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주제는 텍사스 와코에서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다윗과 본부’에 대한 정부의 포위공격을 다루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전 날 국영방송 라디오를 청취하던 중 방송에서 그 사이비 종교를 재림교회와 결부시키는 오보를 내보내는 것을 들었다. 대총회에서 재빠르게 그 상황을 바로 잡도록 움직였지만 그는 여전히 멍치끝에 느껴지는 무기력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잘못된 보도 때문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얼마나 빨리 일반 시청자들이 편견을 갖게 되는지 볼 수 있었다.

그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비츠 박사의 인터뷰를 보는 동안 꿈쩍할 수 없었다. ‘스티븐이 현재 TV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실 수 있으셨군.’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갑자기 인생을 뒤바꿀 만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위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이야. 위기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기는 이미 늦은 거야.’

그는 ‘주님, 제게 방송국을 설립할 기회를 제시해 주시면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 가이아나 최초의 TV 방송국 설립에 대한 수상의 지지에 고무된 데이비드는 수도인 조지타운에 방송국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노!’ 였다. 그는 몇 달 후 다시 물었다. 여전히 대답은 ‘안 된다’ 였다. 이유는 전과 같았다. “우리는 이 도시에 그런 종류의 방송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러자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하라’ 는 응답이 다시 왔다.

“제게는 NET ’98 전도회 테이프가 없습니다. 지상파 민간방송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가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얼마 후 미국에서 한 여자가 전화를 해왔다. “게이즈 씨, 당신은 지금 특별한 필요 때문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라는 인상을 주셨어요.”

데이비드가 답했다. “저는 좀처럼 제가 드리는 기도의 주제를 남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그런 인상을 주셨다면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곳의 교회에서 NET ’98 위성 전도회를 방영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지타운 전역에 이것을 방송하길 원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방

송국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방송국을 통해서 하려고 하던 차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가이아나에서 텔레비전은 쌉니다. 트리니다드에서 만 달러가 든다면 여기서는 3,000달러면 되죠.”

“정확히제게 있는 액수군요. 내일 3,000달러를 송금해드릴게요.”

데이비드는 ‘채널 13’ 에 연락하여 1999년 3월 19일부터 10주간 일주일에 3차례 NET ’98을 방영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미국에서는 전도회가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이메일을 보내 남은 성경, 책자, 광고 현수막, 봉투, 응답서, 성경공부 교재, 교과개요, 팸플릿 등을 요청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일리노이 주의 애나에 사시는 제 아버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가 제게 전송해 줄 것입니다”라고 부탁했다. 그가 받은 물건은 총 450킬로 정도가 되었다. 두 개의 화물용 깔판에 실린 물건들이 관세부와 없이 세관을 통과했다. 합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재료들을 공급받았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준비를 도왔다. 한 사모가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문의에 답변했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기도 팀과 방문자 환영 팀을 조직했다.

청년들은 집집방문을 하고 길거리로 나가 팸플릿을 배포했다. 일요일판 신문에 대형 광고를 신기도 했다. ‘채널 13’ 은 전도회가 진행되는 10주간 무료토막광고를 내보냈다. 하나님께서 라디오 광고 또한 축복하셔서 많은 청취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료책자에 대한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다.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 목사들, 각 종파의 기독교인들, 심지어 힌두

교와 이슬람교도들도 그동안 찾아온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부 요인들, 은행원, 상류층 사람들, 그리고 고학력자들이 무료책자와 성경공부 교재를 보내달라고 전화했다. 많은 이들이 물었다. “누가 이 시리즈를 후원합니까? 드와이트 넬슨(전도회 강사)의 스타일이 아주 맘에 들어요.”

대답은 “미국의 한 단체가 후원합니다” 였다.

조지타운에 있는 재림교회들은 강사가 안식일 주제를 설교할 때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역 교회를 방문하라는 TV의 초청을 받아들인 많은 방문객들을 환영했다. 어느 오순절 교회 목사는 그가 배운 것에 큰 감명을 받고 말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목사였지만 안식일에 대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의 교회에서 성경 진리들을 제시했을 때 신도들은 재림교회 부흥사 오스먼드 뱀티스트를 초청해서 직접 안식일 기별을 전하게 하라고 요청했다. 그 목사와 교회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다.

NET '98 위성 전도회는 가이아나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방영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즈음 데이비드와 베키는 미국의 한 가까운 친구로부터 충격적이고 상처를 주는 이메일을 받았다. 편지는 비평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비평들이 사실일까? 하나님께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종종 가까운 친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사실일 수도 있는 이 비평들을 수용하기로 선택했다.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다. 데이비드가 기도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몇몇 사람들이 이 선교 사업을 시작한 많은 계획들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저희 또한 당신께서 저희 무릎에 안겨주신 많은 기회들로 인하여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며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이 모든 계획들을 저희 손에서 놓겠습니다. 실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합니다. 가이아나에서의 모든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키가 연하여 기도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재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갈 누군가를 찾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2년간 매 달 위험의 강도가 높아졌지만 매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나눠주면 줄수록 저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까요.”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주님, 올해 정구적으로 2년 전의 200달러 예산의 30~40배를 월별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했고, 저희는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 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371)라고 하신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베키는 “하나님, ‘우리가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45)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지 않으시면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결정을 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데이비드와 베키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헌신을 하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느꼈다.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이아나에서의 그들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줄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간원했다.

그날 밤 재림교회 목사인 커크 토머스가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했다. “나의 집주인이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채널 2’의 소유주인데 그의 부인이 NET ’98 위성 전도회 결과로 침례받기로 결심했어요. 어렸을 때 그녀와 그의 가족은 재림기별을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암튼 워싱턴 부부는 드와이트 넬슨 목사가 성경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당신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초청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 데이비드는 그들이 그에게 무료로 방송시간을 내주거나 저렴한 방송비용을 제안하리라고 희망했다. 토머스 목사는 데이비드가 워싱턴 부부와 이틀 후에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했다.

워싱턴 가족이 토머스 목사와 데이비드를 그들의 아름다운 저택으로 안내했다. 산들 바람이 부는 정원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데 워싱턴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채널 13’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잘 봤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재림교인이 되었고 저도 언젠가는 그럴 것입니다. 저는 본래 영적인 목적을 마음속에 갖고 방송국을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방송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당신들이 하는 아드라 활동, 항공 및 의료 사업, 그리고 내륙에서의 교육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사업도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당신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리 방송국의 50퍼센트의 소유권을 내어주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을 잃은 데이비드는 지난 일 년 간 조지타운에 방송국 설립 허가를 위해 쫓아 다녔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나를 섬겨라. 때가 되면 100퍼센트 운영 가능한 방송국을 네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을까?

워싱턴 씨가 계속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선교 사업을 이행하는데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요. 난 그저 방송국이 법, 정치 등과 같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지 않도록 돕는 일만 하겠소. 난 이 방송국이 계속 유지되어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부부는 그들을 방송국으로 데리고 갔다. “이층집과 손님용 방들이 있는데 스튜디오나 제작센터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확장할 재정전략은 무엇이었죠?”

“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후원’ 이죠. 모든 운영과 매달 필요한 자금이 있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라면 만족입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방송국을 그런 자세로 운영하십시오.”

데이비드는 이 놀라운 뉴스를 베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셨어. 우리가 이틀 전에 드린 기도를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업을 하도록 부르셨음을 재확인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TV 방송국을 주심으로 확증하셨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워싱턴 부부를 감동시키셔서 이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도록 모든 자산을 포함한 TV 방송국을 우리 손에 주셨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방송 사업을 이용하시려는 의도가 명백해.”

“하지만 누가 운영을 할 건데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능력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들이 필요

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성공에 대한 영예를 받으실 수 있는 과업이야. 이전에 품었던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한계를 잊어버려야 해.”

“와! 온 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많은 비용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이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한계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해. 우리는 앞에 있을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용기로써 전진해야 해요. 이 제안이 확정되기 전에 몇 차례 워싱턴 부부와 운영방안과 운영 및 확장 전략 등에 논의할 거야.”

“아마 지금 사단이 꽤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국을 사용 못하시도록 방해공작을 적극적으로 펼 거예요. 워싱턴 부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단은 의심이라는 그의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부를 사단의 책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하늘의 빛을 그 가족 위에 비취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모두에게 요청해야겠어요.”



한계는 없다



가이아나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소식이 카리브 해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에 퍼져 나갔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우들의 요청이 밀려들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한계가 없는 것처럼 전진할 시간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 데이비드가 베키에게 물었다.

“지혜를 구해야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국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부모님과 함께 성경공부와 기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녀가 제안했다.

데이비드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당면한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2인승 소형 비행기가 가이아나 서부에 선교비판을 놓는데 교두보 역할을 한 것 같이 카리브 해와 남미에서의 사업을 위해 더 빠르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비행기가 필요해요.”

여러 날을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중대한 재정결정을 위해 애썼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그들의 사업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마침내 평안이 깃들었다. 하나님께서 일리노이의 게이트가 소유의 농장 일부를 판 수익금으로 소형 쌍엔진 비행기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라는 인상을 주셨다. 늘 지지해준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인접한 땅의 일부도 팔아 비행기 구입에 돕기로 했다. 그들은 고립지역과 국가들을 오가며 직원들과 장비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했다. 데이비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적당한 비행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로버슨 고속 이착륙 장치가 설치되어있고 기수 부분이 수화물 칸으로 개조된 파이버 트윈 코만치 기종 한 대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 비행기가 그가 여러 해 전에 켄터키에서 소유했던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됐다. 협상을 했지만 계속해서 성사가 되지 않을 듯이 보였다. 한 번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은 미래를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떼어놓으신 비행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비행기를 사지 못하게 하옵소서.”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판매자는 “당신의 구입 조건을 받아들여졌습니다. 와서 살펴보고 시험비행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앤드류스 소형 비행장의 정비담당자인 브룩스 페인이 비행기를 시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날아갔다. 그들이 언급하는 모든 관련 항목들을 그 대규모 항공시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신속히 수리해 주었다.

비행기 구입의 결정은 곧 심각한 부채를 의미했다. “우리가 처음 비행기를 구입했을 때와 비슷한 결정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이 위험정도가 더 크긴 하지만요.” 데이비드가 그의 아버지에게 설

명했다. “이 비행기 가격의 75퍼센트를 용자 얻어야 해요. 저희 부부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유하는 확신과 평안이 아니었다면 절대 내딛지 않았을 일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절대 필요한 장비에 따르는 위험은 당신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대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채를 갚아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액수를 아시오니 어떻게 하셔야 할 줄 아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멋진 6인승 비행기를 미시간으로 가져가서 카마랑에 있는 TV 방송국에 필요한 방송장비를 실었다. 데이비드는 방송의 기술 분야 책임자로 자원한 덴 픽과 그의 아내 신시아, 그리고 어린 딸 한나와 함께 가이아나로 날아갔다.

워싱턴 부부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데이비드가 토론을 시작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한 운영철학을 재검토해도 되겠습니까? 방송국의 경영은 상업적 이익에 기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여러 설명을 듣고 데이비드는 그들이 그런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의지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원수는 ‘선교중심’ 대신 세상의 철학인 ‘이윤중심’으로 그들의 초점을 되돌려 놓았던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데이비드는 그들이 복음 전파에 마찰을 빚을 영리 목적의 프로그램들을 방영하도록 설득하리라 예상했다. 그는 돈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과 자원자들을 위해 지불되어야 할 임대료에서 오는 문제들이 보이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협약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말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리를 떠났

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시고 방송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일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울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계속되는 기도는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에 달렸습니다. 워싱턴 가족을 도우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리라 신뢰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철학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데이비드는 그가 일해 온 믿음의 철학을 3장에 걸쳐 열거한 서류를 준비했다. 그는 왜 이 사업을 위한 재정 투자가 선교 추구를 위함이며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지를 밝혔다. 그런 다음 워싱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오후 4시 30분에 만날 것을 약속했다. 하루 종일 그와 친구인 윈스턴은 함께 또 각자 하나님의 사업의 이익을 위하여 중재해 달라고 기도했다. 데이비드는 이 위기에 관해 ‘기도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심을 믿으며 편한 마음으로 워싱턴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한 에피소드에 직면하였다.

워싱턴 부부가 3장 분량의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두 사람은 속으로 계속 기도 드렸다. 워싱턴 씨는 읽어나가면서 밑줄을 치기도 하고 각 항목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부인이 읽기를 마치고 나서 설명했다. “지난 목요일 우리는 왜 방송국을 영리회사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지 말하려고 윈스턴 씨를 초대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수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급 봉사 직원들을 위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윈스턴 씨가 당신의 ‘믿음경영’의 경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기

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금요일 내내 나는 우리가 취한 입장이 거북하게 느껴졌어요. 직장에서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의 염려를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송국의 상업적 이권을 접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한 발짝 물러나 방송국 경영에 있어 ‘믿음 철학’을 수용하라고 인식시켜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TV 방송국을 믿음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약간 놀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마련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고 싶어요.”

워싱턴 씨가 덧붙였다. “또 건물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건물유지비만 내면 됩니다. 방송국은 온전히 선교목적을 위해서만 운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주실 지 지켜보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송국을 강하게 하시고 또 주변 도시들에 자동 중계 장치 사용으로 확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데이비드와 윈스턴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돌아갔다. “윈스턴, 계획이 전보다 더 확고한 헌신으로 제자리에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셨어. 성령께서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시지. 오, 기도의 능력이란! 주님을 위한 승전고를 하나 더 울렸네!”

캐러비안에 새 비행기를 가져오고 나서 몇 주 후, 데이비드와 덴 픽은 그레나다, 도미니카, 앤티가 섬, 토바고 등으로 날아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재림교회 TV 방송국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성장을 거듭한 TV 네트워크는 오늘날 캐러비안 패밀리 네트워크로 알려진 CFN의 모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확하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셔서 새 비행기의 용자 월별 납부에 곤란을 겪지 않게 하였고, 마침내 완전히 원금을 모두 치르게 하셨다. 가이아나에서의 사업을 시작했던 소형 비행기 세스나 150 기종을 팔아 새 비행기 빛의 반을 갚을 수 있었다.

데이비드가 TV 장비를 싣고 가이아나로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 비행기 좌측 엔진이 과열됐다. 그는 가장 가까운 테네시의 한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그곳에서 그는 엔진 연접봉 태핏 몇 개가 심각하게 닳기 시작해서 엔진이 꺾여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베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질이 생겼어요. 엔진을 새로 보수해야 할 것 같아. 다행인 건 비상사태가 그 작업을 해줄 수 있는 훌륭한 공항이 있는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수리하고 나면 전보다 훨씬 성능 좋은 엔진이 될거야. 수리가 끝나기 전에 오른쪽 엔진도 검사해서 태핏이 닳았는지 확인 할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소. 그분만이 미래를 아시니까.”

가이아나의 내륙에서는 북부 마자루니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다. 다섯 대의 비디오 영사기가 일 년 내내 마을들을 돌며 5주간의 전도회에 사용되었다. 근 2년을 쉼 새 없이 사용하고 열대지방에서 도보로, 뗏목으로 이동을 했지만 영사기 2대의 전구만 교체했을 뿐이다. 세 곳의 마을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다른 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계획했다.

가이아나에는 9개 지역이 있고 그 중 한 지역, 북부 마자루니 지역에서만 영사기 사용과 항공 지원이 된다. 그렇다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인접지역의 필요는 어떻게 할까? 마을 이장들이 와서 항공 의료 프로그램과 전도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비행기를 비롯한 정비 능력을 갖춘 전문 조종사와 의료 전문인들이 없는 탓에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었다. 슬픔에 가득 찬 데이비드는 말했다.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종교적 편협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

기가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일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오늘날 열린 기회들이 곧 사라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소서.”

TV 방송국들에 대한 재정적 도전은 비행기를 살 때의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소형 방송국의 건설과 두 번째로 조금 더 큰 방송국을 중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나타내셨다. 두 방송국을 통해 그분은 두 나라에서의 사업을 열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쌍발 비행기를 주셔서 새로운 지역들에 들어 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누가 와서 도와 줄 것인가?

절대적 확신으로 데이비드와 그의 자원봉사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축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께 머물렀다.

수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반응하도록 돕는 이 모든 발전은 사단을 성나고 절박하게 만들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실패한 사단은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경험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이 사업의 증가하는 성공에 위협을 느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모임에서 가이아나 합회에 데이비드 부부와 그들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를 끝낼 것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위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부르심이다. 데이비드와 가족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연합회와 지회 행정가들이 재빨리 중재에 나서 탄탄한 협력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준비했다. 여전히 지휘봉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셨다. 참석자들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연락과 협조를 위한 세부사항들을 수립했다.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내륙에서 발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방문할 날짜가 정해졌다. 그리하여 먼저 관찰한 후, 하나님의 사업의 각 단계를 배우도록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도자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의 때를 위해서조차 아직 성실치 못하고, 뜨겁지 못하고, 대담하지 못하고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

우는 사자

조지타운에 새로 시작된 TV 방송국에 기증된 비디오테이프와 전문장비를 신고 데이비드는 미국을 출발해 가이아나로 향했다. 겨울 한랭전선에 앞서 비행하며 그는 마이애미,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그레나다, 그리고 트리니다드 등지에서 밤을 보냈다. 그는 여행 내내 일리노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고주파 무선기로 연락을 취하였다. 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한 조직인 가이아나 채림 의료 항공 서비스(GAMAS)가 제한받지 않고 비행기들을 운행 가능하게 해줄 영구운영허가서를 내주도록 가이아나 정부를 감동시켜 주실 것을 계속해서 기도했다.

도착하자 윈스틴 제임스로부터 소식이 왔다. “하나님께서 가이아나에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계시네. 항공부에서 문서를 준비 중이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많은 기도들이 드려지고 있어.”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선지자와 왕 263)

데이비드가 가이아나에 없는 동안 하나님의 원수는 매우 활동적으로 계획을 꾸몄다. “거짓말의 아비”는 비호의적인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손상시킨다.

먼저 사단은 교묘하게 데이비드의 품성에 오명을 씌울 방법을 아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는 데이비드가 범죄적 행동을 했으며 또 이설을 가르친다고 비난했다. 그 다음으로 신문에 이런 비난들이 실린 기사가 났다. 세 번째로 비난자가 TV 방송국의 소유자인 워싱턴 부부를 찾아가서 데이비드의 부정적 평판을 구실로 그들의 지지를 거두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 자는 자신이 방송국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견해를 비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배하셨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계기로 워싱턴 부부가 그들이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전보다 더 확신했기 때문이다.

원수는 교묘히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방법으로 비행기와 TV 방송국의 법적 절차를 붕괴하고자 계획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들을 진행시키셨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데이비드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데이비드는 계획한 대로 3일간 가이아나 내륙을 비행하고 민간 비행기를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했다.

험악한 소문이 빠르게 번졌다. 데이비드가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을 때 특별 요원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질문을 퍼붓고 그의 짐을

검사했다. 2시간의 심문 후에 그는 데이비드의 리더십 하에 하나님께서 내륙에서 시작하신 프로젝트에 깊은 감동을 받는 듯 보였다. 그 날 이후로 데이비드와 특별 요원은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잠잠케 하셨을까? 이미 합의된 대로 데이비드는 가이아나 교회 합회 행정가들을 북부 마자루니 지역의 각 마을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아라우, 카마랑, 필리피, 카코, 와라마동, 파루마, 카이칸 등의 추장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꼭 들어찬 교회를 보았고 GAMAS의 도움으로 환자들이 무료 의료 간호를 받고 비행기로 후송되어 목숨을 건진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들은 몇몇의 교회 헌당식과 파루이마에 있는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 대학의 종교 및 도서관 건물의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여전히 흑자는 데이비드의 명예를 훼손시키려 큰 소리로 물었다. “헌금, 기부금으로 세워진 이 교회와 학교들의 주인은 누구요?”

권위 있는 한 추장은 데이비드가 주인이라고 하는 소문을 멈추게 할 만한 현명한 대답을 해 주었다. “건물이 학교든 교회든 모두 원주민들을 위해 세워졌고 소유권은 자금조달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인디언에게 있죠. 그러므로 이 나라의 법에 의해 이 모든 교회와 학교는 원주민의 재산입니다.” 곧 비난은 빠르게 수그러졌다.

방문자들은 마을들에서 비디오 영사기를 사용하여 NET '95와 NET '98 위성 전도회를 상영한 결과를 목격했다. 그들은 전년도보다 그 해 3개월간 더 많은 인디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을 보았다.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열심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성취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었다. 지역과 해외로부터 온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칭찬을 받았다.

합회 관계자들은 마을 추장과 지역 지도자들이 정부의 제한 없이 가이아나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GAMAS에게 영구 운영 허가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그리하여 무료 의료 간호 및 후송을 가능케 한 정책이 나라 전체에 걸쳐 효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사단이 맹렬한 노를 뺨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그 허가를 내주는 것이 곧 가이아나의 내륙에 복음을 신속히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임을 알았다.

방문자들은 “우리는 지체치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삼상 7:12)고 탄원하는 데이비드의 말에 수긍하였다.

데이비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제 사자의 울부짖음을 약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협력자들이 비난자의 흉악한 울부짖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했다.

하나님께 너무 힘든 것은 없다



어느 안식일 오후 데이비드와 베키는 카이칸에 있는 자신들의 집 현관 의자에 앉아 모처럼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즐겼다.

“당신 옆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보니 너무나도 평화롭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고는 베키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다. “카이칸에서 보내는 안식일이 기쁘고 감사해요. 당신이 노래에 맞춰 트럼펫을 부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빛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트럼펫을 이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집회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느낌이야. 우리가 올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작은 기회라도 저버리지 않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행되나 시험하셨어.”

“그러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잖아요. 매일 길을 여는 것이 그분이 할 일이고, 전

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상기시켜 주셔. 그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봐. 데이비스 인디언 산업 대학이나 성인을 위한 성경 교사 훈련 학교 문을 연지도 어느새 거의 3년이 됐어. 훈련학교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날을 기억해?”

“이야기 해줘요.”

“여덟 아이의 엄마인 35세 된 여인이 내게 와서 ‘저도 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 하지만 자리가 다 차서 받아줄 수 없었어. 그런데 계속 ‘저는 늘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이제 여기에 학교가 생겼는데 제발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애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성인 재림교인들을 위한 성경 교사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게 하신거지.”

베키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도할 자격 있는 교사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요.”

“70대 중반의 은퇴 의사인 쉬일라 로버슨 박사가 한 가지 요청을 달고 자원봉사자로 왔어. 그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외딴 마을로 데려가 주세요’ 였지. 그래서 필리피에서 비행기로 20분, 걸어서 4, 5일 거리의 장소로 데려다 주었어. 그리고 매일, 혹은 필요할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주었지. 그분은 그곳에서의 생활을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했지. 어느 날 잠깐 방문을 했는데 박사가 성인과 청년들을 위한 성경 교사 훈련학교를 열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을 나에게 말해주었어. 그들이 지역 방언을 말하고 또 원주민이기 때문에 마을을 들어가는데 정부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어. 나 또한 같은 꿈을 꿨지만 프로그램을 지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했지.”

“‘난 외지고 고립된 곳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시면서 ‘파루이마는 인구 600명의 꽤 큰 마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지도하길 원하시면 거절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더군.”

“졸업식 때 얼굴에서 의욕이 넘치던 9명의 원주민들이 기억나요.” 베키가 덧붙였다. “숙련된 합회 소속 성경 교사들의 지도 아래 두 명씩 나가 일하고, 그 중 7명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개척하고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쉬일라 박사를 통해 일 하셨어요.”

“자원 봉사자들 없이 우리의 사업은 불가능할 거야. 팀의 지도자와 관리자로써 그들은 각 장소를 발전시키고 있어. 하나님께서 적어도 올해 15명의 장기 자원 봉사자들, 특히 교사들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거야. 단기 자원 봉사자들도 큰 축복이 되는 것은 분명해.”

“당신 말이 옳아요.” 베키가 웃으며 말했다. “다코타 삼육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잘 했는지 큰 감동이었어요. 천사들만이 그들이 어른, 아이들 등 그곳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놀아 주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거예요. 세스나 206으로 총인원의 반을 이동시키는데 카이칸과 아라우를 몇 번 왕복했는지 궁금해요.”

“로렐브룩 고등학교(테네시 주)에서 온 팀은 베르비체 강 유역에 있는 김비아의 학교 건물을 짓는데 많은 일을 해주었어.”

“대총회 부회장인 필립 폴레트 목사님이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대학에 새로 설립한 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개관식을 인도하셨는데 원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 곧 그 지방에서 교육과 전도용으로 사용될 비디오를 그들의 방언으로 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대학의 새 건강 과학관 기공식과 카마랑

의 지방 TV 방송국 개관식에 인디언들이 왔는데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아직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송국이 세워졌고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

“그래요, 여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 세네루 마을에 들어간 성경 교사들인 실베스터 로버슨이나 그의 동료 제임스 에드윈을 생각해 보세요. 20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세천사의 기별을 자발적으로 듣고 있어요. 실베스터가 매주 성공회 신부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호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대요. 세바스찬 에드먼드와 레이 헤스팅스는 쿠페낭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대요. 6개월에 한 번 있는 졸업식에 새로운 성경 교사들이 배출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여러 마을들이 복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돈 문제를 조종하신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후로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예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급으로 가이아나 아드라의 책임자로 합회의 한 부분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을 내다 보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업의 성공의 일부는 확신과 지역 교회 행정가들과의 긴밀한 사업 관계에 있다고 확신해요. 조지타운 아드라 사무실을 책임지는 부책임자가 있어서 당신이 올해 6개의 새로운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 371페이지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란 약속은 정확해.”

며칠 후, 데이비드가 조지타운에 갔을 때 세스나 172 기종 한대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단발엔진 비행기가 매물로 나온 것은 그가 가이아나로 온 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현지 등록된 비행기를 소유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공항에서 정비 책임자가 그에게 급히 달려오더니 말했다. “저 비행기를 살 마음이 있다면 빨리 움직이세요. 벌써 2명이나 소유주와 항공 택시 회사 대표에게 그것을 살 의사를 전했어요.”

“경고해줘서 고맙소.” 데이비드가 공항 경사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면서 외쳤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나라에 등록된 비행기를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 해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려온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뛰면서 그는 최근 미국의 친구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라며 계좌에 돈을 넣어준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비행기 항공 택시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맞습니다, 게이즈 씨.” 그가 인정했다. “2명의 다른 사람들이 비행기를 사기 위해 매매 제의를 해왔습니다. 4시에 만납시다. 먼저 오는 자를 만족시키는 게 나의 철칙이요.” 이렇게 말하고 대표는 전화를 끊었다.

데이비드가 시계를 봤다. 30분 후면 은행 문이 닫힐 시간이었다. 택시를 잡으려고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사업은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복음 교역자 133).

15분 후 그의 목적지의 반을 가주겠다는 택시를 탈 수 있었다. 가면서 그는 시간 안에 다른 택시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주머니에 할부금의 첫 지불액을 가지고 사장의 사무실에 가기로 계획했다.

여전히 하나님께 이야기 하면서 그는 기도했다. “주님, 제가 일한 모든 곳에서 저를 금융상의 신용이 있게 축복하셨나이다. 저는 은행 직원들을 잘 압니다. 외국 은행에서 들어온 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큰 액수의 외국 수표를 현금화하려 하는데 오직 당신께서만 은행 직원을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빠르게 처리해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은행 창구로 다가가자 한 친절하 직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게이츠 씨.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이 개인 수표를 즉시 현금화해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녀는 수표를 잠시 보더니 말했다. “경영진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고 현금화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미화 만 달러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하고 급히 택시를 타러 나갔다. 공항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조용히 항공 택시 회사의 수석 조종사인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나는 이 약속에 첫 할부 지불금을 가지고 왔어. 부르는 것보다 5,000달러 적은 값을 부르게 되길 바라고 있어.”

그러나 다른 2명의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는 낮은 가격을 제의할 형편이 아님을 알았다. 즉시 수석 조종사는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게이츠 씨가 첫 할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비행기가 내륙에서 행해지는 의료 봉사에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은 잘 아는 사실이죠. 많은 원주민들이 게이츠 씨의 의료 후송 서비스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그의 낮은 가격을 받아들여주시라고 제안 드립니다.”

“게이츠 씨를 들여보내.” 사장이 대답했다.

데이비드가 사장실로 들어갔다. “사장님, 가이아나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비행기가 더 필요합니다. 비행기 할부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책상에 돈을 내려놓고 계속 말했다. “저는 부르는 값보다 5,000달러 낮은 가격을 제시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분들이 있으니 힘들겠죠.”

“당신의 제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게이츠 씨.” 사장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즉시 매도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겠소. 잔금은 내일 보내시오. 신속하게 움직이길 잘하셨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렸다면 비행기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요.”

사장은 그의 손을 내밀어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다. “헤아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GAMAS를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지난 4년간 가이아나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원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기회가 열릴 때마다 재빨리 행동을 취해 뛰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비행기의 판매가 가이아나의 안녕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이아나인들을 돕는 한 그것이 비록 원주민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사장 사무실에서 나와 그는 그의 하늘에 계신 재정 관리자와 이 모든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 한적한 장소에서 멈추었다. “하나님, 첫 할부 지불금을 비롯해 남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100퍼센트 용자를 받아서 해야 함을 아십니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아십니다. 오랜 친구에게 저 비행기를 사려고 돈을 빌렸을 때 90일 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중재 없이 필요한 지불액을 만들어 낼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의 의무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 비행기는 당신의 사업을 촉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 모든 것

을 당신의 지도하심에 내려놓고 재정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광대한 우주의 작은 부분인 이곳에서 당신과 협력자로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새 비행기 세스나 172로 일주일간의 짝찬 비행을 시작했다. 그는 연료와 지급품을 학생 선교사들에게 가져다주고, 자원 원주민 성경 교사들이 복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을에 데려다 주었다. 새 비행기로 여러 명의 환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심지어 조지타운에서 사망한 한 여인의 시신을 카마랑에 있는 자신의 마을에 장사지내도록 이송했다.

광대한 정글 상공을 비행할 때 평화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용솟음 쳤다. 아침에 읽은 말씀으로 기운이 북돋아진 그를 하나님께서 용기로 채우셨다.

“그대들은 각처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를 만날 때에 마음을 굳게 하여 그것들을 정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그대들을 정복할 것이다... 목적을 세우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결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속히 결정해야 한다”(복음교역자 133, 134).

이 지시에 일치하게 행동했다고 확신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들뜬 기대를 하며 기다렸다. 데이비드는 오래 지체하는 것이 천사들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구입한 비행기의 용자를 갚을 충분한 돈이 들어왔으며, 베네수엘라를 위한 새 비행기의 자금 또한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왜 베네수엘라가 선택되었는가? 1999년도에 카라카스(베네수엘라의 수도)에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진흙사태가 발생했을 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드라의 구호 물품들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의 성실함과 이재민을 돌보는 모습을 주시했다. 이제 문이 열렸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재림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데이비드에게 기별을 보냈다.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고립된 30개 지역의 이장들과 도움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와 주십시오. 가이아나의 원주민들이 강 건너편의 친구들에게 GAMAS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 지도자들은 베네수엘라에도 그들의 사람들을 위해 비슷한 사업을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가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지도하에 전진해야만 합니다.”

데이비드는 캐나다, 중미 지회, 캐리비안 연합회의 아드라 총책임자들과 만나서 베네수엘라를 위한 비행기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준비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는 또한 자원봉사 지도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섭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인 가이아나를 선택하셔서 큰 이웃 나라인 베네수엘라를 돕게 하신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가이아나에 돌아온 데이비드는 신이 나서 베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빨리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HF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녀와 교신하였다. “하나님 스스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양국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기 시작하셨어. 당신도 함께 가서 니르구아의 재림교회 대학에서 자원봉사를 향한 의욕을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첫 해를 교회 선교 사업에 자원봉사로 바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어. 이 착상이 세계적으로 있는 다른 우리 교회 대학들에도 퍼지면 어떻게 될까?”

“여보, 이 말씀을 들어봐요.” 베키가 응답했다. “그것에 대해 모세의 말보다 더 확실하게 말하는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재역사하심



2001년도는 거대한 문제라고 여겨질 만한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다. 습관적으로 가이아나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분의 해결은 기적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개역개정)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모든 면을 주관하심을 믿었다.

첫 번째 도전은 덴 픽 혼자서 방송국의 송신 장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면들을 담당하느라 애쓰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라디오 방송과 방송국 관리까지 맡고 있었다. 덴이 불평하지 않았지만 데이비드는 방송국 관리를 담당할 만한 젊은 캐러비안인 전문가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경영면에 있어 현지인 참여가 높아질 것이고 덴이 기술면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곧 왔다. 트리니다드에 있는 캐러비안 유니언 대학에서 데이비드의 학생이었던 에스더 세테노가 부름에 응했다. 앤

드류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트리니다드로 돌아가기 전에 아라우 마을에서 거의 1년 동안 선교 교사로 봉사했다. 조지타운에서 도움이 필요함을 직시한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돌아와 관리자로 봉사하도록 확실히 인도하심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기지와 능숙함은 단시간 내에 전 직원의 존경과 지지를 얻게 했다. 에스더는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의 TV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던 제키와 피터 아담스로부터 관리차원의 지원을 받았다. 언젠가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제키는 여러 번 가이아나에 와서 에스더가 없는 동안 임시로 관리를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응답하셨다.

데이비드도, 댄도, 하나님께서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대학에 발생한 위기를 해결할 자원봉사자를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지 못했다. 어느 금요일 아침, 데이비드는 활주로에 은퇴 목사 부부를 내려 주었다. 목사의 부인은 사서였는데 이 노부부는 대학의 첫 도서관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돕고, 성경 교사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주간을 인도하기 위해 자원해서 왔다. 금요일 오후 일몰 직전, 누군가 1950년대부터 우산(雨山: Rain Mountain)에서 내려오는 지역의 물 공급원인 샘이 흐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강물로 요리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또 목욕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미리 내다보셨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인 아드라의 자원봉사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호식이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기술을 제공하도록 마음먹게 하셨다. 물줄기가 멈추고 난 다음 일요일 아침 일찍 호식은 샘의 근원지인 커다란 바위까지 반마일의 가파른 등산로를 걸어 올라갔다. 그는 물탱크가 진흙과 이물질로 가득 차서 학교로 내려가는 관을 막히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과 함께 그는 플라스틱 물탱크를 깨끗이 비우고 들어 올린 다음 탱크를 물을 수 있도록 60cm 정도를 팠다. 그런 다음 그들은 콘크리트로 보호 독을 만들었다. 물이 괴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탱크에 물높이를 45cm

로 유지하게 했다.

호식은 가뭄이 드는 해에는 그 샘이 점점 커지는 학교에 충분치 못함을 깨달았다. 마을의 노인이 그에게 말했다. “이 샘에서 120m 정도 더 올라가면 큰 바위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은 폭포가 있는 물 근원이 하나 더 있어요.”

가능성이 있음에 흥분하여 호식은 학생들의 도움을 얻어 산 위로 시멘트를 가져가서 폭포 밑에 콘크리트 물 저장 통을 지었다. 이물질이나 작은 동물들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을 철판으로 덮고 4분의 3인치 길이의 검은 플라스틱 관을 연결했다. 정글의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들은 제 1 물 근원까지 15m의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제 물이 두 개의 근원에서 2인치 관을 통해 산기슭에 있는 4,000리터 크기의 물통으로 흘렀다. 예전에 이 물통은 학교 역사상 가득 찬 적이 없었으나, 물의 양과 압력의 증가로 5시간이면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되었다. 학생들은 도랑을 쳐서 넘치는 물을 학교 농장으로 흘러가게 했다. 많이 흐르는 물로 인해 교정의 모든 건물에 깨끗한 물을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셨다.

하늘로부터 온 기적의 선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데이비드는 그의 관심을 다른 매우 중요한 서류로 돌렸다. 첫 두 해는 GAMAS 비행기들을 임시 허가를 받아 조종했다. 그러다가 최후 통고가 날아왔다. “더 이상 임시 허가를 내줄 수 없소. 정부가 영구 허가를 내 줄때까지 비행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내륙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시간에 250달러를 내고 세스나 206 기종을 렌트하든지 한 시간에 350달러인 트윈 아일랜드 기종을 임차하는 것 밖에 없었다. 그것은 물품 조달을 위해 내륙으로 갈 때 한번에 850달러에서 1,200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의 염려를 친한 친구인 윈스턴 제임스에게 말하며 데이비드가

설명했다. “GAMAS가 공식적으로 영구적 항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이나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최근 있었던 국무총리의 파루이마, 그리고 대통령의 카마랑 방문은 우리의 허가 신청서를 제일 앞에 놓게 했어.” 윈스턴이 대답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지 않았었나?”

“그랬지. 합회 행정가들과 함께 2000년 10월 2일 오후 4시에 대통령을 만났어. 우리는 청원과 함께 하늘을 쇄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했지. 내륙에 있는 모든 교회가 특별 기도회와 금식을 하기로 했어. 오후 4시에 교회 종을 울리고 모든 주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면담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기도드렸어.”

“훌륭해!” 윈스턴이 대답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 (단 4:17)심을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면담에 대해 더 얘기해 주게.”

“우리는 대통령과 영향력 있는 인사수석인 론치언 박사에게 제시할 지난 4년간의 보고서를 컬러로 작성해서 준비했어. 내륙의 아동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적극 지원하는 영부인을 위해 벤 카슨의 책 ‘천혜의 손’도 주었어. 조지타운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위해 기도했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했지. 면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느꼈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도우셨거든.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훑어보신 후에 말했어. ‘이 사업이 많은 내륙의 여러 외딴 지역들을 크게 이롭게 할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즉시 GAMAS가 나라 전역에 항공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도록 승인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는 말씀을 체험했어.”

“그런데, 데이비드,” 윈스턴이 끼어들었다. “면담은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비행기 두 대는 여전히 공항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단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대통령이 하신 말을 방해하고 지연시켰어. 관료들이 사단의 계략에 협조해서 여러 정부 부처의 허가를 요구했어. 먼저 그들은 군 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 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동안 군 당국과 여러 차례 일하고 이익 되는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승인 되었어. 정부에서 곧 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연락이 왔어.”

“둘째로, 어떤 사람이 세스나 172 기종의 매도증의 용어를 더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고 불평했어. 즉시 우리는 24시간 이내로 그들을 만족시키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었어. 그런데 여러 주가 흘렀는데도 지체되어서 다시 전화를 했지.”

“세 번째 난관은 ‘GAMAS의 재림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해명하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들의 서류철에 있음을 상기시켜줬어. 한참 후에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고 만족한 듯 보였어.”

“‘이틀 후에 오시오. 그러면 허가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약속했지.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어. 사단이 이 ‘지연하기 게임’에 어떤 새로운 방해물을 던져 놓을지 모르고 말야. 우리가 들은 마지막 말은 승인 문서가 완성되었고 승인 절차를 위해 각료회의에 상정될 거라는 거였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세스나 172 기종이 등록되어야 하고, GAMAS의 이름으로 새로 증명서를 발급 받고 비행기의 적합성 증명

서가 재발급 되어야 한다는 거야.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지.”

3월 중순경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고 데이비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임시 운영 허가의 만기로 붉은색 소형 비행기는 여전히 지상에 묶인 채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거 11일 전 데이비드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침 말씀 연구시간에 마태복음 14장 24, 25절의 말씀을 주셨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평화가 데이비드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2001년 3월 8일 목요일 아침에 민간항공국장이 미소로 데이비드를 맞았다. “의회에서 GAMAS의 항공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보여준 당신의 인내심과 끈질김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소. 자, 가이아나 전역을 비행할 수 있는 허가증 받으세요.”

다음 안식일에 데이비드는 그 빨간 소형 비행기를 몰고 파루이마와 카이칸에 갔다.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환호하며 비행기를 두 겹으로 에워싸고 기도와 노래로 찬양을 돌렸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데이비드는 그의 감사의 마음을 그동안 이 일을 위해 기도해준 데이비스 인디언 대학의 친구들에게 표했다.

“비록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어려움들과 싸워야 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합

니다. 지난 5개월간 사단이 싸우고 지연시켜서 우리의 비행기들이 가이아나에 필요한 자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리 오래 지연되어야 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지루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 사흘 동안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잠시 방문하러 가기 전, 데이비드는 계속적으로 비행기를 하늘에서 내려가지 않게 했다. 자원 봉사자들에게 줄 물자들을 나르고, 환자들을 후송하고, 방문자들을 데려다 주고, 약품을 나르고, 가이아나의 제 7, 8 지역에 새 기계톱과 연료를 배달하며 건축의 진행을 진척시켰다.

목회자의 역할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태에 응해 어느 합회 목사가 GAMAS의 도움으로 내륙으로 가서 이들을 보냈다. 파루이마와 카이칸을 오가며 그는 장로 안수식을 인도하고 여덟 번의 결혼 주례를 섰다. 목회자가 그 지구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카이칸까지 걸은 25명의 사람들이 침례예식을 요청하여 4번의 침례식이 거행되었다. 교인들은 GAMAS 비행기들이 계속해서 내륙에 희망, 기쁨, 그리고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을 기뻐했다.

얼마 후 댄 픽이 데이비드에게 기술적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였고 새로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워싱턴 부부가 채널 2를 기증했을 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송국을 충전력으로 끌어 올리라는 거였어요. 송신 증폭기는 건설되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빨리 고쳐 작동시키지 않으면 3만 달러짜리 송신기 구입을 고려해야 할 거예요.”

갑자기 댄이 방송전자공학에 유능한 친구를 기억해 내고 그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다. 몇 주간 시간을 낼 수 있던 그 친구는 와서 최선을 다해 장비를 고쳤다. 곧 방송국은 완전가동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친구가 부품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갔다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 돌아와 변경된 증폭기를 시험한 후에는, 데이비드에게 새 송신기 구입할 것을 권하며 필요사항이 적힌 목록을 주었다. 다시 원점이었다.

방송국을 가동한지 18개월이 지난 후였지만 여전히 저압전력으로 송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 댄과 그의 가족은 댄이 추가적 방송기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시 귀국한 상태였다. 기대는 높았으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 위기는 하나님의 해결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후에는 전체에게 데이비드는 방송국 이사들과 그가 염려하는 바를 이야기했다. “새 송신기 구입을 위해 기적의 방책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방송의 기술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편성된 프로그램 일부분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모든 방송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엄숙하게 이사회는 이 취약점을 고백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새로운 방침 변화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내리실 것을 기도했다.

새로운 방침에 대해 대쟁투의 양 진영은 즉시 전시체제로 들어갔다. 다음 이틀 동안 데이비드가 국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외부세력이 방송국을 이사회 관리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다. 내부 재무 정보를 이용해 그 자들은 관리권 이양을 해야만 필요한 값비싼 송신기를 살 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현저한 우연의 일치로 데이비드는 모든 위기에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조종하고 계심을 보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방침에 마음이 편해진 데이비드는 담대하게 긴급히 필요되는 송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시라고 기도했다. 24시간 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부부가 데이비드에게 연락을 해왔다. 장비구입에 자신들의 은퇴자금을 드리겠다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데이비드의 귓전에 울렸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24).

서둘러 가이아나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매일 방송국 운영을 직접 감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송신기를 주신 사실은 방송사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성을 뚜렷이 회복시켜 주었다. 워싱턴 씨의 도움으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3ABN(미국 재림교회 자양 방송기관)과 AGCN에 연결할 새 위성장치를 설치했고 곧 세이프 TV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TV 방송국의 복음전도 사명에 조화를 이뤄 데이비드는 성경교사 팀을 구성해 방송국이 제공하는 서적들과 성경공부 자료들을 배포하는 일을 시작했다.

몇 달 전 데이비드는 베키에게 고백했었다. “우리가 GAMAS의 영구 운영 허가서를 받고 나면 또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 것에 비례해서 책임도 증가되었어. 난 이미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어. 장기봉사를 지원하는 비행조종사들과 지도자 자질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 없이 가이아나 내륙에서의 진척은 방해를 받을 거야.”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해 봐요. 방송국의 기술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댄 픽과 그의 가족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파루이마에 있는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대학에서 지도를 성실하게 책임지고 있는 쉬일라 박사도 생각해 봐요.”

데이비드가 그녀의 말을 뒤이었다. “마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지

자원자들이 훌륭히 일하고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대학은 테네시의 썬튼 재림교회 대학교에서 와서 모든 과목들을 가르치는 학생 선교사들 없이는 지속되지 못했을 거야. 그들 외에도 올 학년도를 돕기 위해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슬로바키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볼리비아, 오리건 주에서 1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왔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쏟았는지! 또 조지타운에는 훌륭한 비행기 정비팀이 있어. 지금 우리는 헌신하여 시간의 편의나 집, 가정, 그리고 나라를 희생하기로 마음먹고 GAMAS 팀에 합류할 오지 비행사가 필요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 가져갈거야. 그분께 어려움을 도전으로 지연되는 것을 신뢰와 인내를 개발할 시간으로 만드시도록 허락할 자원자들을 선택해 주시라고 요청할거야. 그분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해서 그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승리를 이룰 사람들을 감동시키실거야.” 대화를 마치고 베키는 성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그녀가 층계를 달려 내려와서 데이비드를 끌어안고 외쳤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어요. 모세가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자 주께서 그에게 70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민 11:17). 지금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릴 헌신된 조종사들과 땀 흘린 비행 일정을 도울 자원자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베키의 확신에 용기를 얻은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께 그들의 짐을 내려놓았다.

몇 주 후에 데이비드와 베키는 동문회 주말에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썬튼 대학교로 향했다. 데이비드는 썬튼 대학에서 그를 ‘올해의

동문’으로 뽑았다는 것을 몰랐다. 대학교회의 주 강사로 예정되어 있던 그는 집회장소가 중년과 은퇴한 나이의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빈 좌석이 없었다. 집회에 참석한 두 조종사, 오르빌 도네스키와 게리 로버츠가 데이비드의 설교에 의해 감명을 받았다.

게리는 항공 의료선교가정에서 자랐다. 현직 간호사로, 전문 조종사로, 정비사로 그는 의료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선교 프로그램으로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GAMAS가 바로 그가 그동안 찾아온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역시 간호사인 여성과 교제 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 내륙 지방의 불모지에 개척하도록 부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13년 전에 데이비드는 오르빌 도네스키의 형제 킨로이와 멕시코에서 비행을 함께했었다. 오르빌과 그의 아내 오달, 그리고 일곱 살 된 아들 앤드류와 세 살짜리 크리스티나도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이아나의 항공사업에 합류할지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권하고 계심을 느꼈다. 그렇게 하면 안정된 집과 테네시 주 칼리지데일의 맥키 제과 회사에서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기계 기사로써의 연구직을 포기해야함을 의미했다. 생활방식의 급변을 요구하는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게리와 오르빌 그리고 오르빌의 가족 모두 데이비드와 가이아나에서 2001년 대부분의 2월을 비행하면서 보냈는데 자비로 모든 것을 충당할 정도로 강한 책임을 느꼈다. 페루 푸갈과 항공기지의 클라이드 피터스의 초청으로 그들은 정글 생존에 관한 집중 훈련을 받았다. 오르빌과 게리는 돌아가면서 비행기(트윈 코만치 기종)를 밤새도록 조종해 브라질을 횡단했다. 그들은 볼리비아에 착륙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연료를 채웠다. 그들이 저녁 무렵 푸갈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이아나에서 항공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문을 여실 것을 알지 못했다.

페루 프로젝트의 조종사인 알베르토 마린이 그들을 맞으며 말했다. “이리 와서 우리의 첫 오지 비행기인 세스나 182 기종 ‘J. J. Aiken’ 을 보세요. 기어가 손상당한 후에 다시 조립하고 있는데 새 것보다 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른 비행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르빌이 데이비드에게 속삭였다. “저분이 지금 저와 제 아내가 가이아나를 위해 사용할 세스나 182 기종을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데이비드도 머리를 흔들며 속삭였다.

“그가 알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몰래 준비하신 것일까요?”

수일 이내로 가격이 책정되고 판매 승인이 났다. 양측 모두 비행기가 가이아나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계속해서 사용될 것에 대해 흥분되었다. 가격의 절반이 지불되었고 비행기가 인도된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오르빌과 게리는 2001년 여름에 GAMAS 자원 봉사팀에 합류하기로 했다. 데이비드와 베키는 일행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에게 팔을 두른 오르빌이 그의 마음을 열어 보였다. “우리는 이사야 30장 21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 을 의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쳐요. 떨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여 파루이마의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대학 근처 강변에 작은 집을 짓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항공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담

당하고 데이비스 인디언 실업대학의 운영을 돕게 된 것은 특권입니다. 머지않아 누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우기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나눌 기회를 인하여 대단히 기쁩니다.”

게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가이아나 방문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르셨다는 확신을 확언해 주었습니다. 저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르빌이 세스나 182 기종으로 자리를 잡은 제 7지역의 사업을 받들 것이고, 저는 새 고속 이착륙 장치를 가지고 지금 사용 중인 세스나 172 기종으로 제 8지역의 개척 사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원’의 원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들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기별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 무지한 귀한 인디언들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드는 예전에 로럴브룩 고등학교의 그룹을 인솔해서 베르비체 강 유역의 김비아에 새 학교를 짓는데 도움을 주었던 워렌 맥대니얼 2세로부터 전갈을 받았는데, 워렌과 그의 부인 조디가 그들의 자녀 9세 된 딸 테일러와 6세의 아들 워렌 3세와 함께 김비아에 지은 새 학교를 지도하는데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베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오르빌과 워렌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수입이 좋은 큰 회사에서의 관리직책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봉사자로 온 것은 내게 큰 용기가 되었어. 전적으로 전문직의 자원봉사 선교사가 되는 것은 화형대에 오르는 것과 비슷해. 과격한 희생에 매료되어 사람들은 구경 오지. 그러면서 그들은 ‘희생자’의 얼굴 전체에 쓰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목

격하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물들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베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뺨을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다. “이제 가이아나에서의 사업은 안정이 되어서 나는 CFN의 점점 커지는 필요사항에 관심을 갖게 됐어. 참, 그리고 성 루시아 출신의 길버트 프란코이스가 CFN 법인 총괄자로 일하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 그분께서는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도움을 마련해 주셨어.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도구일 뿐이야. 우리를 축복이 되게 하시도록 의지하며 주인의 사업에 기꺼이 자원할 도구들.”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데이비드는 큰 소리로 기도드렸다. “하늘 아버지, 저희의 눈은 당신께 향하나이다. 마음과 동기를 일으키는 당신만이 계속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감동시키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이생의 안락과 어쩌면 생명 자체를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할(롬 15:20)’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적들-비행기, 방송국, 학교, 의료전도사업-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TV로 복음을 접하는 도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중한 원주민들 또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끝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저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당신의 약속에 기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호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부록: 데이비드 게이츠와의 대화

Q. 데이비드, 선교사가 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A. 성공적인 선교 봉사에 가장 필요 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 사업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수반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선교봉사를 수행하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때 (당신을) 그분의 사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문제해결을 맡기도록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소명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장한 후 삶의 경험 속에서, 혹은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Q. 선교사가 되려면 특정한 성품이나 기술이 있어야 합니까?

A. 각 개인은 모두 여러 다른 관심사, 경향, 기질, 개성이 조합되어 태어납니다. 이것들은 자기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발되고 도야되어야

할 원료입니다. 모든 능력, 재능, 기술, 그리고 개성이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한 팀으로써 그들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울 수 있듯이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마 14:16)’고 하신 명백한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의 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취하시고 그분의 지령을 진척시키는데 족하게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 또한 이 원칙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한국을 예로 들어 당신이 이 나라에 매력을 느낀다고 합시다. 당신의 관심이 주께서 주신 선물이며 개발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당신은 이러한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당신의 의지를 굴복하고 당신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개입해 주시라고 청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불찬성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한편 당신은 한국문화에 관해 읽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일 년 간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한국에서 풀타임 선교사 혹은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알래스카에 있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을까요? 따라야 할 원칙-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능들을 취해 주님을 위해 개발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매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계속 걱정하면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

을 따르고 있는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한 그분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고 전진하고 밤에 편히 자면 됩니다.

Q. 교육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오늘날의 세상에서, 유연한 대처와 기회가 올 때 재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가능한 한 행정가의 수가 적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타고난 관심과 능력들을 인지하고 당신이 즐겨하고 능력이 있는 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제안합니다. 당신이 목적하는 분야의 종사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선교사가 되는데 있어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분야는 당신은 어느 정도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대신 여러 분야에 훈련을 받고 사업의 다양한 필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기술들을 연마하도록 하십시오. 사업의 최전선에서 팔방미인은 유용한 자원입니다. 전문성은 대학 관련 직업이나 박사학위가 필요한 과학자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분야에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전선에서 일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훈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일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 파악을 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음을 보며,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에는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받아들여도록 하십시오.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 지역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본인이 북미인이든 또 다른 나라 사람이든 한 나라를 받아들이면 자신

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이아나에 있을 때는 “우리 가이아나인은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가이아나인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내 나라처럼 받아들였고 그곳에 머무를 때는 내 나라인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들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영향력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 조종사들은 적어도 민간 조종사 자격증과 최소 500시간 비행 경험의 계기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계기 비행에는 1,200시간이 관례이지만 500시간은 최소치입니다. 항공정비 훈련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스스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이아나에서는 다른 사람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비를 할 수 있다면 비행기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겠지요.

조종사들은 그저 택시 운전사들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그들은 우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선교의 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간호사로, 조무사로, 혹은 어쩌면 응급처치요원으로써 의료 관련 훈련을 받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공예, 복음 전도 분야 등의 교육은 모두 조종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행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선교지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A. 선교지 선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마케도니아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지역으로 가라는 특별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심으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꿈을 꾸고 중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그 나라 언어를 좋아하고 중국을 향한 열정을 키웁니다. 어떤 이들은 남미로, 또 다른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한 개인이 갖게 되는 희망과 열정은 주께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점 1순위는 관심 지역이 어디인지 보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는 대륙, 지역, 나라를 확인하십시오. 자신을 그 나라의 역사, 지리, 문화, 그리고 언어와 친숙하게 만드십시오. 희망지역에 선교여행을 가세요. 그들의 ‘유산’ 아래 일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의 연대를 구축하세요.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로 1년간 일하는 것은 지인을 알게 되고 조성하는데 좋고 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 행정부와 교역자, 교회와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교인들을 알게 되면 결정을 내리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역 사업에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하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하게 되면 한 개인에게 그곳에서 일할 장소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Q. 재정적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A. 선교사로 일하는 데 있어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옳은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 유형은 재정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를 더 편하게 느낍니다. 유연하여 최소한도의 재정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의 계획들을 기꺼이 지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분께서는 개인을 안락한 삶 밖에 두셔서 미지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깜짝 놀랄 일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 원조가 전부 끊겨지는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래는 해

외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합회소속 사역 : 어떤 사람들은 예산이 편성된 해외 직책의 필요에 부합하는 직업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급직들은 대총회와 지회 총무부를 통해 조종됩니다. 이런 직책은 많지 않고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자양선교기관 : 이런 기관들은 선교사 지원자들을 위한 고정된 수당과 봉급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원자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관들은 교회 개척부터 기술분야 및 전문분야의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자급사역자 : 어떤 선교사 희망자들은 해외에서 일할 동안 개인적 경비를 부담할 충분한 개인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서 봉사하는 동안 자신들의 기술에 의지하여 직업을 구하여 재정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자신을 부양한 것처럼). 자금 공급원이 가족, 친구, 교회 교우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종종 한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을 전적으로 선교사나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원 : 격하고 스틸 있는 이 방법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족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데 전심을 쏟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입니다. 이 성경적 방법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빈손으로 두 명씩 파송하신 내용(마가복음 6:7~13, 누가복음 10:1~11)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단순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22:35에 보면 예수께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없었나이다' 였습니다.

오늘날 조지 물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이유는 그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으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4)

가장 황홀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현재 그들이 선택한 자금조달 계획에 상관없이 언젠가 모든 인간적 원조가 끊길 때 하나님의 후원 방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장 혹독한 시련이 될 것이고 많은 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멋진 원리 아래 살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그들 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대담하게 맞설 것이며 그런 신뢰의 공과를 처음 배우게 된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독자 중에 본인이 선교 사업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후원 원리를 경험하는 것이 '선택'인 이 때 이 책이 그 원리를 경험하도록 장려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1)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Q.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A. 우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영역 내 교회 사업을 운영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지역 지회나 합회, 그리고 연합회 행정부와 밀접한 사업관계를 조성하십시오.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당신이 어떤 도움을 줘야 최선일지 행정 지도자

들과 상의하십시오. 이름뿐인 사람이 아니라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문화적 또는 시각적 차이가 선교사와 현지 행정부 양쪽에 욕구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조언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현지의 평신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엘렌 화잇 부인의 권고와 본교 노동정책과 반대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하도록 하신 일을 포함해 자신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 스타일은 스트레스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당신이 신뢰하는 자들로부터 조언을 얻으십시오.

경영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한 부분은 재정입니다. 선교사로써 당신은 후원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교 프로젝트에 관한 재정정보는 자금투입을 하는 자들만 알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비후원자에게 기밀사항인 수입 출처와 재정정보를 제공하라는 압박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따금 연합회나 지회의 회계감사를 허락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것은 선교사업의 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면 어떤 나라들은 선교사들을 열렬히 환영하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의심과 적개심으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그들의 태도와 가치 기준을 배울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우도록 하십시오. 항상 정부관계자들을 각듯이 대하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포함합니다. 당신의 능력 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한 모든 법과 필요조건들을 따르십시오.

어떤 정치적 운동 조직이나 당에 연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느

쪽으로도 견해를 밝히지 마십시오. 사명을 띤 외국인 선교사로써 정치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Q. 본국의 가족과 후원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본국에 기도나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교회 가족이나 그룹이 있다면 선교지에서 도전과 진행 여부를 알리십시오. 어려움이나 좌절감을 겪는 것에 대해 솔직하십시오. 그러나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는 마십시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십시오.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면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면 찬양의 보고서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기록하는 대로 선교지에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고서에 전달하는 당신의 태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선교 현장에서 뛰고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테크놀로지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컴퓨터와 이메일은 연락하는 것을 쉽게 해줍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후원자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감사카드를 보내십시오. 현지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연 요청을 최대한 많이 수락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나눠 주면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척도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A.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지상에서 수행하는데 인간들을 조

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개성, 문화, 언어, 기술, 재능, 그리고 자원들을 그분의 손에 두어 그분의 지도 아래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께만 의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263쪽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서는 경영을 잘못하고, 자금을 오용하며, 비전이 부족하고, 이기심, 부주의, 게으름이 나타나고, 희생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고, 지나친 제재와 사랑 없는 태도가 있을 때 지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실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실과 비유연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합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시대의 소망 369쪽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내버려두실 것이다.’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자로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죽어가는 세상에 나타내며, 영혼들을 그분의 재림에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기관, 건물, 비행기, 장비, 재산, 부, 영향력, 학교, 교회-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성공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사용되는 항목들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수께서 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치료봉사 143). 마태복음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 합니다: 기별을 전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악령을 쫓아내는 것,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 낯선 자를 돌보는 것, 벗은 자를 입히는 것, 아픈 자와 감옥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마태복음 10:6~8; 25:35, 36; 28:19, 20).

하나님께서서는 재림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특별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분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운명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공격하는데 주력할 때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법, 성품,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 등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선교사에 대한 견해를 말해 주십시오.

A. 언제나 해외선교가 국내선교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해외선교가 국내선교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고대하신다는 사실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위해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충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교를 한다 해도 자금 경영을 잘 못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가 해외 선교사나 사업을 후원하는데 직접 관여하기로 하면 그 결과는 그 교회의 현금액의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현명한 목사는 그가 담임하는 교회 신도들에게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아래 움직이고 단순히 모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 (빌 4:19)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시대의 소망 330).

자원의 부족을 포함한 미지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전진할 자세를 기르십시오.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을 채우면 그때 움직이십시오.

어느 특정 사업을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어떤 사업들은 계속하기가 불가능할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기회의 창을 지나갑니다. 사업을 닫는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 앞에 놓인 카드로 일을 하십시오. 모든 조건들이 이상적일 때까지 기다리면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제자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 천 명을 먹여야 했던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들은 일을 수행하는데 음식이 부족하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여 주실 것’ (교회증언 6권 345)을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일보다 중요합니다. 기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은 인적자원입니다. 직원들을 잘 돌보면 그들이 일을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출 4:2).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